

2026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사회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사회는 한국 교회와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교회는 신뢰받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26년 2월 27일(금) 오전 10~12시

성락성결교회 2층 성산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2026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행일_ 2026년 2월 27일

발행인_ 지형은

편 집_ 김현아

디자인_ 윤동혁

발행처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02-794-6200 cemk@hanmail.net www.cemk.org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6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

순서 및 목차

- 사 회 - 신동식 기윤실 공동대표,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 인사말 - 지형은 기윤실 이사장,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여론조사 여덟 번째 결과를 발표하며 5p
- 분석발제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신학적 제안” 7p
- 성석환 본 여론조사 책임연구원,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교수, 도시공동체 연구소 소장
- 주제발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신뢰도 감소 현상에 관한 공공신학적 고찰
: 탈종교화와 공공성 상실의 관점에서” 32p
- 김상덕 본 여론조사 검토위원장,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
- 질의응답
- ※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53p
- ※ 여론조사 질문지 120p
- ※ 검토위원회 / 조사 진행 일정 / 수행기관 / 후원 127p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여덟 번째 결과를 발표하며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한국교회가 안으로는 거룩함과 믿음을 회복하고 밖으로는 사랑의 실천과 윤리적 모범을 행함으로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기윤실이 2008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와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묻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사역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추적·점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배포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스스로 건강성과 신뢰도 제고의 지표를 점검하도록 도왔습니다.

본 여론조사는 2008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0년, 2013년, 2017년, 2020년, 2023년, 그리고 이번 2026년까지 총 8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한국교회, 목회자,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 종교별 이미지 및 선호도,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사 시기 전후 한국 사회와 교계의 시의성 있는 사안과 관련한 한국교회 인식 등의 문항을 통해 다각적·통합적 평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조사의 객관적 결과 지표 뿐 아니라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자성하고 개혁되며 나아가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한국 사회의 성숙과 공공성 함양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단서와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 및 위상을 정직하게 인식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바로 서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함께 책임지고 사회 통합과 공공성 회복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여론조사 결과 분석 자료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 이미지의 현 주소를 드러내며 한국교회에 대해 내부적 진단과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시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한국 교회가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사회의 일원이자 종교적 역할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교회의 갱신과 사회의 성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신뢰도 향상은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갱신의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추락, 교세 감소와 탈교회 현상 등은 그 동안 한국교회가 보인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에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준 시사점들을 유념하며 한국교회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정과 회복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위기에 대응하며 화평과 희망의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윤실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한국교회의 내부적, 대사회적 과제를 교회와 함께 성찰하며 실천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지형은 | 공동대표 정병오 신동식 이상민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신학적 제안

성석환

본 여론조사 책임연구원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

목 차

제1장 조사 취지와 목적	제4장 종합 분석
제2장 조사 개요	제5장 결론 및 제안
제3장 조사 결과	조사의 범위와 해석의 한계
3.1 전반적 신뢰도	
3.2 목사 및 개신교인 신뢰도	
3.3 종교 인식 구조	
3.4 사회 기여 인식	
3.5 정치 참여 및 이념 인식	

제1장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과 의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수행한 이번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인식 구조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이다. 본 조사는 2008년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연속 조사로서, 2026년 조사는 여덟 번째 차수에 해당한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조를 분석하며, 교회의 공공적 역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1.2 조사 설계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조사 지역은 전국이다. 조사 방법은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표본 규모는 총 1,000명(유효표본)이다. 표본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이며, 조사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이다. 자료 처리는 SPSS 18.0을 활용하였고, 조사 기관은 (주)지앤컴리서치이다.

1.3 응답자 특성

총 응답자 1,000명은 성별·연령·지역 기준 인구비례할당에 따라 구성되었다. 성별은 남성 49.3%, 여성 50.7%이며, 연령 분포는 19-29세 13.7%, 30대 15.3%, 40대 17.5%, 50대 19.8%, 60대 이상 33.7%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개요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구조적으로 재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장 본 결과보고서의 작성 책임과 분석 관점

2.1 작성 책임과 보고서의 성격

본 결과보고서는 기윤실의 의뢰에 따라 책임연구자 성석환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기독교와문화, 도시공동체 연구소장)가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앤컴이 수행하여 작성한 「기윤실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의 원 자료를 토대로, 조사 결과가 드러내는 신뢰 구조와 인식의 분화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해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결과보고서는 원 조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책임연구자의 신학적 관점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안하는 성격을 갖는다.

2.2 분석 방법과 비교 기준

본 보고서는 2026년 조사 결과를 단일 시점의 자료로 해석하지 않고, 2020년 및 2023년에 수행된 동일 조사 결과와 비교·대조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수행한 「2025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 “개신교인의 극우성향을 진단하다”」를 참고하여 분석과 해석을 보완하였다.

2.3 분석 체계와 보고서 전개 구조

본 보고서는 원 설문 문항을 분석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분석은 전반적 신뢰 수준, 행위자에 대한 신뢰, 종교 간 비교 인식, 신뢰 회복 과제, 사회적 이미지와 이바지 평가의 다섯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에 따라 제3장은 조사 결과 분석, 제4장은 공공신학적 제안, 제5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제3장 2026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 분석

본 장은 조사 결과의 응답 분포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문항이 보여주는 구조적 의미를 객관적 수치에 근거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신학적 평가나 규범적 제안에 앞서, 조사 데이터가 드러내는 인식의 분포와 그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장은 전반적 신뢰도, 목사 및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 종교 비교 인식, 신뢰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사회적 이미지 및 사회적 이바지 평가, 정치 참여 인식 및 이념적 위치 평가라는 여섯 항목에 따라 결과를 배열한다. 각 항목은 독립적으로 제시되지만, 동시에 상호 연결된 인식 구조를 형성한다. 이 장의 목표는 특정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판단이 어떤 패턴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

3.1 전반적 신뢰도: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현재 수준

질문(문 1). “귀하께서는 한국 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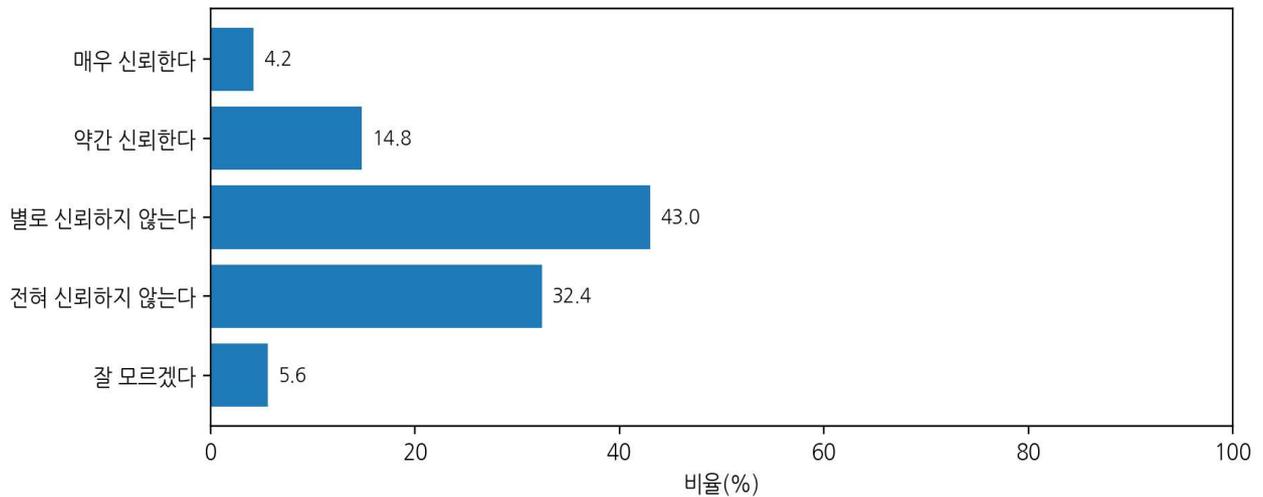


그림 3-1.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분포

전반적 신뢰의 분포는 이후 행위자 평가 및 공공 이미지·정치 인식의 해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한국 교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0%(매우 4.2%, 약간 14.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별로 43.0%, 전혀 32.4%)로 나타났다. 신뢰-불신 격차는 56.4%p로, 단순한 비판 여론을 넘어 구조적 불신 상태가 확인된다. 응답자의 종교별로는 개신교인 내부에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무종교·타종교 집단에서는 불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는 사회 전체의 공유 자산이라기보다 내부 유대 속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내부 자원’으로 축소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판단 유보(‘잘 모르겠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불신 응답이 더 공고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경험 축적이 많은 집단일수록 평가가 고정화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가 5.6%에 그친 점은 평가가 유보된 상태라기보다, 다수 응답자가 이미 판단을 형성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낮은 신뢰는 무관심의 결과라기보다, 누적된 경험·인식에 근거한 부정적 결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2 행위자 신뢰도: 목회자와 개신교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본 절은 목회자와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 인식의 분포를 비교하고, 행위자별 신뢰 구조의 특징을 살펴본다. 교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대표 행위자와 일반 신자의 평가에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층과 평신도에 대한 판단이 동일한 이미지 구조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연령별 차이를 통해 행위자 신뢰 인식의 세대별 특성을 점검한다.

3.2.1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

질문(문 2-1). “귀하께서는 한국교회 목회자(목사)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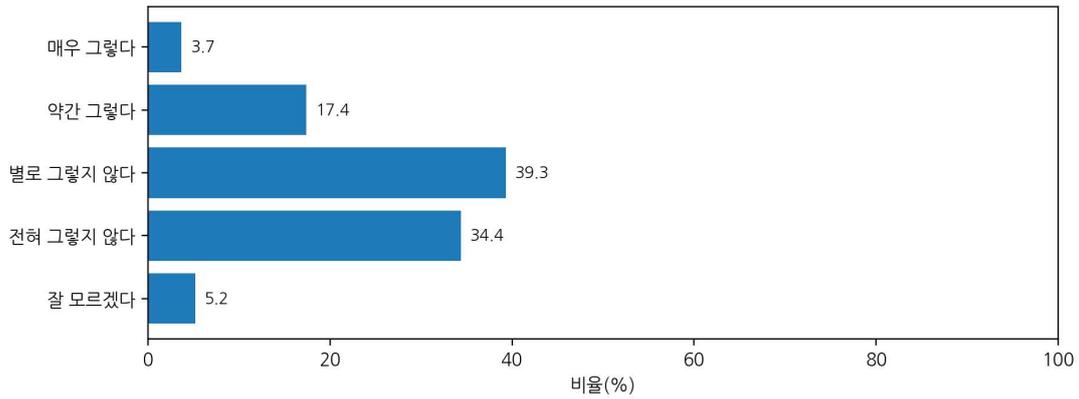


그림 3-2.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1%였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7%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 교회 신뢰도(신뢰 19.0%, 불신 75.4%)와 거의 유사한 분포이다. 이 수치는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이 제도에 대한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 행위자의 언행에 대한 구체적 평가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와 불신 간 격차는 52.6%p로, 이는 평가가 양분된 상태라기보다 부정적 판단이 명확히 우세한 구조임을 의미한다. 기독교인 응답자 내부에서도 일정 비율(33.3%)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외부의 오해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뢰 문제는 외부 이미지 관리의 차원을 넘어, 내부 평가와도 연결되어 있다. 연령 및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일부 확인되지만, 모든 집단에서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을 상회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 목회자 신뢰 문제는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행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2.2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

질문(문 2-2). “귀하께서는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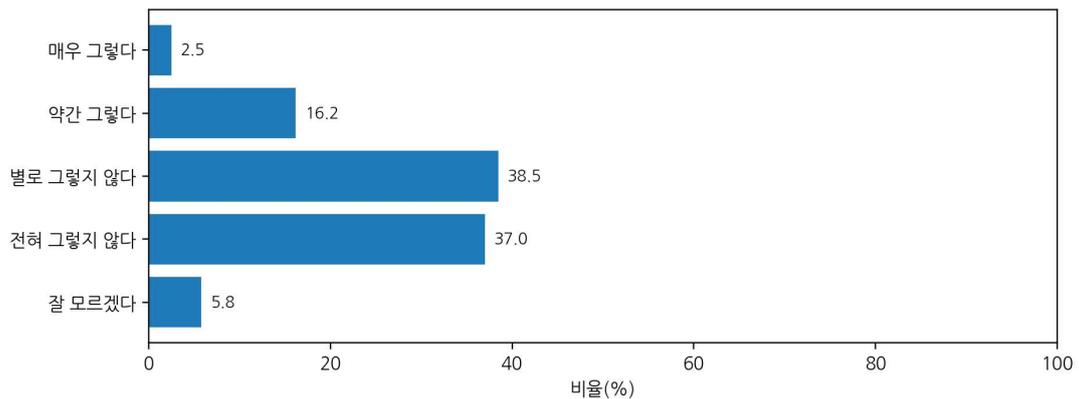


그림 3-3.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8.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5%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보다도 낮은 신뢰 수준이다. 이 결과는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도자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신자의 일상적 태도와 언행에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 신뢰도(19.0%)와 거의 동일한 수치로 수렴한다는 점은, 교회·목회자·신자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적 인식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 유무 및 연령별 차이는 존재하나, 불신 우세 구조 자체는 모든 집단에서 유지된다.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사회적 행위 전반에 대한 판단과 직결되어 있다.

3.3 종교 간 비교 인식: 친근감·신뢰·관심·중요도

이 절에서는 종교별 친근감, 신뢰, 관심도, 중요도를 비교하고 내부 신도들과 외부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본다.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친근감과 신뢰에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맥락을 분석하고, 각 종교의 세대별 차이를 논의한다.

3.3.1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질문(문 11). “귀하께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로는 불교(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주교(21.5%), 개신교(16.7%) 순으로 집계되었다.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19.4%, ‘잘 모르겠다’는 5.4%였다. 개신교는 불교와 17.3%p의 격차를 보이며, 천주교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다. 이는 종교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정서 거리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친근감은 신뢰 이전 단계의 정서적 접근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신교가 사회적 가시성에 비해 정서적 친밀성에서는 열세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종교 없음’ 응답(19.4%)이 개신교 친근감 응답(16.7%)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개신교가 친근한 선택지로 인식되지 않는 층위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특정 종교에 대한 선호를 넘어, 종교 자체로부터의 이탈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개신교는 사회적 영향력과 별개로, 정서적 친근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위치에 놓여 있다.

3.3.2 가장 신뢰하는 종교

질문(문 12). “귀하께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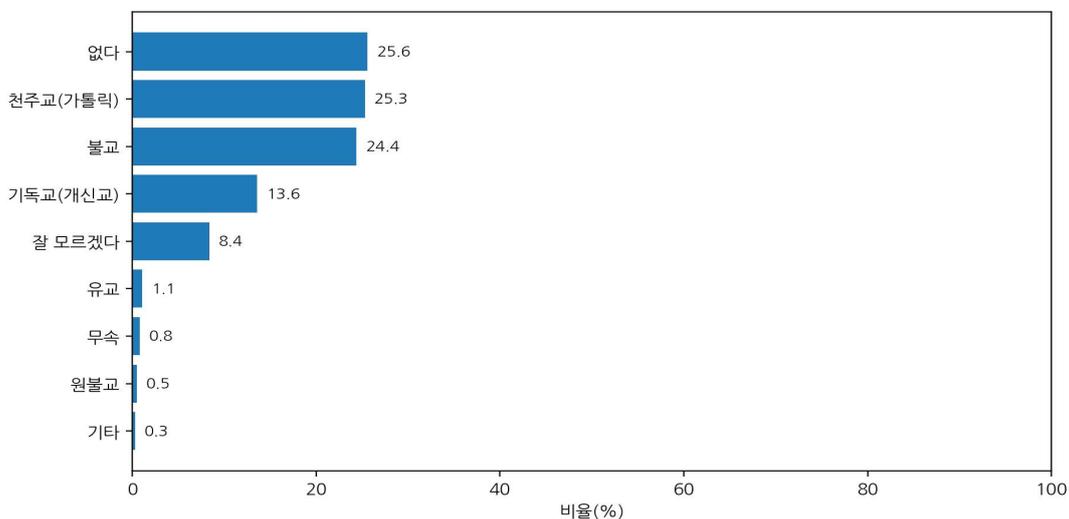


그림 3-4. 가장 신뢰하는 종교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천주교(25.3%)와 불교(24.4%)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개신교는 1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없음/모름/무응답’은 34.0%에 달해, 종교 전반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거나 갖지 않는 응답자가 3명 중 1명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친근감보다도 신뢰에서 개신교의 위치가 더 낮은 현실을 반영한다.

3.3.3 종교에 대한 관심도

질문(문 10). “귀하께서는 다음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종교 관심도 조사에서 ‘관심이 있다’(약간+매우 있다)는 응답은 43.3%였고, ‘관심이 없다’(별로+전혀 없다)는 54.6%로 절반 이상이 종교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종교인의 경우 종교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24.2%에 그쳤으며, 20~40대에서는 3명 중 1명만이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매우 관심이 있다’는 비율은 12.6%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관심 수준이 낮았다.

3.3.4 종교의 중요도 인식

질문(DQ 5). “종교가 개인적으로 귀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 문항은 핵심 설문 문항이 아니라 응답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 문항(DQ)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시하는 이유는, 종교 중요도 인식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수준과 내부 신앙 밀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보조 지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종교인 응답자 가운데 ‘중요하다’(약간+매우 중요하다)는 78.8%, ‘중요하지 않다’는 21.2%로 나타났다. 개신교인은 89.5%, 천주교인은 82.3%가 종교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20대 종교인에서는 37.8%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된다. 이는 종교 내부에서의 중요도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서 확인된 사회적 신뢰 수준과는 별개의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문항은 이후 4장에서 내부 신앙 강도와 외부 신뢰 구조의 상관 관계를 검토하는 기초 변수로 활용한다.

3.4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 과제와 사회적 기대

이 절에서는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와 사회적 기대를 살핀다. 목회자와 신자에 대한 신뢰 개선 요소,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3.4.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질문(문 3).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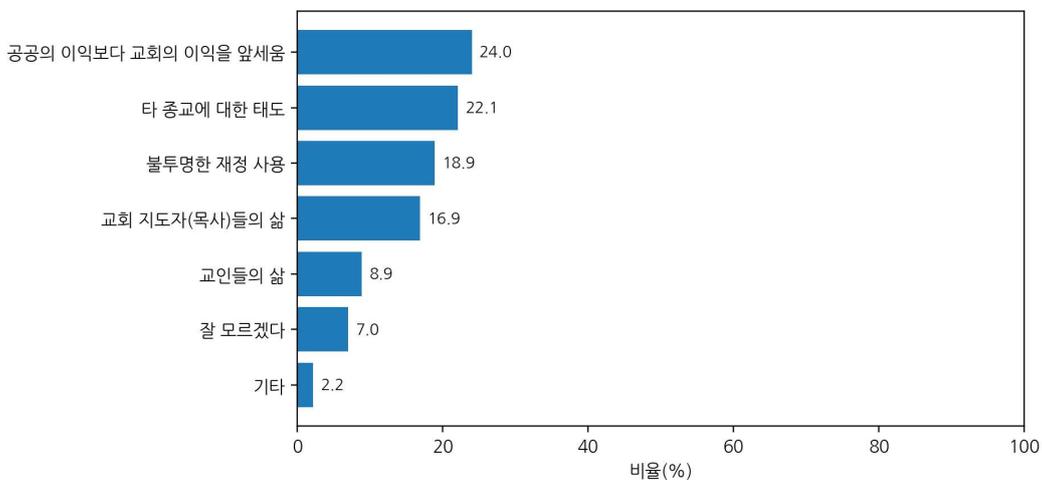


그림 3-5.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가장 높은 응답은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24.0%)였다. 그 다음으로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22.1%), ‘불투명한 재정 운영’(18.9%)이 뒤를 이었다. 이 세 항목은 각각 공공성, 관계성, 윤리성의 문제를 반영한다. 응답자들은 한국교회의 활동 자체보다,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과 태도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교회 이익 우선’과 ‘배타성’ 항목이 상위에 위치한 것은, 교회의 대사회적 관계 맺음 방식이 신뢰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 저하는 단일 사건이나 일시적 논란의 결과라기보다, 공적 태도 전반에 대한 누적 평가의 산물로 읽힌다.

3.4.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질문(문 4). “한국교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사회적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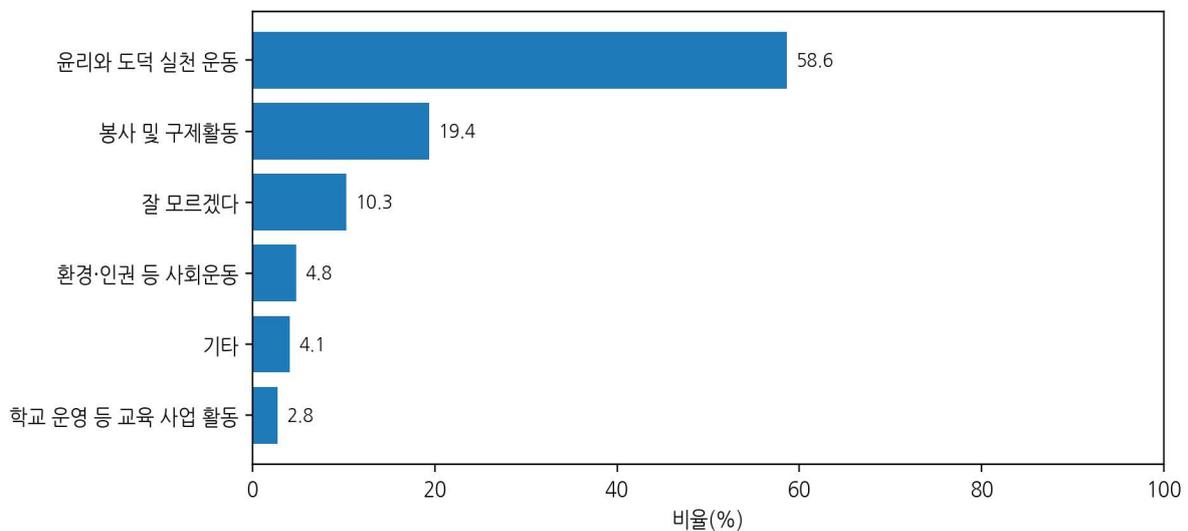


그림 3-6.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가장 높은 응답은 ‘윤리·도덕 실천 강화’(58.6%)였다. 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는 새로운 사업이나 외연 확장보다는 기본적 삶의 태도와 윤리적 일관성 회복이 신뢰 제고의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교회의 영향력 확대보다, 신뢰 기반의 윤리적 일관성 회복을 더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3.4.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질문(문 5). “목회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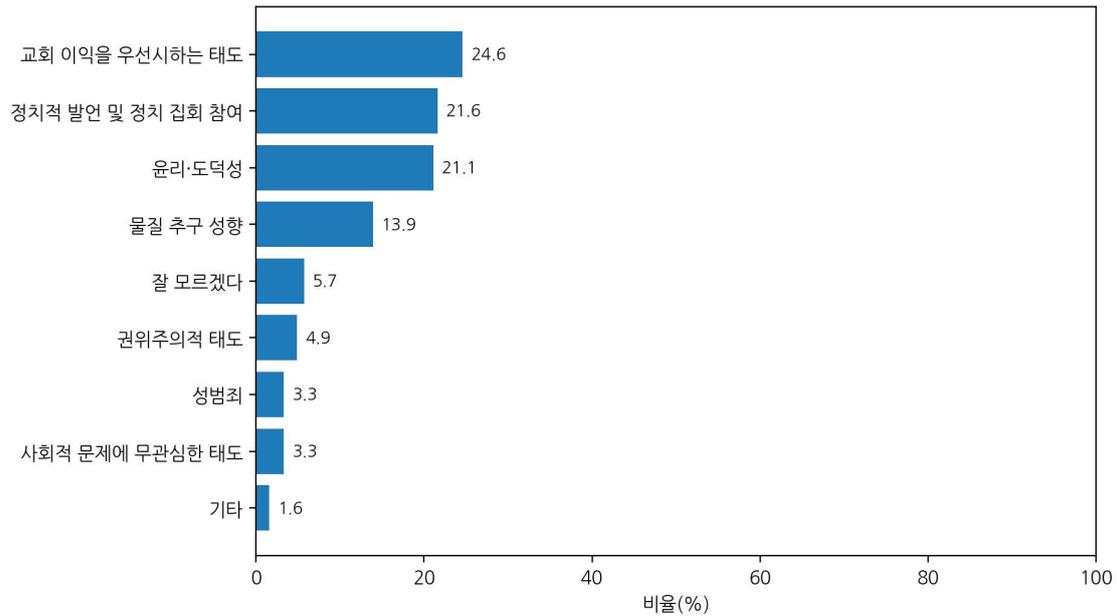


그림 3-7.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교회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24.6%), ‘정치적 발언·집회 참여’(21.6%), ‘윤리·도덕성 문제’(21.1%)가 상위 항목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공적 발언과 정치적 행동이 사회적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목회자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경건성보다 공적 책임성과 사회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있다.

3.4.4 개신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질문(문 6). “개신교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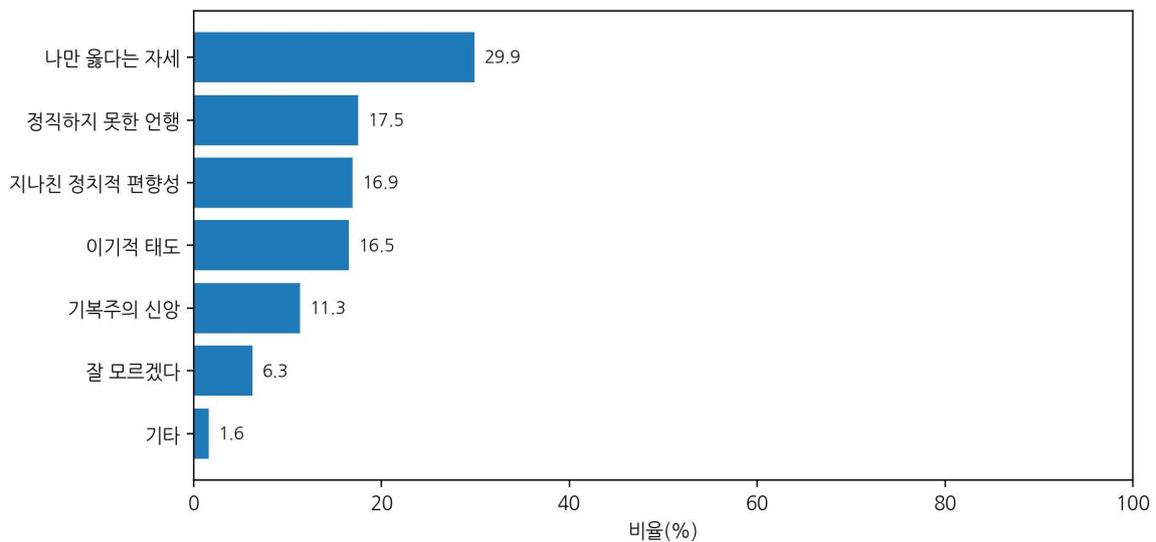


그림 3-8. 개신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나만 옳다는 자세’(29.9%)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는 교리 내용이나 신앙의 강도 자체보다, 그것을 표현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신뢰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앙의 내용보다 그것이 드러나는 태도와 관계 방식이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3.5 사회적 이미지와 이바지 평가

본 절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이미지와 이바지 평가를 살펴본다. 현재 사회가 교회의 어떤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3.5.1 한국교회 이미지: 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질문(문 9). “한국교회는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종교적 신념을 우선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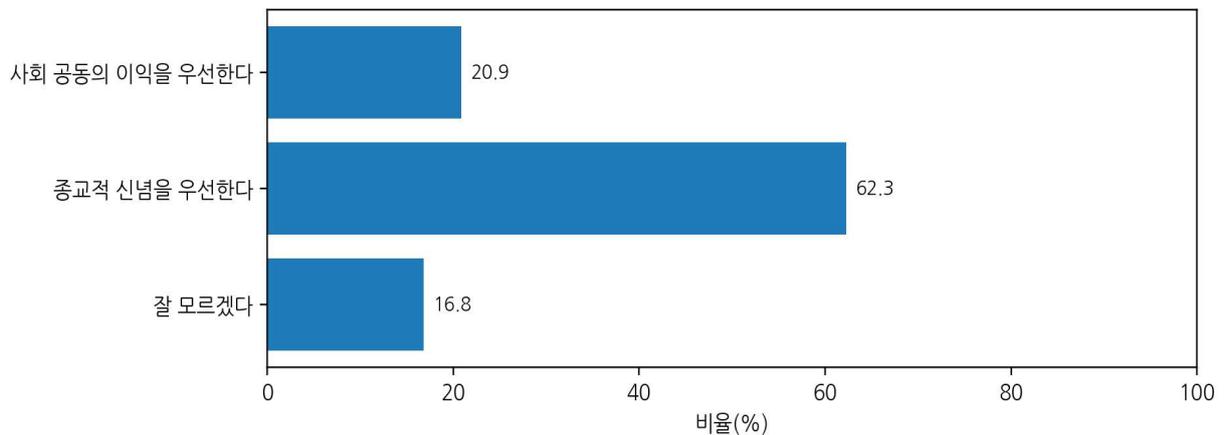


그림 3-9. 한국교회 이미지: 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62.3%였으며, ‘사회 공동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6.8%였다. 이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공익 기관으로 인식되기보다, 내부 신념 중심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교회의 공공성 이미지는 응답자 다수에게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5.2 언론 보도 vs 개인 경험

질문(문 18). “한국교회 및 기독교인에 대한 언론 보도는 개인의 경험과 비교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와 개인 경험의 일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언론이 더 긍정적으로 보도한다’는 응답은 29.8%, ‘더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응답은 26.6%였다. 이는 언론과 현실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으며, 교회의 이미지가 일상적 경험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3 한국교회가 현재 이바지하고 있는 영역

질문(문 16). “한국교회가 현재 가장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현재 교회가 사회에 가장 이바지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정신적 위로 및 심리적 안정 제공’ 57.8%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복지’ 56.6%가 상위로 꼽혔다. 이어 ‘사회윤리적 가치 형성과 제고’ 29.2%, ‘재난과 위기

대응' 15.9%, '민주화·자유·정의·평화 등 사회적 공의를 위한 활동' 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의 긍정적 평가가 주로 정서적·복지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5.4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바지해야 할 영역

질문(문 17). “앞으로 한국교회가 가장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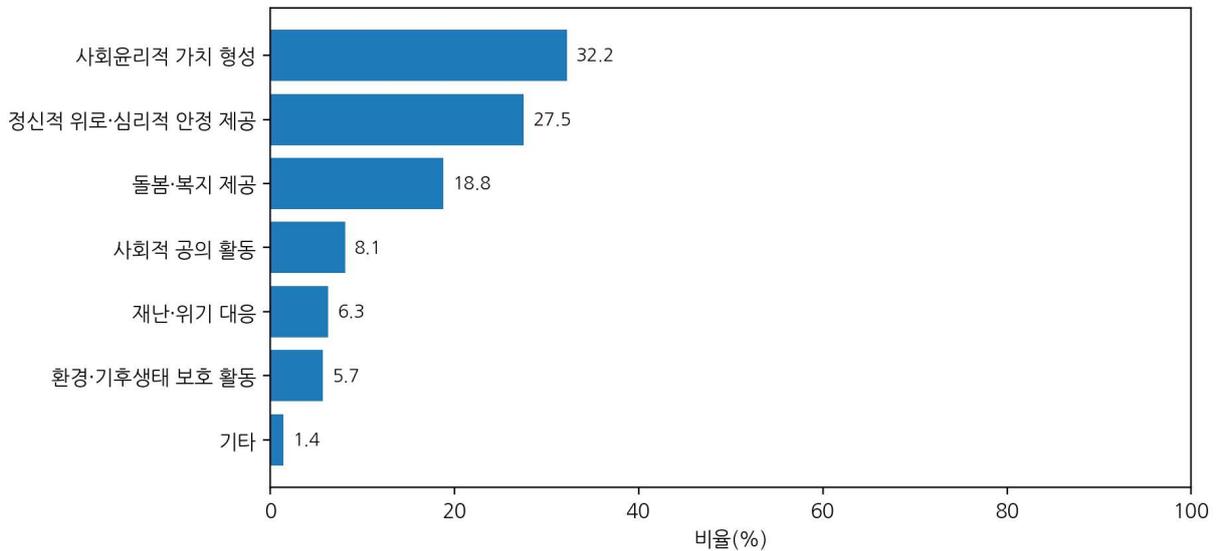


그림 3-10.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바지해야 할 영역

한국교회가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할 영역으로는 '사회윤리적 가치 형성' 57.4%, 취약계층 돌봄·복지 54.1%, 정신적 위로 및 심리적 안정 제공 38.7%, 민주화·자유·정의·평화 등 사회적 공의를 위한 활동 17.3% 순이었다. 이는 현재 이바지 영역과 비교할 때 기대의 방향이 정서적 위로에서 공공 윤리 형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6 한국교회의 정치·이념 인식 구조와 신뢰의 연동

이번 조사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는 정치·이념 인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 특히 이념 성향 인식, 목사의 정치적 참여, 그리고 12.3 비상계엄 이후 교회 태도에 대한 평가는 교회의 공공적 위치에 대한 사회적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표로 기능한다. 다음 세 문항은 정치적 동일시 이미지와 신뢰 구조의 연동 양상을 보여준다.

3.6.1 한국교회 전반적 이념 성향 인식

질문(문 20) “한국교회의 전반적 이념 성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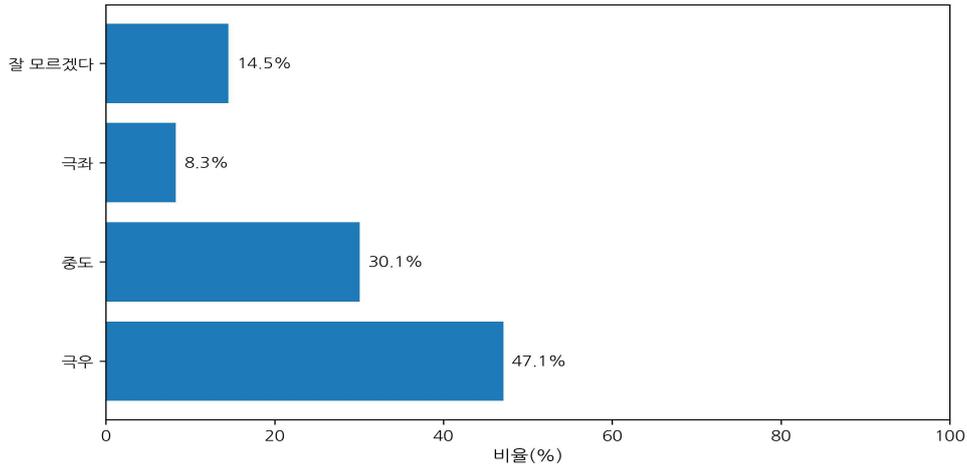


그림 3-11. 한국교회의 전반적 이념 성향 인식

응답자의 47.1%는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도’(30.1%)와 비교할 때 17.0%p 높은 격차를 보인다. ‘극좌’(8.3%)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교회가 공공 영역에서 특정 정치 지형과 동일시되는 이미지가 상당 수준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4장에서 비교하는 기사연 조사의 21%와 큰 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를 기윤실 조사의 47.1%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사연 조사는 개신교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다층적 지표를 통해 분류한 결과인 반면, 기윤실 조사는 한국교회라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윤실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교회의 태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고, ‘옹호 주장에 더 동의한다’는 응답이 26.6%로 나타난 점은, 교회의 이념 성향 인식이 정당정치의 좌우 구도라기보다는 최근 정치 사건과 결합된 평가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47.1%라는 수치는 교회 내부의 극우 성향 분포를 직접 반영한다기보다, 공적 장면에서 드러난 특정 정치적 행위와 발언이 ‘극우’라는 집합적 이미지로 번역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3.6.2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질문(문 15) “귀하께서는 교회 혹은 목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이나 찬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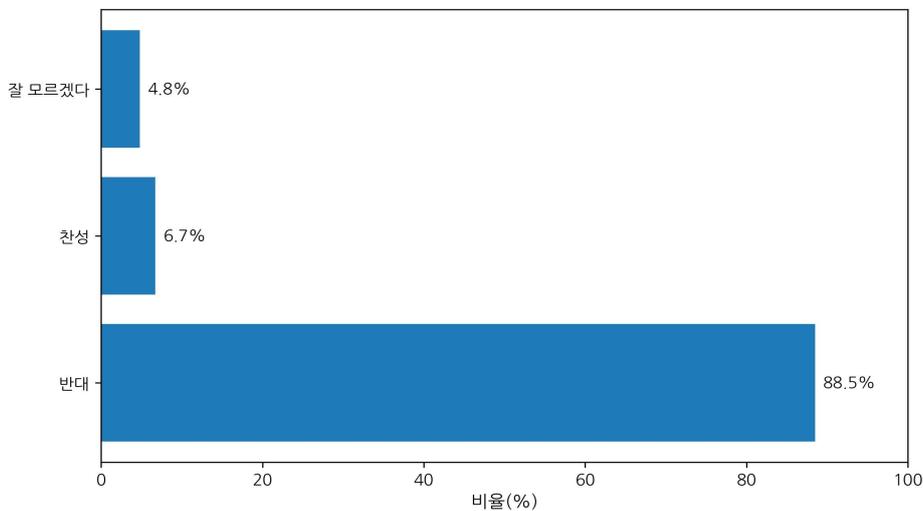


그림 3-12.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88.5%가 반대하고, 6.7%만이 찬성하였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직접적인 정치 결합이 사회적 신뢰 형성에서 강한 감점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앞서 확인된 이념 성향 인식과 동일한 방향성을 형성한다.

3.6.3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한국교회 태도 인식

질문(문 19) “비상 계엄과 그 이후 한국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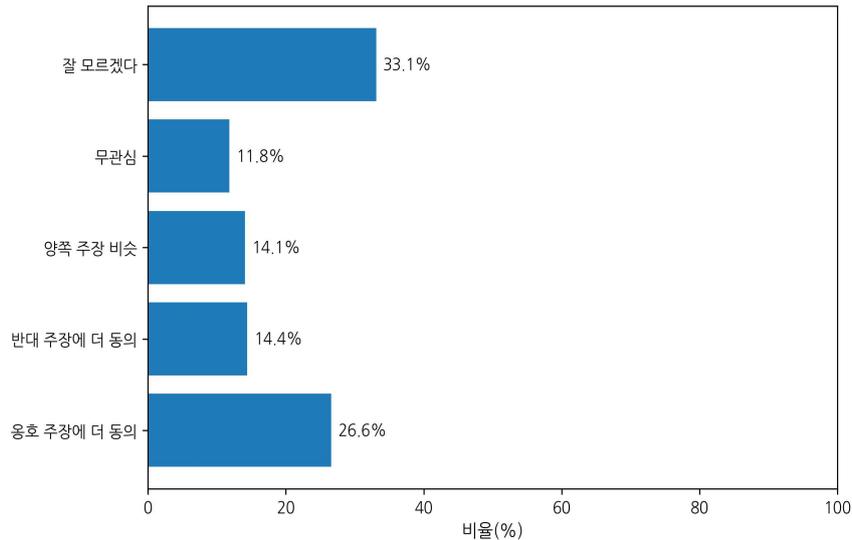


그림 3-13. 12.3 비상계엄과 이후 한국교회 태도 인식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교회 태도에 대한 인식은 ‘잘 모르겠다’(33.1%)가 가장 높았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에 더 동의한다’는 응답은 26.6%였으며, ‘반대 주장에 더 동의한다’는 14.4%로 나타났다. ‘양쪽 주장 비슷’(14.1%)과 ‘무관심’(11.8%) 응답도 일정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교회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성과 일정 수준의 옹호 인식이병존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또한 종교 집단별로 보면 12.3 비상계엄 이후 교회 태도 인식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전체 응답에서는 ‘옹호 주장에 더 동의한다’(26.6%)가 ‘반대 주장에 더 동의한다’(14.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개신교인 응답자 내부에서는 ‘반대 주장에 더 동의한다’(25.1%)가 ‘옹호 주장에 더 동의한다’(22.2%)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무종교인과 타종교인 집단에서는 ‘옹호 주장 동의’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의 인식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한 비율은 전체 47.1%이나, 연령별로는 20대 30.7%, 50대 59.6%로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된다. 극우 인식의 배경으로는 ‘집회 및 시위’(47.6%)와 ‘언론 보도’(40.5%)가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극우로 평가한 집단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회의 공적 장면 노출이 이념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장 소결

제3장은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사회적기여 인식, 언론 이미지와 개인 경험의 비교, 정치적 참여에 대한 태도, 12.3 비상계엄 이후 태도 인식, 그리고 이념 성향 평가를 기술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는 부정 응답이 우세한 구조를 보이며, 긍정 응답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는 돌봄·복지·위로 기능에 대한 긍정 인식이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공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 대해서는 인식이 분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돌봄 주체로서는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으나, 공적 가치 형성의주체로서는 논쟁적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영역과 관련해서는 목사의정치적 발언 및 정치 참여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인식의 불확실성이 함께 나타났다. 동시에 한국교회의 전반적 이념 성향을 ‘극우’로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배경으로 집회·시위, 주변 기독교인의 발언, 언론 보도, 온라인 정치 콘텐츠 등이 지목되었다. 이는 교회의 정치적 이미지가 직접 경험뿐 아니라 공적 장면과 매체 환경을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상황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정치적 사건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공성확대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정치적 인식 구조를 핵심 변수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장은 현황의 기술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각 인식이 응답자 특성과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관 구조 분석은 다음 장에서 교차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신학적 제안

제4장은 제3장에서 제시된 주요 조사 결과를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되, 각 소주제는 동일한 네 단계의 구조로 전개된다. 첫째, 해당 주제에 대한 과거 조사와의 추이를 점검하여 구조적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2026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기술한다. 셋째,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을 통해 세대·이념·종교 집단 간 인식의 분화 구조를 확인한다. 이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리서치〉 등의 외부 자료와 비교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 결과가 한국교회의 공공성, 정치적 위치, 사회적 신뢰 회복 전략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며,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후기세속시대의 종교 담론을 개입시킨다.

따라서 본 장은 단순한 수치 해설이 아니라, 각 주제를 동일한 분석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한국교회를 둘러싼 신뢰와 정치 인식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단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4.1 정당성 위기: ‘신뢰 저점 고착’은 구조적 문제다

전반 신뢰 19.0%·불신 75.4%(문1)라는 저점 위에서, 교회가 공론장에서 자신을 사회적으로 설득 가능한 방

식, 즉 설득력(plausibility)으로 제시하고 검증받는 경로가 약화되었다는 판단이 강화된다. 이때 신뢰의 핵심은 호감/비호감의 정서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요구되는 '정당화 형식'을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3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하는 응답이 47.1%에 이른다는 사실은, 정당성 위기가 단순한 도덕성 평가를 넘어 정치적 동일시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회의 공적 발언과 참여가 특정 이념 지형과 연계된 것으로 해석되는 조건 속에서, 교회의 공적 설득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1.1. 추이평가

기윤실의 지난 두 번의 조사를 포함하는 추적조사의 결과를 단순한 '등락'으로만 읽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기윤실 2020; 기윤실 2023; 기윤실 2026). 2020년(신뢰 31.8%·불신 63.9%) 대비 2026년(신뢰 19.0%·불신 75.4%)의 격차는 신뢰 하락이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재배열의 국면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기윤실 2020; 기윤실 2026). 2020년 자료집은 4점 척도('보통' 제거)로 인해 과거 차수와의 직접 비교에 제약이 있으나(기윤실 2020), 2023년 자료집이 제시한 2020-2023 시계열(2020 31.8% → 2021 20.9% → 2022 18.1% → 2023 21.0%)을 함께 고려하면, 20% 전후의 낮은 신뢰 구간이 장기화·고정화되었다는 해석은 상당한 개연성을 획득한다(기윤실 2023).

이때 '저점 고착'은 단순한 부정 인식의 확장이라기보다, 교회의 공적 활동이 시민사회의 공론장/현실 세계에서 '신뢰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약화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공론장에서 설득 가능한 방식으로 확인되고, 의심을 통과하며, 공동선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가가 신뢰의 조건으로 부상했다.

4.1.2. 2026 결과평가

문1(전반 신뢰도)에서 신뢰 19.0%, 불신 75.4%는 신뢰가 '소수의 호감'으로 축소되고 불신이 '다수의 기본값'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단지 평균치의 하락이 아니라, '불신이 기본값이 된 상태'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신뢰 27.3%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50대는 불신 83.3%로 가장 높다(문1-교차). 또한 19-29세는 '잘 모르겠다' 11.7%가 상대적으로 높아, 판단 자체가 '무관심/비경험'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함께 관찰된다(문1-교차). 요컨대 2026 결과는 "교회가 미움을 받는다"는 정서 진술로 환원되기보다, "교회가 공론장에서 요구되는 신뢰의 형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정당성의 문제로 재진술될 필요가 있다. 이 정당성 위기의 구체적 단서는 문5(목회자 신뢰 개선점)에서 확인된다. '교회 이익 우선' 24.6%와 '정치적 발언·집회 참여' 21.6%가 상위에 놓인 배치(문5), 신뢰 회복이 '선행의 총량'보다 공론장에서의 표현 방식·책임 방식·검증 가능성의 문제로 더 직접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을 보면, 신뢰 하락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일 현상이 아니라, 세대·종교·이념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예컨대 20대에서는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한 비율이 30.7%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50대에서는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2.3 비상계엄 인식에서 개신교인 내부는 '반대 주장 동의'(25.1%)가 '옹호 주장 동의'(22.2%)보다 다소 높았으나, 무종교인과

타종교인 집단에서는 ‘우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회 내부의 자기 인식과 외부 집단의 정치적 동일시 인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뢰 회복 전략은 단일한 이미지 개선 차원을 넘어, 세대별·집단별 인식 구조를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필요로 한다. 종교 중요도(DQ5)와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도(문1)를 교차 분석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종교를 ‘중요하다’(약간+매우)고 인식한 비율이 78.9%에 달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해당 비율이 36.3%에 그쳤다. 반대로 종교를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비율은 신뢰 집단 20.0%, 비신뢰 집단 63.0%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종교 중요도 인식과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 집단 내부에서는 종교의 삶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비신뢰 집단에서는 종교의 중요성 자체가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4.1.3. 공공신학적 평가

후기세속사회에서 종교의 공공성은 ‘정체성의 자기선언’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수행’으로 평가된다. 이 규범 판단이 더 엄격해지는 배경은, 공론장의 기본 청중이 이미 ‘무종교 다수’로 재편되었다는 조건 때문이다.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주간리포트(제358-3호)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은 문항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를 통해 종교 인구를 추산하며, 종교 없음 51%, 개신교 20%, 불교 16%, 천주교 11%로 제시한다. 연령별로는 18-29세 종교 없음 72%, 30대 64%로 보고한다(한국리서치2025).

이 조건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낮은 신뢰는 단지 ‘정서’가 아니라, 교회가 공론장에서 요구되는 책임·투명·속의·검증 가능성의 형식을 충분히 구현했는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읽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뢰 회복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총량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설득 가능해지는 형식의 재구성에 놓인다.

4.1.4. 예측·제안

낮은 신뢰 구간의 장기화 위험은 크다. 더 결정적인 위험은 신뢰를 회복할 ‘경로’가 복원되지 못한 채, 내부 결속 강화로만 전략이 수렴하는 경우다. 종교 없음 51%(18-29세 72%, 30대 64%)라는 조건은, 신뢰 회복의 표적이 구조적으로 교회 바깥에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한국리서치 2025). 이 조건에서 신뢰 회복은 ‘이미 교회에 우호적인 청중’을 향한 메시지 강화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확인 가능한 책임 형식을 통해 ‘낮선 청중’에게 신뢰를 획득하는 문제로 재정의된다.

따라서 대안은 프로그램의 ‘추가’가 아니라 공론장 참여 방식과 책임 형식의 ‘전환’이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신뢰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가”이다.

첫째, 소통·표현의 공론장 규율화가 필요하다. 교회의 표현이 공공선의 언어로 번역되기보다 특정 이해관계의 표출로 읽히는 순간 신뢰 비용이 급격히 커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부 언어를 그대로 확장하기보다, 공공선 언어로 번역 가능한 방식으로 신념을 표현하고, 상호성·절제·절차 존중을 갖춘 ‘표현의 규칙’을 공동 규범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88.5%에 달했으며(문15), 한국교회를 ‘극우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응답은 47.1%로 나타났다(문20). 또한 계엄 이후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33.1%, ‘옹호 주장에 동의한다’ 26.6%, ‘반대 주장에 동의한다’ 14.4%, ‘양쪽 주장에 모두 동의한다’ 14.1%로 인식이 분화되어 있었다(문19). 이러한 결과는 교회의 정치적 표현 방식이 사회적 신뢰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조사에서의 ‘극우’는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인식(문20)을 의미하며, 기사연 조사에서의 ‘극우성향’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다층 지표로 분류한 결과라는 점에서 동일 개념은 아니다. 두 수치는 직접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형성된 인식 구조와 교회의 정치적 자기 이해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보완적 지표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성·책임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회의 활동이 공익적 결과를 낳더라도 그 동기와 운영 방식이 “자기 이익의 확장”으로 의심받는 순간 신뢰로 축적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의의 선언이나 이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해관계 공개, 의사결정 책임 구조의 명료화, 재정 및 동원 구조의 공개 등 ‘의심을 통과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신뢰 회복의 선행 조건이 된다.

셋째, 외부 검증·피드백 장치가 필요하다. 공적 이바지가 신뢰 자산으로 전환하려면, 교회 내부의 자기평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읽을 수 있는 방식의 성과 공개와 피드백 경로가 상시화되어야 한다. 외부 평가·시민 피드백·성과 공개는 부차적 장식이 아니라 전환의 핵심 장치다. 이 장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교회의 공적 실천은 반복될수록 신뢰를 축적하기보다 “또 다른 자기강화”로 오해받을 위험이 커진다.

4.2 대표 행위자·구성원 신뢰의 균열: ‘정치화’와 ‘독선’이 신뢰 붕괴를 가속한다

교회 신뢰의 위기는 제도 일반의 평판에만 그치지 않고,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표상하는 개신교인의 공적 인격과 표현 방식에서 먼저 드러난다. 특히 ‘정치화’와 ‘독선’이 결합될 때 교회의 공적 표현은 공론장에서 공동선의 언어로 번역되기보다 집단적 이해관계의 표출로 읽히기 쉽고, 그 순간 공적 이바지는 신뢰 자산으로 축적되기보다 신뢰 비용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신뢰 회복의 관건은 “무엇을 더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하는 형식의 문제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극우’라는 규정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정치화 비판을 넘어 이미지의 고착을 의미한다. 교회가 실제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와 무관하게, 이미 특정 이념 범주로 분류되어 해석되는 조건에서는 모든 공적 발언이 그 틀 속에서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미지 고착은 신뢰 붕괴를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4.2.1. 추이평가

2020년 목회자 신뢰 개선점이 윤리·도덕성(51.5%)에 강하게 집중되었다면(기윤실 2020), 2026년에는 ‘교회 이익 우선’ 24.6%와 ‘정치적 발언·집회 참여’ 21.6%가 전면으로 이동한다(기윤실 2026). 개신교인 개선점에서도 ‘나만 옳다는 자세’ 29.9%, ‘절제되지 못한 언행’ 17.5%,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16.9%가 상위로 배열된다(기윤실 2026). 신뢰의 균열이 ‘윤리 일반’에서 ‘공적 표현·정치화·독선’으로 압축되는 흐름이 강화된다.

4.2.2. 2026 결과평가

문2(목사의 말과 행동)에서 신뢰 21.1%, 불신 73.7%이고,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에서도 신뢰 18.7%, 불신 75.5%로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다. 이 결과는 신뢰 붕괴가 '교회 제도'의 추상적 평가에 머물지 않고, 대표 행위자와 구성원의 '말과 행동'이라는 공적 표면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 인식 역시 분명한 방향을 갖는다. 문5(목회자 신뢰 개선점)에서 '교회 이익 우선' 24.6%, '정치적 발언·집회 참여' 21.6%, '윤리·도덕성' 21.1%가 상위에 놓이고, 문6(개신교인 신뢰 개선점)에서는 '나만 옳다는 자세' 29.9%, '절제되지 못한 언행' 17.5%,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16.9%가 상위를 차지한다. 요컨대 2026년의 신뢰 붕괴는 정치화·독선·언행의 문제가 신뢰 비용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2.3. 공공신학적 평가

기윤실 2026에서 드러난 '정치화/독선'의 문제는 외부 비판만이 아니라, 개신교 내부의 자기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기사연 「2025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 『개신교인의 극우성향을 진단하다』의 문항 “일부 기독교 극우 집단의 탄핵 반대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그렇다’ 61.8%, ‘그렇지 않다’ 20.3%로 제시된다. 극우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 50.5%이며, 이념별로 진보 79.8%, 중도 64.1%, 보수 48.2%가 ‘그렇다’로 응답한다. (기사연 2025).

이 결과를 이번 기윤실 조사와 연관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공신학적으로 중요하다. 신뢰 붕괴가 “바깥의 오해” 때문이라는 설명을 약화시키고, 교회 내부에서도 정치적 표현이 신뢰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 판단의 초점은 ‘정치적 입장 표명 금지’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을 공론장에서 공적 책임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야 한다.

4.2.4. 예측·제안

문5에서 (목사의) 정치적 발언·집회 참여가 개선점 상위로 자리하고, 기사연 2025의 동일 맥락 문항에서 ‘신뢰도 하락’ 동의가 61.8%로 확인되는 사실(기사연 2025)을 함께 고려하면, 전환이 없을 경우 정치적 표현이 교회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잠식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므로 처방은 개별 프로그램의 나열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교회가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형식”을 직접 겨냥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표현의 책임 규범을 제도화해야 한다. ‘신뢰도 하락’ 동의 61.8%는 교회 내부에서도 정치적 행동이 신뢰 비용으로 전환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정 후보·정당 지지의 조직화 금지, 교회 재정/조직 동원 금지, 책임 주체·대표성 명시 등 최소한의 제한선이 “권고”가 아니라 “규정”의 형태로 요청된다.

둘째, 독선·공격성 표현을 절제하여 대화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 문6에서 (개신교인의) 나만 옳다는 자세 29.9%, ‘절제되지 못한 언행’ 17.5%가 개선점 상위로 지목되는 흐름은, 공론장에서의 말과 태도가 신뢰를 파괴하는 직접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교·SNS·집회 등 전 영역에서 절제/상호성 기준을 교육·점검·피드백의 루틴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 이바지가 신뢰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복원해야 한다. 문3에서 ‘교회 이익 우선’ 24.6%가 개선점 상위로 지목되는 조건은, 공적 이바지 자체보다 ‘이익집단화로 읽히는 방식’이 더 큰 비용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부 파트너십 상시화, 시민이 읽을 수 있는 성과 공개, 비판 접수·시정 창구를 통해 공론장에서 확인 가능한 신뢰 축적의 경로를 재구축해야 한다.

4.3 공공성 이미지와 사회 이바지 기대의 재구성

이번 조사결과는 한국교회의 공적 신뢰 문제가 특정 이슈 하나로 환원되지 않으며, ‘신뢰의 수준’과 ‘공공성 이미지·이바지 기대’의 조합 속에서 구조화됨을 보여준다. 전반 신뢰 19.0%·불신 75.4%라는 저점(문1) 위에서, 교회가 ‘공익보다 신념을 우선한다’는 이미지가 우세하고(문9), 현재 이바지의 상위 평가와 향후 이바지의 최우선 요구가 서로 엇갈린다(문7, 문8). 이 간극은 돌봄의 인정이 곧바로 공적 설득력(plausibility)과 신뢰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에 따른 면밀한 선교적 실천을 요청한다.

4.3.1. 추이평가

2023-2026 비교가 가능한 핵심 지표에서, 2026년 ‘신념 우선’ 이미지는 2023년 대비 2.7%p 상승했다(기윤실 2023; 기윤실 2026). 변화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2020-2026의 낮은 신뢰 구간 고착 흐름(기윤실 2020; 기윤실 2023; 기윤실 2026) 속에서 보면, 이는 공적 신뢰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기보다 ‘사회적 신뢰성 판단’의 불리한 조건이 지속되는 국면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4.3.2. 2026 결과 평가

문9(‘공익 추구’ vs ‘신념 추구’)에서는 ‘신념 추구’가 62.3%로 우세하고 ‘공익 추구’는 20.9%에 그친다. 문16(현재 이바지)에서는 ‘위로·심리 안정’ 57.8%, ‘돌봄·복지’ 56.6%가 상위로 집계된다. 그러나 문17(향후 이바지 요구)에서는 ‘사회윤리적 가치 형성·제고’ 57.4%가 최우선으로 부상하고, ‘돌봄·복지’는 54.1%로 뒤를 잇는다. 아울러 문18(언론보도 vs 개인경험)에서는 ‘경험과 비슷’이 43.6%로 나타난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사회는 교회의 공익적 돌봄 사역을 일정하게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바지 평가(문16)에서 ‘위로·심리 안정’이 57.8%, ‘돌봄·복지’가 56.6%로 상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신뢰의 핵심 요구는 향후 이바지 요구(문17)에서 ‘사회윤리적 가치 형성·제고’가 57.4%로 최우선에 놓인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공공성의 약점은 ‘돌봄 부족’이라기보다 ‘공익보다 신념을 앞세울 것’이라는 사회적 예상(62.3%)에서 발생하며, 신뢰 회복의 우선적 현장은 이미지 관리만이 아니라 실제 경험의 장—언론보도와 개인경험이 ‘비슷하다’(문18, 43.6%)고 응답한 비율—이다.

4.3.3. 공공신학적 평가

후기세속사회에서 종교의 공공성은 ‘정체성의 자기선언’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수행’으로 평가된다. 이 규범 판단이 더 엄격해지는 이유는 공론장의 기본 청중이 이미 ‘무종교 다수’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한국리서치 2025).

「한국리서치주간리포트(제358-3호)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은 문항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를 통해 종교 인구를 추산하며, 종교 없음 51%, 연령별 18-29세 72%, 30대 64%로 보고한다(한국리서치 2025).

이 조건에서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가 '신념을 우선한다'는 이미지(62.3%)로 각인되는 것은 단지 호감도 문제가 아니라 공적 설득력(plausibility)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공적 과제는,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 신앙적 정체성을 약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념이 공익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읽히지 않도록 '공적 책임의 형식'을 제도화하고 공론장에 참여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실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4.3.4. 예측·제안

사회가 한국교회의 돌봄 사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지라도, 시민사회에서 '윤리적 신뢰'의 형식을 구축되지 못하면 그러한 돌봄 활동에 대한 인정은 신뢰로 전환되지 않아 낮은 신뢰 구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교 없음 51%(18-29세 72%, 30대 64%) 조건에서, 신뢰 회복은 교회 내부 결속 강화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한국리서치 2025). 공론장에서 확인 가능한 책임 형식이 핵심 변수로 부상한다.

따라서 대안은 프로그램의 '추가'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형식 전환'이어야 한다.

첫째, 공익-신념 충돌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신념을 관철한다'가 아니라, 공공선 언어로 번역 가능한 방식으로 신념을 표현하고, 상호성·절차·권리 존중을 공동 규범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돌봄을 신뢰 자산으로 전환하는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돌봄의 총량이 아니라, 돌봄이 공적 신뢰로 축적되는 과정(투명성, 책임성, 외부 검증, 피드백)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경험의 장을 신뢰 회복의 우선 무대로 설정해야 한다. 신뢰 회복의 핵심은 일상적 접촉면이며, 교회의 공적 표현과 행동 규범은 '현장 경험'에서 검증되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청년세대의 공공의제(윤리-환경-재난) 확장을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 추가가 아니라 공공성 의제의 우선순위 재배열이며, 향후 공적 설득력(plausibility)의 핵심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4.4 신뢰도 하락의 구조적 고착과 공공성 회복의 조건

앞서 점검된 흐름을 전제로 할 때, 한국교회 신뢰 문제는 '낮아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낮은 상태가 유지·고착되고 있는가의 문제로 이동한다. 본 모듈은 이미 확인된 신뢰도 결과 위에서, 그 고착 조건과 전환 실패가 초래하는 공적 위험을 통계 근거와 함께 정리한다.

4.4.1. 추이 평가

기윤실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는 2020년 이후 의미 있는 회복 국면을 형성하지 못한 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신뢰한다'는 긍정 응답은 2020년 20%대 초반에서 2023년에도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2026년 조사에서도 구조적 반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동시에 '공익보다 신념을 앞세운다'는 인식은 시계열 전반에서 60% 내외로 유지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평가는 2023년 이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기윤실 2023/2026). 이는 신뢰 저하가 일시적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공적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는 평가 틀이 고착된 결과임을 의미한다.

4.4.2. 2026년 결과의 구조적 해석

앞서 확인된 2026년 결과는 개별 문항 차원의 평가를 넘어서, 신뢰가 형성·붕괴되는 사회적 조건을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핵심은 부정적 평가의 강도보다, 그 평가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한국교회는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서 긍정 평가가 30% 미만에 머무르고 부정 평가가 과반을 유지한다는 점은, 교회의 사회적 실천이 개별 경험을 넘어 집합적 기억과 공적 이미지 차원에서 판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회가 제공하는 실제 활동의 유무와 별개로, 사회 다수에게는 교회가 공공 영역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 관련 문항에서 나타난 결과는 신뢰 저하가 정치 이슈에 대한 단순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과 ‘교회의 정치적 발언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평가가 동시에 높게 나타난 것은, 교회의 정치적 표현이 내용 이전에 그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문제는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위치에서 말했는가에 있다.

셋째,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서 연령·이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비판적인 집단일수록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책임, 공공성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는 교회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 대립의 결과라기보다, 현대 사회에서 기대되는 제도적 행위자의 공적 역할에 대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볼 때, 2026년 결과는 교회가 특정 이념 진영과 가깝기 때문에 신뢰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공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사회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뢰 문제를 단기적 메시지 조정이나 정치적 거리 두기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이다. 동시에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제도로서의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특히 전반적 신뢰도 19.0%(문1)와 ‘공익을 우선한다’는 응답 20.9%(문9)는 긍정 평가가 30% 미만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4.4.3. 공공신학적 평가: 후기세속사회에서의 ‘신뢰 형성 메커니즘’ 문제

여기서 다루는 것은, 후기세속사회에서 신뢰가 어떤 경로로 형성·차단되는가 라는 메커니즘 자체이다. 다시 말해 교회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 자본을 축적·소진하는 방식이 어떤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리서치 2025 종교인식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종교 없음이 전체 인구의 과반(약 51%), 20대에서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조건은 종교의 공적 발언이 기본값으로 승인되지 않는 환경을 형성한다. 이 조건에서 사회적 신뢰는 공동체 내부의 신앙적 정체성의 강도나 신앙고백을 보수하려는 도덕적 주장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으며,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평가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앞서 반복 확인된 ‘공익보다 신념’이라는 평가는 신학적 내용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교회가 공적 책임을 축적해 온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평가에 가깝다. 이는 신앙 언어의 번역 실패 이전에, 사회적 신뢰 자산(Social Trust Capital)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발언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불일치 자체가 문제임을 시사한다.

기사연 및 한국리서치 2025 조사에서 확인된 개신교 내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지지와 급진적 수단에 대한 상대적 관용 역시, 이 신뢰 형성 메커니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의 실제 정치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교회를 ‘공적 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배경을 제공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유보되고 있다.

후기세속사회에서는 교회가 신앙과 신념의 공적 정당화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신뢰를 축적하는 실천을 지속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축적의 경로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는지를 성찰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신뢰 문제는 교리나 정치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장과 시민사회에서 확인되는 실천적 책임성과 지속성의 문제로 재정의된다.

4.4.4. 예측과 대안: 제도적 퇴행의 위험과 공공성의 재구조화

현재의 통계 추이가 유지될 경우, 한국교회는 급격한 추가 하락보다는 ‘낮은 수준의 안정적 불신’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기대와 평가의 장에서 점차 제도적 영향력을 상실한 채 주변화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외형상으로는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적 논의에서 교회가 더 이상 중요한 행위자로 불리지 않는 상태가 고착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은 제도적 퇴행이다. 여기서 제도적 퇴행이란 교회가 여전히 조직과 구성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제도로 인식되지 못한 채 사적 결사나 이해집단의 수준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뢰의 상실은 단순한 평판 문제를 넘어, 교회가 공론장과 시민사회에서 차지하던 제도적 위치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낮은 신뢰와 거리 두기는 이러한 퇴행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이는 일시적 세대 갈등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시간 속에서 신뢰를 축적하는 경로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이 경우 교회는 내부 구성원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공동체로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사회 전체와의 관계에서는 점점 외부의 평가와 기대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내부 기준과 언어에 주로 의존하는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대안은 이미지 관리나 단기적 메시지 조정이 아니라, 공공성 회복의 조건을 구조적으로 재설정하는 데 있다. 첫째, 사회적 실천은 봉사 활동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기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입은 입장 표명의 경쟁이 아니라, 공론장의 규범을 존중하는 절제된 참여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교회는 스스로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는 태도를 요구받는다. 셋째, 교회의 공공성은 내부 기준이 아니라 외부 시민의 평가 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신뢰 자산을 다시 축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다.

다만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시민사회의 공적 규범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신앙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공신학의 과제가 발생한다. 공공신학은 교회의 신앙 언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언어로 번역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신앙의 정체성과 공적 책임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한다.

2026년 신뢰도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기대가 이제는 막연한 호의가 아니라 수치와 평가로 조건화된 요구로 제시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후기세속사회에서 종교가 공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퇴행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지를 경고하는 지표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세대 내부의 정치적 분화와 결합하여 장기적 신뢰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는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한 비율이 30.7%로 전체 평균(47.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도’ 인식은 46.7%로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이는 청년층이 교회를 일률적으로 극단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치적 인식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에서 교회를 ‘사회공동의 이익’보다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해한 비율이 19-29세에서 50.4%에 이른다는 점은, 청년층이 교회를 공공기관보다는 신념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 또한 분명함을 보여준다.

외부 비교자료에서도 청년층 내부의 성별 정치 성향 분화가 확인된다. 기사연 2025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극우 성향 비율은 전체적으로 21.8%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남성 32.0%, 20대 여성 23.0%로 성별 간 격차가 관찰된다. 한편 한국리서치 2025 종교인구 조사에서는 18-29세에서 ‘종교 있음’ 비율이 남성 30%, 여성 26%로 나타났고, 같은 연령대의 개신교 비율은 13%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들을 종합하면, 청년층의 정치 성향 분화와 종교 선택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교회의 세대 구성과 공공성 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갈등 조정에 참여하는 기독교 시민사회의 새로운 공공신학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2026 기윤실 조사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단순한 이미지 손상이나 일시적 신뢰 하락 차원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구조적 현상으로 드러냈다. 2026년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공익보다 신념을 앞세운다’는 인식은 과반을 상회하는 비율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평가는 56%에 이르러, 교회를 갈등을 조정하는 공적 중재자라기보다는 갈등의 한 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평판 차원을 넘어, 교회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윤리적 기반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체로 오해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본 보고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한국교회의 공공적 전환을 제안한다. 이 제안들은 제도권 종교들의 세력 약화 국면과는 대조적으로 후기세속사회에서 요청되는 영성의 새로운 공적 역할을 모색하

는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논의된다.

첫째, 교회의 극단적 정치 참여의 방식의 성찰과 공적 형식의 재정립으로의 전환이다. 계엄 이후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교회의 정치참여 방식에 대한 우려 역시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는 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수행한 「2025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개신교인의 극우성향을 진단하다)」가 개신교인의 21.8%를 ‘극우성향’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조사에서도 밝히듯이 우리사회 전반의 극우성향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기독교가 특히 극우화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오히려 기독교의 극우화 성향이 현저히 낮지 않은 현실로 성찰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일부 교회의 정치적 행보가 계엄·탄핵 국면과 거리 집회, 반엘리트적 담론과 결합되면서 전체 교회의 이미지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한 극우 비판으로 환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향후 교회가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통해 공동선을 매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정치 참여는 포기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적 절차, 인권의 보편 원칙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공론장 참여를 통해 재정립되어야 한다. 최근 이단/사이비 종파들의 정치개입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정교분리 논쟁 역시 이러한 성찰의 연장선상에 두어야 한다. 교회는 정파적 동원이나 선동의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을 속의의 장으로 이끌고 최소한의 공동 규범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둘째, 따라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교회의 의견 조율과 대외적 의견 제시를 위해, 일부 유명인사나 지도자 중심에서 기독교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을 중심으로 공론형성의 경로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교회에 대한 불신은 단지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공적 책임 수행의 가시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공공신학적 실천은 선언이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지역사회 현안과 매개되는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돌봄, 청년 주거, 기후 위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지역 의제에 대한 참여가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기억될 때, 교회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주체로 인식될 수 있다. 기윤실과 같은 기독교 시민사회는 교회 내부의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론장에서 의제 토론을 주도하는 건전한 공적 세력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윤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선교적 관점에서 청년 세대와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18-29세에서 종교 없음 응답이 72% (한국리서치2025, 「2025년 종교인식조사」)에 이르는 현실은, 교회가 미래 세대에게 공적 신뢰의 자원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인구 감소가 아니라 선교적 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 청년 세대는 교회의 선언보다 교회의 공적인 실천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다. 따라서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선을 모색하는 공적 공동체로 자리할 때에만 세대 간 신뢰의 회복이 가능하다. 또 4장에서 언급한 대로, 종교적 성향과 정치적 성향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청년층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면, 청년층은 한국교회를 일률적으로 극단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공공기관보다는 신념 공동체로 이해하는 특징을 드러냈다. 외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청년층 내부의 성별 정치 성향 분화까지 고려할 때, 향후 교회로 유입되는 청년 집단의 구성 또한 특정 경향성을 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 선교는 단순한 세대 확장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입되는 청년들에 대한 공공적 책임 교육과 정치적 균형 감각의 형성을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결국 2026년 조사 결과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한국교회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집단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공론장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 극단적 정치 동원과 정파적 동일시를 넘어, 공동선을 매개하는 윤리적 토대를 공론장에서 생산, 유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사회적 신뢰자본을 다시 축적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경적 상상력이 우리사회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적 자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후기세속사회의 공론장에서 공적 역할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조사의 범위와 해석의 한계

기윤실이 주최하고 지엔컴이 수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패널(CAWI)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산출된 표본오차 $\pm 3.1\%$ 는 이론적 수치임을 밝힌다. 패널 기반 조사 특성상 응답자의 자기선택 효과와 정치적 현안의 시기적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조사 설계와 수행 방식에 기인한 구조적 한계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극우 인식’ 문항은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평가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실제 정치 성향을 직접 측정한 결과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관찰된 인식 구조의 경향을 해석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절대적 일반화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고칠}

참고자료

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5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개신교인의 극우성향을 진단하다』.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5. 발표·설문조사 결과 발표 자료.
2. 한국리서치.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등. 정기조사 보고서』. 한국리서치, 2025. PDF report.

MEMO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신뢰도 감소 현상에 관한 공공신학적 고찰: 탈종교화와 공공성 상실의 관점에서

김상덕

본 여론조사 검토위원장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조교수

I.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의 의미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지형은, 공동대표 정병오, 신동식, 이상민 / 이하 기윤실)은 1987년 설립된 이후로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기독교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번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이하 교회 신뢰도 조사)는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첫 해 3년은 매년 실행되었고 2013년부터는 3년을 주기로 진행해 온 통계조사 및 연구 사업이다. 올해로 8차에 접어든 이번 조사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한국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증적으로 묻고 분석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층위로 분열된 한국교회가 서로의 다양한 배경과 입장을 이해하기보다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획일화된 관점에서 교회와 사회를 해석하려는 협소한 시각을 확장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이 일반 시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엔 연령, 성별, 지역 및 종교별 분포를 통계청 인구 센서스 결과에 맞추어 모집단을 설정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경향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비록 그 결과가 우리 개인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말이다. 따라서 이 조사의 의미는 한국 시민의 일반적인 인식과 한국 사회 속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라 하겠다.

둘째,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다소 비관적인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유독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친밀도, 신뢰도)는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세속화를 넘어 탈종교화되는 커다란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예를 들어, 도시화, 개인화, 디지털화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탈종교화 현상과 사회 변화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하락세는 타종교에 비해 그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이는 사회 전반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교회만의 돌출된 현상, 즉 우리 안의 무언가 진지한 성찰과 개혁의 필요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조사와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에 맞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런 조사가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만을 강조하게 만들어 전도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주장은 심정적으로는 공감의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생각이다.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여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말하자, 왜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고 되묻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의사는 그럴 수 없다. 환자가 질병의 원인을 감추고, 스스로 건강하다 속이며, 굶아가기를 선택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현재 아프다. 무엇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이나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의 오늘을 돌아보고 나아가 변화의 자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는 부정적 이미지와 인식을 부각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 필요와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전략적인 선교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리라 기대한다.

II. 조사 개요 및 요약

1. 조사 개요 및 특성

이번 조사의 목적은 일반 국민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도를 묻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는 기윤실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총 6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을 주어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표본 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수준이다. 응답자 특성에서 언급할 점은 성별은 반반, 연령은 60대 이상이 33.7%로 가장 많고 50대가 19.8%로 그 뒤를 잇는다. 이 둘을 합치면 53.5%로 절반을 넘는다. 즉, 50대 이상의 인구가 20~40대 인구의 합보다 많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4년부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속도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 조사의 전체 의견에서 50대 이상의 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20대 응답자는 13.7%, 30대는 15.3%에 지나지 않으며, 소위 2030세대라는 청년층의 비율은 29% 정도라는 점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도 주목할만 하다. 전체 응답자 중 보수는 22.1%, 중도 42.4%, 진보 24.9%, 잘모르겠음 10.6%로 나타나, 중도층과 무당층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종교 비율을 살펴보면, 기독교(개신교) 17.1%, 불교 14.0%, 천주교(가톨릭) 7.9%, 기타 1.1% 순이었고, 반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본 일부)

이번 조사는 주로 한국인의 일반적인 인식을 묻고 답하는 인식 조사이다. 그리고 과거의 조사에서 물어보았던 질문들을 활용한 추적 조사 형식을 갖는다. 따라서 설문 시기의 상황이나 배경의 영향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서 언급해야 하는 점은 2024년 12.3 계엄 이후의 정치적

혼란기라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청산이라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극우 기독교 세력의 반탄핵집회와 이를 주도한 개신교 인사들(전광훈, 손현보, 김장환, 이영훈 등)이 주요 언론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먼저 전광훈과 손현보 목사는 각각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에 앞장선 바 있다. 이런 배경은 이번 설문 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염두하고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조사 결과 요약

본격적인 논의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 조사의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설문 결과의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다음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9가지 내용이다.

#1.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지속적 하락세와 고착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0%에 불과한 반면, 불신 응답은 75.4%에 달해 국민 5명 중 4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락한 신뢰도가 반등하지 못한 채 구조적 저점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하락 추세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가 가는 종교로 불교(34.0%), 가톨릭(21.5%), 기독교(16.7%) 순으로 나타나, 기독교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교회의 신뢰 위기는 일시적인 이미지 실추를 넘어 장기적·구조적 과제로 전환되었으며, 내부 구성원 결속을 넘어 비기독교인 및 무종교층을 타깃으로 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 전략이 요구된다.

#2.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도는 교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

목회자 신뢰도는 21.1%, 성도 신뢰도는 18.7%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무종교인의 신뢰도는 10%를 하회하는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목회자와 성도의 언행이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게 신뢰할 만한 규범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신앙이 교회 내 종교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에서의 윤리적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기독교의 사회 기여 인식은 약화 상태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 가톨릭(31.1%)이 꼽힌 반면, 기독교는 17.6%에 머물렀다. 한국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없음/모름’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17.2%)는 가톨릭(25.6%)에 이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종교로 꼽혔다. 이런 결과는 탈종교화 시대에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이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한국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인 복지, 교육, 구제 등의 사회봉사 활동이 그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과 고민이 필요하다.

#4.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화자찬

한국교회 신뢰도가 19.0%였지만 기독교인만은 높은 신뢰도(67.8%)를 보였으며 타 종교인은 10%대, 무종교인은 6.8%만이 신뢰하고 있었다.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무종교인은 20.4%에 불과했고, 기독교인들은 71.3%가 긍정해 인식의 괴리가 뚜렷했다.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독교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기 성찰력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칫 기독교인이 자기 세계에만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알려준다.

#5.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 공공성·윤리·태도의 혁신

한국교회가 현재 취약계층 및 정신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1, 2순위로 응답했고 앞으로 기여해야 할 영역으로는 '사회 윤리적 가치 형성'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회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교회 이익 우선' 24.0%, '타 종교에 대한 태도' 22.1%, '불투명한 재정' 18.9%가 상위에 올랐다. 기독교인은 내부 윤리(교회 지도자의 삶, 교인들의 삶), 비기독교인은 이기주의와(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움) 배타성을 더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는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적으로 도덕성을 제고하고 외부적으로는 윤리와 공공성 회복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목회자는 '공공성 대신 교회 이익'과 '정치 참여' & 기독교인은 '배타적 태도'

목회자 개선점으로는 '교회 이익 우선 태도' 24.6%, '정치적 발언·집회 참여' 21.6%가 상위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참여에 대한 비판 인식은 2023년 대비 8.8%p 상승했다. 기독교인을 향한 개선점으로는 '나만 옳다는 자세'가 29.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오늘날 한국인이 가지는 도덕적 성향을 보여주는데, 위선이나 독선적 태도를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인이라면 누구보다 겸손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기대감이 자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 및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확실한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도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는 돌봄과 배려, 포용과 존중의 언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공적인 공간에서의 세심한 언어 선택이 필요한데,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은 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하고 청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7. 목회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반대'

목회자의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88.5%였으며, 기독교인 내부에서도 83.0%가 반대했다. 이는 정치 참여가 신뢰 회복이 아니라 신뢰 훼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목회자의 정치 참여는 종교의 정치 세력화가 신뢰 회복은커녕 신뢰 훼손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8. 한국교회는 절반 가까이 '극우'로 인식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7.1%에 달해, 중도(30.1%)나 극좌(8.3%) 인식을 크게 상회했다. 비기독교인은 절반 정도가 한국교회를 '극우'라고 인식했는데, 기독교인 가운데도 36.8%나 한국교회를 '극우'라고 응답했다.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특정 정치 성향으로 강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한국교회는 극우적이라는 인식이 단순히 외부의 이미지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극우로 경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극우' 평가의 근거는 '집회' 및 '계엄 옹호'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 집단은 '집회 및 시위'를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교회를 '극우'로 평가한 이유로는 '12.3 계엄 옹호' 64.5%, '배타적 혐오 태도' 58.0%가 가장 높았다. 즉, 공개적 집회와 발언이 극단적 이미지 형성의 핵심 경로로 작용했다. 공개적인 집단행동과 정치적 발언이 교회가 극우화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이번 조사의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후의 글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속적인 사회적 신뢰도 하락과 고착화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그 대응 방안 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III. 이번 조사의 해석과 성찰: 탈종교화와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1.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신뢰도 감소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국교회의 신뢰 위기는 단순한 이미지 훼손이나 일시적 사회적 논란의 결과라기보다, 장기적·구조적 하락 국면에 진입한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종교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0%에 불과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5명 중 4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특정 사건에 대한 반감 수준을 넘어 제도 종교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낮은 신뢰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락한 뒤 반등하지 못한 채, 구조적 저점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시기 일부 교회의 방역 비협조, 집단감염 사례, 그리고 사회적 책임 논란은 신뢰 하락의 촉매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일시적 충격 이후 회복 국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사건 중심적 평가를 넘어, 장기적 구조 문제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요 종교 간 비교에서도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신뢰가 가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불교(34.0%), 가톨릭(21.5%), 기독교(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는 주요 종교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단순히 종교 일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신뢰 위기는 ‘종교 일반의 위기’라기보다 ‘한국 개신교의 특수한 위기’로 규정될 여지가 크다.

신뢰 하락은 교회 지도자와 일반 신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21.1%, 성도에 대한 신뢰도는 18.7%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무종교인의 경우 신뢰도가 10%를 하회하는 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교회 지도층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일상적 삶의 방식 역시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기준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신뢰 위기는 개인적 일탈이나 일부 집단의 과격성에 국한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반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식의 괴리이다. 전체 국민의 교회 신뢰도가 19.0%에 머무는 반면, 기독교인 내부에서는 67.8%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무종교인의 신뢰도는 6.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교회 내부와 외부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 간극을 드러낸다. 내부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외부 사회는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 이해와 타자 인식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며, 자기 성찰의 부족이 구조적 신뢰 위기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사회봉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 가톨릭(31.1%)이 지목된 반면, 기독교는 17.6%에 그쳤다. 또한 ‘한국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없음/모름’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는 17.2%로 가톨릭(25.6%)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는 교회가 실제로 다양한 복지·교육·구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는 그 공공성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한국교회의 신뢰 위기가 단순한 평판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종교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특히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 종교가 더 이상 자동적 권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는 선언이나 교리적 정당화로 확보될 수 없다. 오히려 투명성, 윤리성, 공공성, 그리고 타자에 대한 개방성이 종교의 사회적 정당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신뢰도 감소 현상은 단순한 외부 공격이나 일시적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근대 이후 형성된 교회의 권위 구조와 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전환의 계기이기도 하다. 신뢰의 회복은 교회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기독교인과 무종교인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를 향한 공공적 책임성의 재구성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석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크게 장기적 관점, 한국적 맥락, 그리고 최근 한국교회와 정치 상황과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장기적 관점이란 탈종교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교회가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세속화 및 탈종교화 현상이란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한국적 맥락이란 한국교회가 한국의 역사적 상황 안에서 어떤 입장과 실천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같은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도 기독교가 타종교(특히, 불교와 천주교)와의 차이를 보이는 지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마지막 관점은 설문조사에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상황으로서, 주로 최근 한국 사회의 극우화 현상 속에서 나타난 심각한 사회 갈등과 한국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신뢰도 감소 및 고착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근대 이후의 종교의 자리는 어디인가? 탈종교화 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탈종교화 시대의 핵심 특징은 종교 참여율의 감소라는 양적 지표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보다 주목할 점은 (1) 제도 종교에 대한 불신과 (2) 대안종교로서 영성 또는 ‘종교적인 것’의 부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 사회를 단지 종교의 소멸이 아니라 종교적 감수성과 실천 방식의 재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제도 종교의 권위 약화와 신뢰의 구조적 위기

근대 이후 종교의 공적 권위는 합리화, 기능적 분화, 다원화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근대 사회의 다원화가 종교의 “타당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를 해체함으로써 종교의 권위와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하였다. 브라이언 윌슨(Bryan Wilson) 또한 산업화와 합리화의 진전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축소시키고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밀어내었다고 보았다. 이런 견해를 가리켜 ‘세속화 이론’(secularization theory)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 세속화 이론은 오늘날 다양한 ‘종교의 귀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호세 카사노바(José Casanova)는 종교가 근대 이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와 공론장에 재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역시 그의 후기 저작에서 현대 사회를 “포스트-세속(post-secular)” 사회로 규정하며, 세속 이성과 종교적 전통 간의 상호 번역의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¹⁾

이러한 논의는 종교의 권위가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종교가 끊임없이 정당성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가 지적하듯이, 현대는 “믿음이 하나의 선택지(option)가 된 시대”이다.²⁾ 테일러는 세속주의가 단순히 종교의 수적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조건 자체의 변화임을 강조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세속주의가 여러 측면에서 신앙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오로지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자 크레이크 칼훈(Craig Calhoun)은 세속주의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변화들, 즉 더 깊은 자아와 주관적 주체성 개념,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 질서와 함께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더욱이 신앙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³⁾ 이때 종교는 공적 비판과 윤리적 검증의 대상이 되며, 종교 제도는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지속적으로 요청받는다. 제도 종교에 대한 불신은 이러한 근대적 조건 속에서 구조화된다.

2) 종교의 사유화와 개인화: 영성의 부상

제도 종교의 권위 약화는 종교적 욕망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 추구, 초월 경험, 치유와 통합에 대한 욕망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이 지점에서 ‘영성(spirituality)’은 제도 종교와 구별되는 대안 종교의 영역으로 부상한다. 힐라스(P. Heelas)와 우드헤드(L. Woodhead)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전통적인 종교가 약화되는 반면, 개인화된 영성과 삶으로서 종교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 이런 현상은 종교적 소속감은 점차 약화되지만, 개인적 신념이나 영적인 실천은 지속된다고 주장인데, 소위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종교의 감소, 특히 교인수나 교세와 같은 양적 감소는 오늘날 탈종교화 현상 가운데도 지속되는 종교적 현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핵심이다. 현대 영성은 교리적 정합성이나 제도적 소속을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험 중심적이며, 선택 가능하고, 유연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서구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명상, 요가, 순례, 치유 프로그램 등의 높은 관심과 인기가 이를 증명한다. 이런 경향은 전통 종교의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조직적 통제를 최소화한다. 그러므로 탈종교화는 비종교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교적 감수성이 제도 종교 밖에서 재배치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종교는 싫지만, 종교적인 것은 원해요!

이처럼 제도 종교에 대한 불신과 영성(종교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⁵⁾ 오히려 두 현상은 동일한 구조적 조건에서 발생한다. 첫째, 권위의 해체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지만, 근원적 질

1) 종교의 세속화 및 탈세속화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New York: Doubleday, 1967); Bryan R. Wilson, *Religion in Secular Society* (London: C.A. Watts, 1966); Jose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Jurgen Habermas, *An Awareness of What Is Missing* (Cambridge: Polity, 2010).

2)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3.

3) Craig Calhoun, “Book review: a secular age: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49 (2008), 455-461; 456.

4) Paul Heelas and Linda Woodhead, *The Spiritual Revolution: Why Religion Is Giving Way to Spirituality* (Oxford, UK: Blackwell, 2005).

5) 이상철, 『종교적인 것의 귀환』 (서울: 울력, 2025)

문과 의미의 추구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근대 다원주의는 종교적 세계관의 독점성의 약화를 가져왔을 수 있지만, 인간의 초월에 대한 욕망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했다. 둘째,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은 사적 체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 탈제도화된 종교성은 교리보다 경험을, 권위보다 감각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 영성이 갖는 주관성과 체험 중심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종교는 정치적 공간에서 재등원될 수 있다. 카사노바가 지적했듯이, 종교의 공적 재등장은 반드시 민주적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연구들은 종교적 상징과 감정이 정치적 동원 자원으로 재구성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이는 영성이 탈정치적 영역에서 확산되는 현상과 병행하여, 종교적 언어가 정치적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재등장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한다. 그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집단적으로는 종교가 극우정치의 동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결국 탈종교화 시대는 비종교 또는 무종교 사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제도 종교의 권위가 약화된 사회를 의미하며,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과 ‘종교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를 말한다. 제도 종교에 대한 불신은 종교적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 종교적 실천의 탈제도화와 개인화를 촉진한다. 이 병행적 구조는 근대 이후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서 종교가 재배치되는 방식이며, 종교의 기능이 통합적 세계관 제공에서 의미 탐색과 윤리적 성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영성을 단순히 사적 감성으로 축소하거나, 제도 종교를 무조건 방어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영성과 종교적인 것의 귀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피는 동시에, 제도 종교에 대한 실망과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 두 방향의 대응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이번 설문 of 중요한 척도인 ‘친밀도’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탈종교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종교의 자기 재구성을 요청하는 구조적 전환의 징후로 이해되어야 한다.

3.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 개신교만의 위기인가? 불교 천주교와의 비교

탈종교화 현상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근대 이후 모든 제도 종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종의 시대적 징후이다. 여기에는 종교 인구의 감소, 정기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의 참여율의 하락, 청년층의 소속감의 약화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개신교 외에도 불교, 천주교 모두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나마 좀 더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지는 탈종교화란 특정 종파나 교단의 실패라기보다 근대 사회의 다원화와 개인화가 낳은 보편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신뢰도 조사 결과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탈종교화가 모든 종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개신교의 ‘신뢰도’와 ‘친밀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종교 전반의 위기’로 환원할 수 없는, 한국교회 특유의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1) 종교별 친근감 정도

먼저, 친근감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친근감이란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정서적 거리감을 나타낸다. 종교인의 경우, 가깝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친근감이라고 한다면, 비종교인의 경우, 평소 해당 종교에 대한 호기심, 친숙함, 또는 잠재적 종교의 선택에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 정도

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설문조사의 경우, 친근감은 어떤 도덕적 평가나 이성적인 평가보다 더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이미지에 가깝다. 이런 이미지는 마치 기업이나 국가의 브랜드와 같아서 한순간에 형성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와 같다. 어찌 보면 가장 즉각적인 평가이면서도 이를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친근감 있게 인식되는 종교는 '불교'로, 전체 응답자의 34.0%가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가톨릭' 21.5%, '기독교' 16.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종교별 친근감의 기본적인 순위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전 조사에서 공동 2위였던 기독교와 천주교(가톨릭) 중 기독교가 3위로 내려오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별히 불교의 친근감은 전년 대비 10%p 이상 상승해 종교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림 1]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Base=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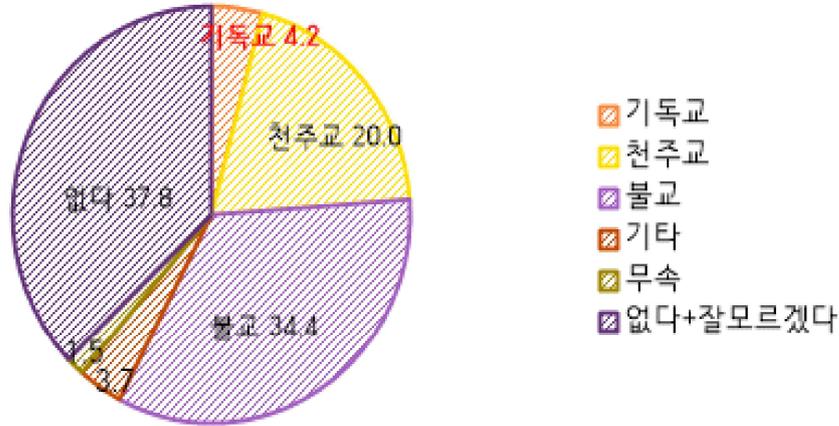
세 종교에 대한 친근감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불교는 2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친근감이 높게 나타난 종교로 조사되었다. 특히 30대는 44.4%, 40대에겐 40.0%로 높은 친밀도를 보였다. 친근감을 느끼는 종교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20-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30% 가까운 수치로 불교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사례수(명)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속	없다+잘모르겠다
19-29세 이하	(137)	16.8	10.2	36.5	4.4	29.2
30대	(153)	12.4	10.5	44.4	0.7	29.8
40대	(175)	12.0	17.1	40.0	2.3	28.5
50대	(198)	13.1	27.3	35.4	0.0	21.2
60대 이상	(337)	23.1	30.0	24.3	0.0	21.4

[표 1]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연령별, *원불교/유교/기타 생략)

한편, 친근한 종교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종교 전반에 대한 친근감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추세와는 달리, 기독교에 대한 친근감은 오히려 2.9%p 하락해, 전체 흐름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종교인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경향으로 나타났다.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종교인의 응답률인데, '불교' 34.4%와 '가톨릭' 20.0%에 비해 '기독교'는 4.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잠재적 전도의 대상인 무종교인에게 기독교에 대한 친근감이 다른 두 종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향후 한국교회의 전도 및 선교 전략 수립에 큰 고민거리를 제공한다.



[그림 2]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무종교인, N=5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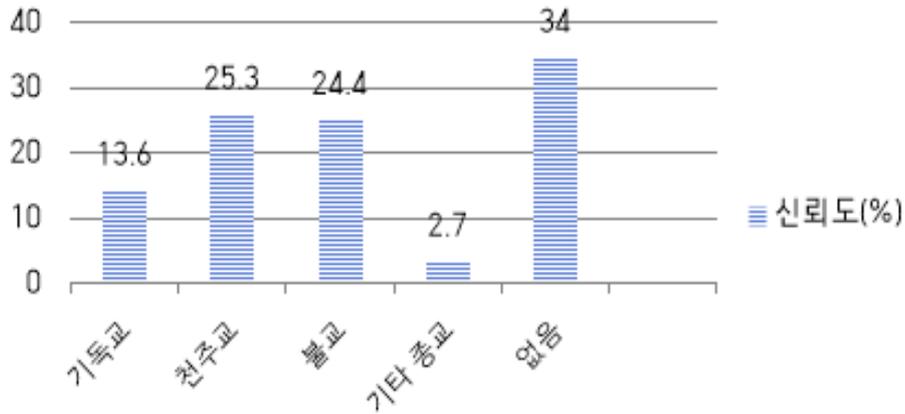
위 결과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신뢰 이전에 정서적 친근감 측면에서도 그리 매력적인 종교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기독교의 공적 이미지가 일반적인 기대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무종교인 집단에서의 기독교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하여 큰 차이로 뒤쳐진다는 점은 우리에게 무겁고도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2) 종교별 신뢰도 정도

다음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살펴보자. 신뢰도는 앞서 살펴본 친근감과 달리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 포함된 평가이다. 여기서 신뢰도는 각 종파별 교리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교회의 사회적 실천을 포함한 평가에 가깝다.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믿음과 실천이 다르다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종교의 메시지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과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응답자들은 각기 다른 가치관(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가지고 점수를 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도 조사는 공공의장에서 기독교의 윤리적 실천에 대한 적나라한 성적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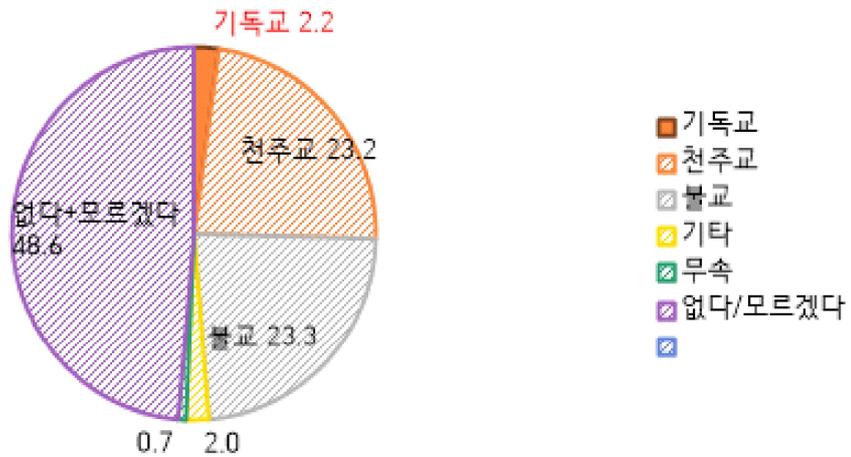
응답자에게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물은 결과, '천주교(가톨릭)'가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 24.4%, '기독교' 13.6%, '기타 종교' 2.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없음/모름/무응답'은 34.0%로, 종교 전반에 대해 신뢰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이 3명 중 1명 수준에 달했다.

6)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각 자기 종교에게 높은 친근감을 표시했다. 기독교는 82.5%, 천주교는 88.6%, 불교는 89.3% 친근감을 나타냈다.



[그림 3] 가장 신뢰하는 종교 - 종교별 (Base=전체, N=1,000, %)

이 가운데 무종교인의 응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중에서 ‘신뢰하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아, 종교 일반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23.5%, 23.0%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고작 2.2% 밖에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독교는 무종교인과 타종교로부터 거의 신뢰를 못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4] 종교별 사회적 신뢰도 (무종교 응답자, N=5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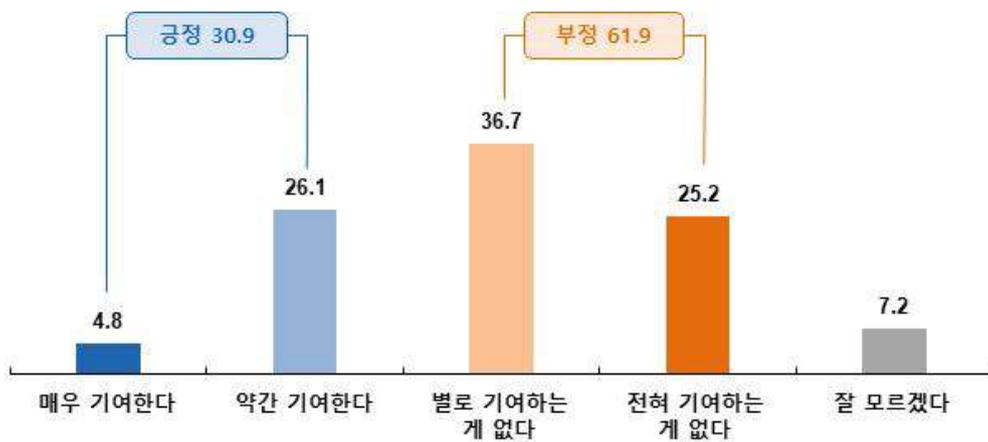
지난 2023년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2020-2023)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후의 조사였다. 당시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었는데, ‘없다/모르겠다’ 등의 부정적 평가가 42.6%까지 올랐었고, 주류종교인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두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는 국면을 겪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그림 5]에서는 천주교가 21.3%에서 25.3%로, 불교가 15.7%에서 24.4%로 올라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독교는 16.5%에서 13.6%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이는 2009년부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첫 조사와 비교할 때,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은 26.1%에서 13.6%로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 가장 신뢰하는 종교_시계열 (Base=전체, N=1000, %)

이런 암울한 추세는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한국교회가 보여온 모습이 우리 사회 및 공론장에서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발적인 사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또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한국교회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변화, 구조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단기적 관점에서도 해석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강조한 것은 다른 아닌 공공성의 회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교회가 공공성(공동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런 평가는 여러 설문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긍정은 30.9%에 그친 반면, 부정은 61.9%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그림 6]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Base=전체, N=1000, %)

또 다른 질문에서는 한국교회의 공적 이미지를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사회의 공동 이익과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3%가 한국교회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추구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9%에 그쳤다. 흥미롭게도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과도 유사하다.



[그림 7] 한국교회 이미지(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Base=전체, N=1000, %)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뢰도는 공익(공공성)의 추구가 그만큼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보여주고, 반면 한국교회가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사익)을 더 추구할 것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뼈아픈 지점이다. 문제는 한국교회 내에서 이런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종종 우리는 공공의장에서 신앙과 공공성 사이에서 가치가 충돌할 때(혹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많은 경우 여러 신학적 해석과 실천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처럼 국민의 건강, 안전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이 깊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우리의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엘렌 오토 마샬(Ellen Ott Marshall)이 주장하듯이, 광장에 선 공적 신앙의 모습은 사회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환원하여 단순화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숙의하는 성찰적 자세가 요구된다.⁷⁾

3) 왜곡된 광장의 기독교: 공공성에 우선하는 종교적 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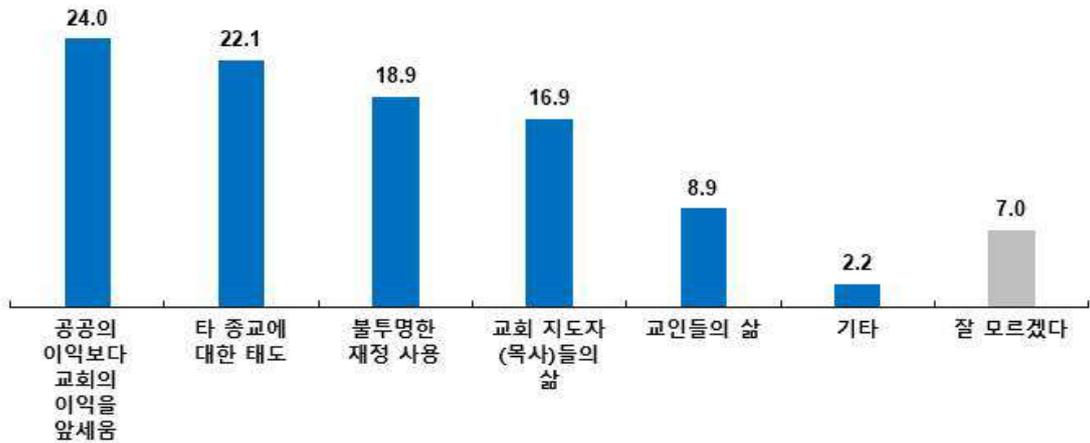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다수의 인식은 공공신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같은 문항에 대한 기독교인 응답자 중 71.3%가 공익과 신앙 사이에서 ‘종교적 신념을 추구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보다 ‘종교적 신념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2.7%p 상승해, 한국교회에 대한 배타적 이미지가 소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묻기 위한 질문이었으나, 일부는 한국교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택했을 수 있고, 일부는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성찰적인 입장에서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동기가 어떠한지 간에, 기독교인이 보는 한국교회의 입장은 공공의 이익보다 종교적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혹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질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가치 판단의 척도를 묻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선행 조건과 단서인 ‘공공의 이익’(공공성)보다 우선하느냐를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7)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엘렌 오토 마샬, 『광장에 선 그리스도인』, 대장간 편집실 옮김 (논산: 대장간, 2010); 김상덕,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공공신학 - 공감과 현대의 공동체를 위한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62 (2025), 263-292.

이런 점에서, 같은 문항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의 응답은 흥미롭다. 불교 응답자의 57.9%, 천주교 응답자의 59.5%가 한국교회가 공익보다 '종교적 신념을 추구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⁸⁾ 여기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10% 정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런 응답률에는 타종교인이 보기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무시하면 안될 것이라는 가치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무릇 종교라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양이자 역할이라는 가치 판단 말이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더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응답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타 종교에 대한 태도' 22.1%, '불투명한 재정 사용' 18.9%, '교회 지도자(목사)들의 삶' 16.9%, '교인들의 삶' 8.9% 순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위 두 가지 응답은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종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8]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Base=전체, N=1000, %)

집단별로 보면, 기독교인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교인들의 삶'을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인식한 반면, 기독교 외 타종교인은 '타 종교에 대한 태도'를 가장 많이 지적해 한국교회의 배타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종교인은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점을 가장 큰 개선 과제로 꼽아, 교회의 이기적 이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에 한국교회 신뢰 저하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4) 광장 속 기독교: 언론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은?

다음으로 살펴볼 항목은 언론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언론에 나오는 기독교는 내가 아는 기독교와 너무 달라!"라던가 또는 "세속언론은 기독교를 고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다" 등의 불만 섞인 하소연을 하곤 한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언론/미디어라는 공론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개인적 경험에 따른 교회의 이미지와 언론과 같은 미디어 속 종교의 모습은 그 재현과 매개의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⁹⁾ 이런 인식의 차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교회가 공론장에서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또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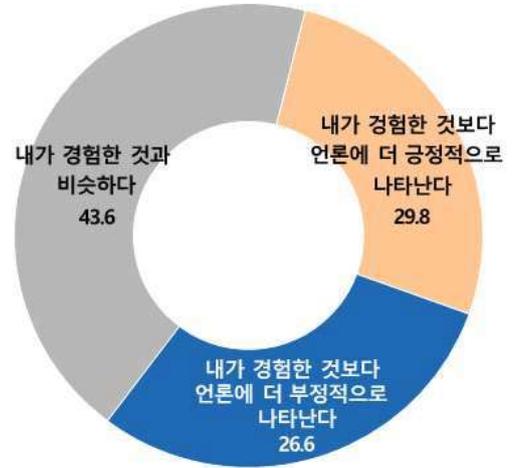
8) 한국교회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불교 24.3%, 천주교 22.8%로 비슷한 수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9)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박진규,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 (서울: 컬처북, 2023).

설문에서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언론 보도와 개인 경험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내가 경험한 것보다 언론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응답이 29.8%, '내가 경험한 것보다 언론에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응답은 26.6%였다.

기독교인 응답자의 경우, '언론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평가가 56.7%로 절반을 넘겨, 언론 보도가 실제보다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타종교인과 무종교인 집단에서는 '언론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부정적이다'는 응답보다 '언론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인 집단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그림 9] 한국교회 이미지 (언론 vs 개인)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언론 탓으로만 하는 기독교인의 인식과 실제로 사회 일반이 체감하는 경험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있음을 이번 결과가 보였다. 이는 기독교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언론 대응만큼 실제 삶과 현장에서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5) 정치와 종교, 그리고 한국교회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한국교회의 극우정치화, 또는 극우정치에 동원된 종교에 대하여 생각해보려고 한다. 앞서 나는 탈종교화 현상이 가져온 변화를 개인화된 형태의 영성(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과 집단화된 형태로서 종교가 (극우)정치에 동원되는 현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다양해지고 세속화됨에 따른 결과로서, 전통적인 권위로서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경험이 더 우선되는 현상이다. 제도 종교의 약화는 탈종교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종교적인 욕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대안적 형태의 종교가 영성, 종교적인 것의 형태로 재구성되고 재배치되는 것도 언급하였다.

그렇다고 이 모든 현상의 유일한 대안이 제도 종교의 무용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다소 성급하고 곤란하다. 대안적 영성과 유연한 형태의 비제도권 교회/신앙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제도 종교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오히려 (그리고 결국) 제도 종교와 비제도권 종교는 둘 다 필요하며, 필연적으로 혼종적인 형태로 적응해 갈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오늘날만의 현상이라기보다 오랜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종교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교회는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교회와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교회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 두 형태가 섞인 혼종적 형태의 교회로 변화한 것처럼 말이다.¹⁰⁾

10) 김상덕, "디지털 공간과 온라인 예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매개로서의 종교(religion as medium)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210 (2025), 367-402.

제도 종교의 중요성은 오랜 전통과 교리적 체계, 그리고 공적 기능에 대한 정돈된 신학과 이를 실천하는 기구 및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적 형태의 영성이나 신앙에서 강조되는 주관적이고 경험 중심의 신앙에선 찾아보기 힘든 고유한 가치이고 자산이다. 제도 종교의 장점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전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절차적 정의와 같은 종교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는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 종교는 고등 종교로서 역사적 맥락과 공공의 유익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사회적 제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이 사적 종교와 구분되는 지점이자, 어떤 종교가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그런데 탈종교화 맥락에서, 종교가 (극우)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사례는 제도 종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왜곡된 형태로 표출하는 이상 현상, '종교의 기능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¹¹⁾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러한 기능 장애 현상을 크게 '나태'와 '강요' 두 방향의 에너지로 설명한다. 나는 볼프의 통찰이 그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한 쪽에서는 교회가 맡은 예언자적 사명을 외면한 채 개인적 욕망과 필요에만 집중하고 만족하는 일들이 탈종교화 시대의 특징이 되었다. 다른 쪽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특정 집단과 정체성에 투영하여, 정치적 선전과 동원의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하고 고착화하게 하는 것은 단연 '강요'의 신앙이다. 복음주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존 스토틀도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길은 '방임'이나 '강요'가 아닌 '설득의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¹²⁾ 한국의 다수 교회가 소위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때, 한국교회는 제도 종교로서 공적 기능을 감당할 만한 전통과 역사, 교리와 체계 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근래의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탈종교화 속 극우정치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신뢰도 하락과 함께, 최근 한국 사회 갈등의 정점에 선 교회의 모습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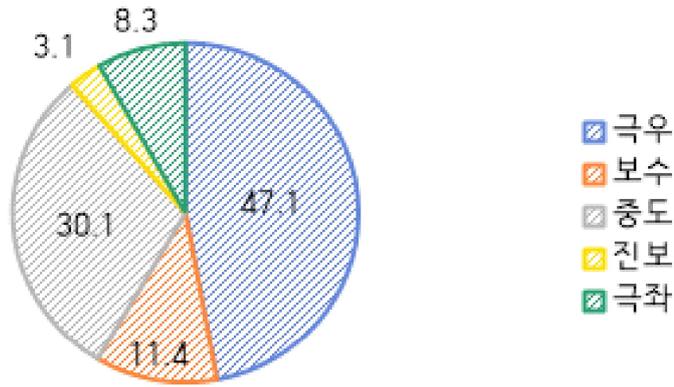
6) 한국교회와 극우정치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들이 있다. 먼저,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은 찬성 6.7%와 반대 88.5%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런 수치는 기독교인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교회나 목사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견해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가 건전한 방식이나 예언자적 형태가 아니라, '극우적'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7.1%에 달해, 중도(30.1%)나 극좌(8.3%)로 인식하는 것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비기독교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한국교회를 '극우'라고 인식했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36.8%가 한국교회를 '극우'라고 응답했다.

11) 미로슬라브 볼프/김명운 옮김,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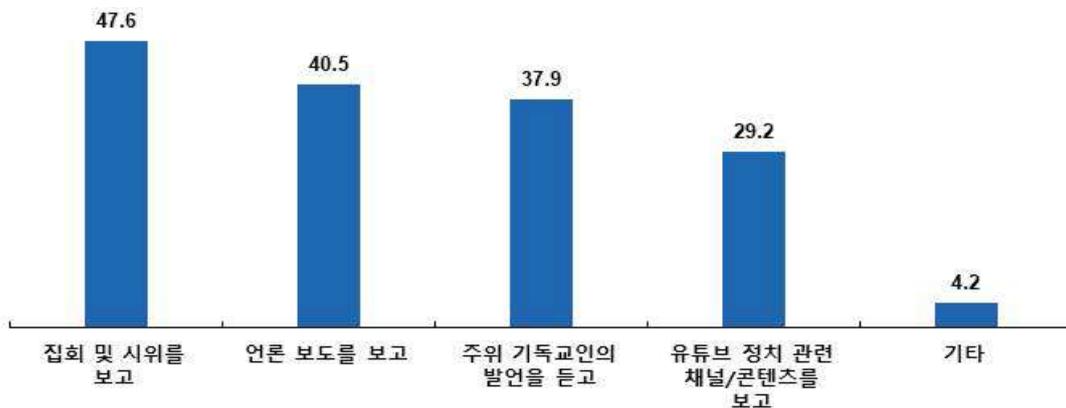
12) 존 스토틀/정옥배 옮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1)



[그림 10] 한국교회의 정치 성향 인식 (전체 N=1,000, %)

그런데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경우, 절대다수인 93.6%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 참여가 극우적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임을 말해준다. 이를 종교가 무조건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거나 무관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항목에서는 개인적인 자리와 신자와의 만남, 공적 예배나 설교의 자리, 집회 참여 등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입장은 종교나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분명하다. 왜 그럴까?

이는 최근 한국 사회가 겪은 심각한 사회 갈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광장에 선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응답자에게 한국교회의 이념적 성향을 판단하게 된 경로를 물어본 질문에서, ‘집회 및 시위를 보고’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고’ 40.5%, ‘주위 기독교인의 발언을 듣고’ 37.9%, ‘유튜브 정치 관련 채널·콘텐츠를 보고’ 29.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접적 장면 노출과 미디어를 통한 경험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 한국교회 이념 성향 평가 배경 (Base=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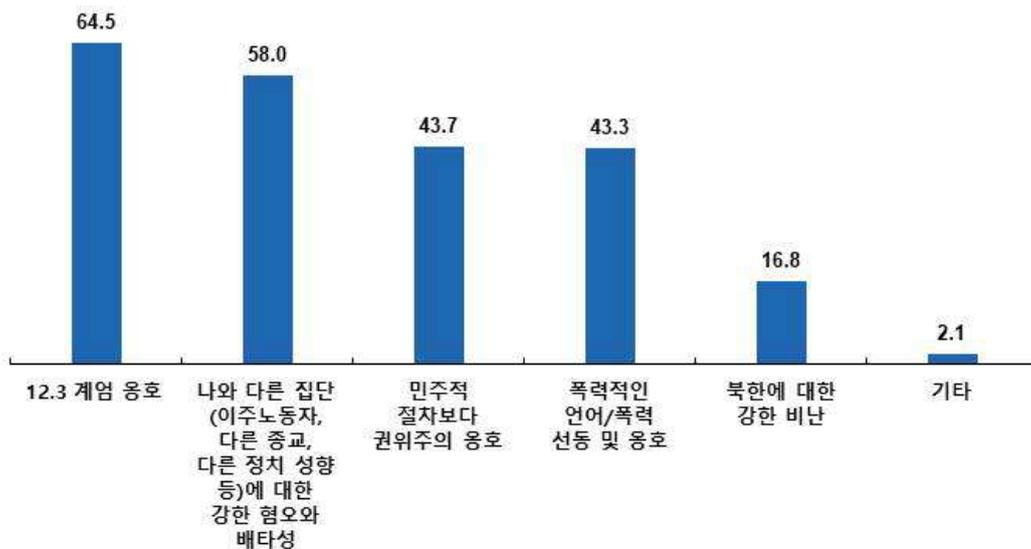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 경우엔 ‘집회 및 시위를 보고’가 66.5%로 가장 높았으며, ‘언론 보도를 보고’가 45.6%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중적으로 노출된 집회가 극우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교회를 ‘중도’로 평가한 응답자 집단에서는 ‘언론 보

도를 보고' 37.9%, '주위 기독교인의 발언을 듣고' 36.9%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를 '극좌' 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 집단에서는 '주위 기독교인의 발언을 듣고'가 51.8%로 가장 높았고, '집회 및 시위를 보고'가 39.8%로 나타나, 개인적 관계를 통한 인식 형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하게 된 주요 배경은 집회와 시위 등 공개적 행동에 대한 노출이었으며, '중도'나 '극좌'로 인식한 경우에는 주변 기독교인의 발언과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7) 2025년 계엄 정국과 한국교회

결국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교회의 어긋난 정치 참여 때문이며, 이는 주로 정치 집회와 시위 등의 공개적 행동을 직접 또는 언론을 통해 본 영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는 한국교회가 극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원인은 다름 아닌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정국에서 한국교회가 이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었다.



[그림 12] 한국교회를 극우라 평가하는 이유 (Base=한국교회를 극우로 평가한 자, N=471, %)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응답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극우로 인식한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한국교회의 비상계엄 관련 태도를 핵심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는 점이다.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부 한국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했을 때가 떠오른다. 두 사례 모두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위기(방역 위기와 민주사회의 위기)의 중심에서 공익보다 어긋난 종교적 신념을 강조한 '부정적 계시'의 사례로 남고 말았다.

다음으로는 '나와 다른 집단(이주노동자, 다른 종교, 다른 정치 성향 등)에 대한 강한 혐오와 배타성'이 58.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태도와 언어가 극단적 이념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민주적 절차보다 권위주의를 옹호한다'는 응답이 43.7%, '폭력적인 언어 사용, 폭

력 선동 및 옹호'가 43.3%로 나타나, 정치적 입장뿐 아니라 표현 방식과 가치 지향 역시 극우 이미지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결론: 뒤틀린 광장의 기독교,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

탈종교화 시대는 종교의 소멸이 아니라 종교의 재배치를 의미한다. 한편에서는 제도 종교에 대한 불신과 개인화된 영성의 확산이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적 상징과 감정이 정치적 공간에서 재등원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이중적 흐름 속에서 최근 한국 사회는 종교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극우 정치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등장하는 왜곡된 종교의 귀환을 경험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는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 왔다. 광장은 더 이상 단순한 시민적 의사 표현의 공간이 아니라, 진영 대결의 상징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태극기 대 촛불”로 상징되는 구도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 정체성의 충돌로 확장되었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공적 담론을 오염시키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광장 정치에서 종교적 상징은 중요한 동원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찬송가와 기도, 십자가와 태극기가 결합된 장면은 종교적 정당성과 정치적 주장을 결합시키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는 종교가 시민사회 내 윤리적 성찰의 자리가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반헌법적 성격의 계엄 시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한국 사회는 다시금 극심한 갈등 국면에 진입하였다. 계엄은 헌정 질서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비상 권력 장치로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수단이다. 이러한 시도가 현실 정치의 선택지로 거론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은 사회적 균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찬반 집회는 대규모로 조직되었고, 정치적 언어는 점점 더 급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언어는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특정 정치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광장 정치의 중심에 섰다.

이 갈등의 한복판에 한국교회 일부가 깊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를 중심으로 한 집회와 발언은 종교 지도자의 정치 참여를 넘어 종교와 특정 정치 진영의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장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종교 지도자의 정치 참여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제도 종교 전체의 이미지로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교회의 공적 발언이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와 긴장 관계에 놓였다는 점이다.

종교는 시민사회의 한 구성 요소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특정 정치 권력과의 밀착, 혹은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과 결합될 경우, 종교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실제로 목회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이러한 행위가 신뢰 회복이 아니라 신뢰 훼손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일탈적 사건이 아니다. 이는 탈종교화 이후 종교적 감정이 정치적 정체성과 결합하는 구조적 경향의 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탈종교화는 제도 종교의 권위를 약화시켰지만, 종교적 상징과 감정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종교적 정체성은 위기의 시대에 더욱 강한 결속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공공선을 향한 윤리적 성찰이 아니라,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때 발생한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타난 종교적 동원은 바로 이러한 왜곡된 종교성의 전형적 사례였다. 광장에서 종교는 화해와 중재의 상징이 아니라, 대립과 적대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제도 종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특정 정치 진영과 동일시되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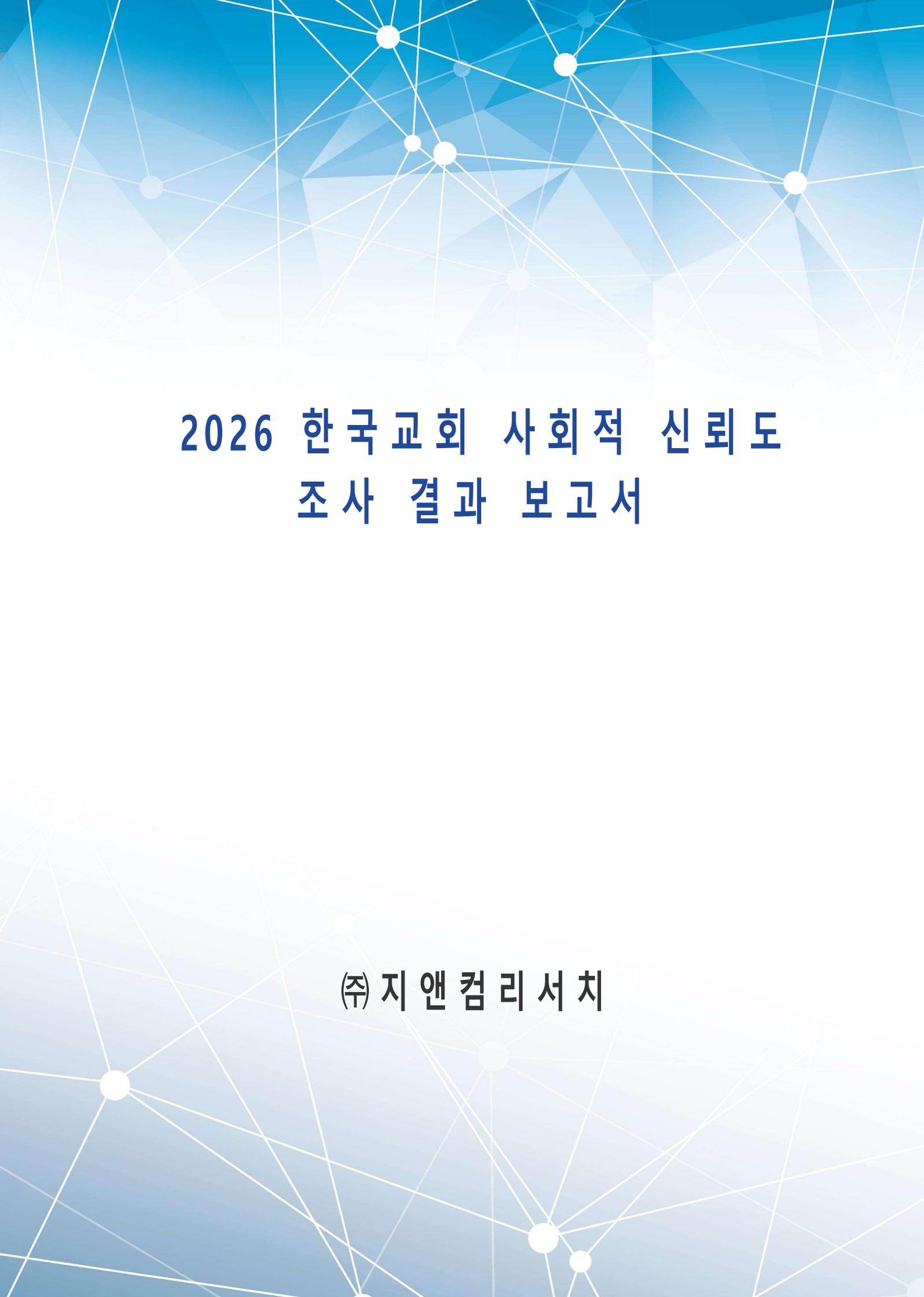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장기적 하락세 속에 있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급락한 신뢰는 반등하지 못한 채 구조적 저점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 정치와의 결합은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켰다. 특히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정치적 이미지가 제도 종교의 정체성을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외부의 오해라기보다, 공개적 집회 참여와 정치적 발언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사회적 인식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 두 가지 역할 모두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 먼저, 제도 종교로서의 공적 신뢰 회복에도 실패했고, 또한 영성적 대안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확장하지 못했다. 대신 일부는 정치적 동원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교회가 마치 특정 진영의 상징으로 위치시키고 말았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런 전환기적 사회 구조와 변화를 차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를 '교회 대 세속'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교회만의 위기 담론으로 단순화하여 환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분명한 공공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더불어 함께 모여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신학적 탐색과 실천, 즉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약자를 위한 윤리, 그리고 타자와의 대화, 공감과 환대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가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기독시민의 자질, 즉 열린 대화와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앞서 희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친근감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신학적 성찰과 윤리적 자기 개혁이 요구된다. 탈종교화 시대,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광장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포용과 화해, 책임과 자기희생의 언어로 우리와 한국 사회 모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거지감(前車之鑒)은 앞 수레의 바퀴가 뒤집힌 것을 보고 뒤 수레가 경계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그간의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잃어버린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갱신의 노력이 더욱 힘을 얻어 마침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MEMO

A background graphic consisting of a network of white lines connecting various sized white and light blue circular nodes. The nodes are scattered across the page, with a higher density in the upper and lower portions. The background has a light blue gradient.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 보고서

(주) 지앤컴리서치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I. 조사 목적	2
II. 조사 차수	2
III. 조사 설계	2
IV. 응답자 특성	3

제2장. 요약 및 결론 4

제3장. 조사 결과

I. 한국교회의 신뢰도	8
1. 전반적 신뢰도	8
2. 속성별 신뢰도	11
1)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1
2)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4
II. 종교별 비교 인식	17
1.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17
2. 가장 신뢰하는 종교	19
3. 종교 관심도	21
4. 종교 중요도	23
III. 종교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종교별 비교 인식	26
1.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26
2.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28

IV. 한국교회 평가	30
1.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30
2.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33
3. 한국교회 이미지(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36
4. 한국교회 및 기독교인 이미지(언론 보도 vs. 개인 경험)	38
5.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한 영역	40
6.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해야 할 영역	43
V. 한국교회의 과제	46
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46
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49
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52
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55
VI. 교회와 정치	58
1.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58
2. 12.3 비상계엄과 탄핵국면	61
1)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한국교회 태도 인식	61
2) 한국교회 전반적 이념 성향 인식	63
3) 한국교회 이념 성향 평가 배경	65
4)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이라 평가하는 이유	67
5) 한국교회를 극좌 성향이라 평가하는 이유	69

첨부. 설문지

제 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지난 2008년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한 이래 8번째로 진행되는 추적 조사 연구로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파악 및 교회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 차수

1차 2008년	2차 2009년	3차 2010년	4차 2013년
5차 2017년	6차 2020년	7차 2023년	8차(본조사) 2026년

- 1~6차까지는 전화조사로 진행했으나 7차 조사부터는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로 변경했음.

3.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방법	●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 총 1,000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 2025년 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근거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로 분석함
조사 기간	● 2026년 1월 5일 ~ 1월 10일 (6일간)
조사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3.

응답자 특성

구 분		사 례 수 (명)	비 율 (%)
전 체		(1,000)	100.0
성 별	남 성	(493)	49.3
	여 성	(507)	50.7
연 령	19~29세 이하	(137)	13.7
	30대	(153)	15.3
	40대	(175)	17.5
	50대	(198)	19.8
	60대 이상	(337)	33.7
지 역	서울	(186)	18.6
	경기/인천	(324)	32.4
	대전/충청	(106)	10.6
	대구/경북	(96)	9.6
	부산/울산/경남	(148)	14.8
	광주/전라	(98)	9.8
	강원/제주	(42)	4.2
직 업	자영업	(65)	6.5
	블루칼라	(144)	14.4
	화이트칼라	(384)	38.4
	가정주부	(168)	16.8
	학생	(51)	5.1
	무직/기타/무응답	(188)	18.8
소득수준	상	(146)	14.6
	중	(416)	41.6
	하	(403)	40.3
	무응답	(35)	3.5
이념성향	보수	(221)	22.1
	중도	(424)	42.4
	진보	(249)	24.9
	잘 모르겠음	(106)	10.6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17.1
	천주교(가톨릭)	(79)	7.9
	불교	(140)	14.0
	기타 종교	(11)	1.1
	무종교	(599)	59.9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31.6
	중요하지 않음	(85)	8.5
	무종교	(599)	59.9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19.0
	신뢰하지 않음	(754)	75.4
	잘 모르겠음	(56)	5.6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47.1
	보수	(114)	11.4
	중도	(301)	30.1
	진보	(31)	3.1
	극좌	(83)	8.3

제 2장 요약 및 결론

1. 한국교회 신뢰도의 장기적 저점 고착화

-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0%에 불과한 반면, 불신 응답은 75.4%에 달해 국민 5명 중 4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락한 신뢰도가 반등하지 못한 채 구조적 저점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하락 추세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주요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가 가는 종교로 불교(34.0%), 가톨릭(21.5%), 기독교(16.7%) 순으로 나타나, 기독교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교회의 신뢰 위기는 일시적인 이미지 실추를 넘어 장기적·구조적 과제로 전환되었으며, 내부 구성원 결속을 넘어 비기독교인 및 무종교층을 타깃으로 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 전략이 요구된다.

2.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도는 교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

- 목회자 신뢰도는 21.1%, 성도 신뢰도는 18.7%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무종교인의 신뢰도는 10%를 하회하는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 이는 목회자와 성도의 언행이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게 신뢰할 만한 규범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신앙이 교회 내 종교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에서의 윤리적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기독교의 사회 기여 인식은 악화 상태

-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 가톨릭(31.1%)이 꼽힌 반면, 기독교는 17.6%에 머물렀다.
- 한국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없음/모름'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독교(17.2%)는 가톨릭(25.6%)에 이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종교로 꼽혔다.

탈종교화 시대에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복지, 교육, 구제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원인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4.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화자찬!

- 한국교회 신뢰도가 19.0%였지만 기독교인만은 높은 신뢰도(67.8%)를 보였으며 타 종교인은 10%대, 무종교인은 6.8%만이 신뢰하고 있었다.
-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무종교인은 20.4%에 불과했고, 기독교인들은 71.3%가 긍정해 인식의 괴리가 뚜렷했다.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독교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기 성찰력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칫 기독교인이 자기 세계에만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알려준다.

5.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 공공성·윤리·태도의 혁신

- 한국교회가 현재 취약계층 및 정신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1,2순위로 응답했고 앞으로 기여해야 할 영역으로는 '사회 윤리적 가치 형성'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교회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교회 이익 우선’ 24.0%, ‘타 종교에 대한 태도’ 22.1%, ‘불투명한 재정’ 18.9%가 상위에 올랐다.
- 기독교인은 내부 윤리(교회 지도자의 삶, 교인들의 삶), 비기독교인은 이기주의와(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움) 배타성을 더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는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적으로 도덕성을 제고하고 외부적으로는 윤리와 공공성 회복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목회자 신뢰 문제: ‘공공성 대신 교회 이익’과 ‘정치 참여’

기독교인 신뢰 문제: 배타적 태도

- 목회자 개선점으로는 ‘교회 이익 우선 태도’ 24.6%, ‘정치적 발언·집회 참여’ 21.6%가 상위로 나타났다.
- 특히 정치적 참여에 대한 비판 인식은 2023년 대비 8.8%p 상승했다.
- 기독교인의 개선점으로는 ‘나만 옳다는 자세’가 29.9%로 가장 높았다.
목회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준수가, 성도에게는 소통과 공감의 자세가 요구된다.

7. 목회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반대’

- 목회자의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88.5%였으며, 기독교인 내부에서도 83.0%가 반대했다.
- 이는 정치 참여가 신뢰 회복이 아니라 신뢰 훼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목회자의 정치 참여는 종교의 정치 세력화가 신뢰 회복은커녕 신뢰 훼손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8. 한국교회는 절반 가까이 ‘극우’로 인식

-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7.1%에 달해, 중도(30.1%)나 극좌(8.3%) 인식을 크게 상회했다.
- 비기독교인은 절반 정도가 한국교회를 ‘극우’라고 인식했는데, 기독교인 가운데도 36.8%나 한국교회를 ‘극우’라고 응답했다.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특정 정치 성향으로 강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한국교회는 극우적이라는 인식이 단순히 외부의 이미지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극우로 경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극우’ 평가의 근거는 ‘집회’ 및 ‘계엄 옹호’

-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 집단은 ‘집회 및 시위’를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한국교회를 ‘극우’로 평가한 이유로는 ‘12.3 계엄 옹호’ 64.5%, ‘배타적 혐오 태도’ 58.0%가 가장 높았다.
- 즉, 공개적 집회와 발언이 극단적 이미지 형성의 핵심 경로로 작용했다.
공개적인 집단행동과 정치적 발언이 교회가 극우화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제 3장 조사 결과

I.

한국교회의 신뢰도

1. 전반적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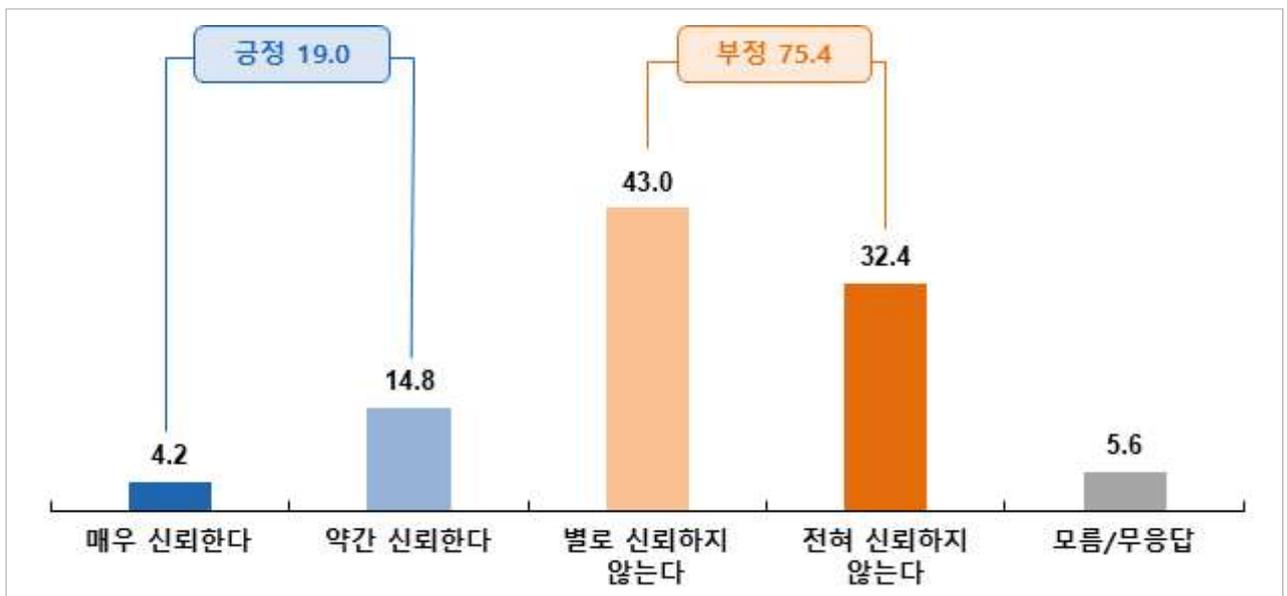
질문

Q. 귀하께서는 한국 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설문 조사에서 기독교 또는 한국교회는 가톨릭 또는 가톨릭 성당이 아니라 개신교 또는 개신교회를 의미합니다. (단수응답)

-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는 '긍정' 19.0%로 나타나, 국민 5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정' 응답은 75.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모름/무응답'은 5.6%였다.
- 본 결과는 제7차 조사와 비교할 때 표본오차 범위(표본수 1,000명, $\pm 3.10\%$) 내에서 유사한 수준이지만 2023년부터 하락하고 있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즉, 한국교회 신뢰도가 구조적으로 하락 및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부 개신교 집단이 방역 이슈와 맞물리며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 이후 한국교회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약 2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의 경우,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2023년 10.6%에서 이번 조사 6.8%로 3.8%p 하락해, 무종교인에게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 약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집단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았는데, 이는 보수 성향 응답자 중 기독교인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보수 성향 응답자 중 33.3%가 기독교인)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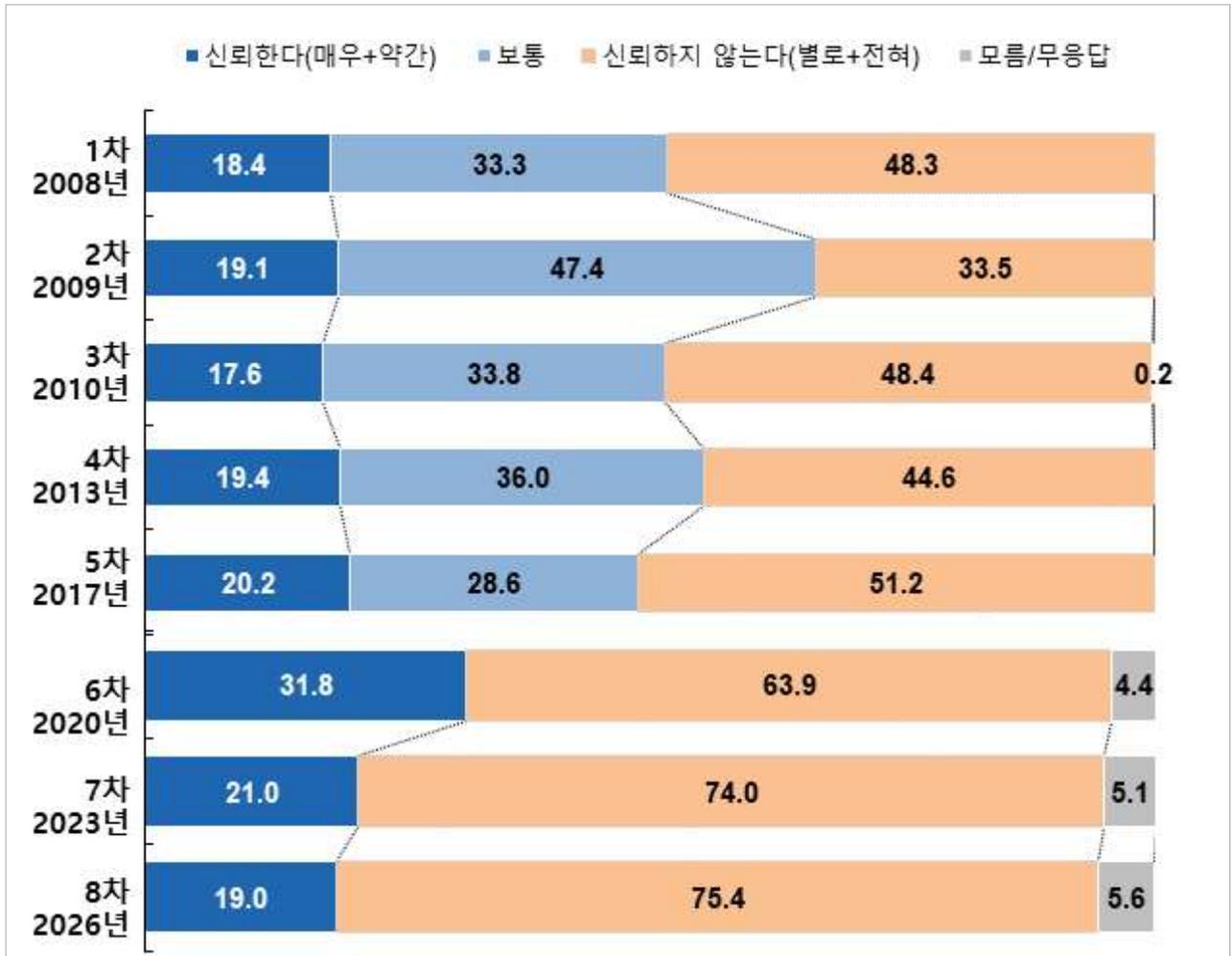
[그림] 전반적 신뢰도

(Base=전체, N=1000, %)



[그림] 과거 차수의 전반적 신뢰도

(Base=전체, N=1000, %)



[표] 전반적 신뢰도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 분		사 례 수 (명)	매 우 신뢰한 다	약 간 신뢰한 다	별 로 신뢰하 지 않는 다	전 혀 신뢰하 지 않는 다	잘 모르 겠다	계	신뢰한 다	신뢰하 지 않는 다
전 체		(1000)	4.2	14.8	43.0	32.4	5.6	100.0	19.0	75.4
성 별	남 성	(493)	4.5	16.0	40.4	34.5	4.7	100.0	20.5	74.8
	여 성	(507)	3.9	13.6	45.6	30.4	6.5	100.0	17.6	75.9
연 령	19~29세 이하	(137)	3.6	13.9	33.6	37.2	11.7	100.0	17.5	70.8
	30대	(153)	3.3	11.8	37.3	41.8	5.9	100.0	15.0	79.1
	40대	(175)	2.9	11.4	41.7	36.6	7.4	100.0	14.3	78.3
	50대	(198)	2.0	11.1	45.5	37.9	3.5	100.0	13.1	83.3
	60대 이상	(337)	6.8	20.5	48.7	20.8	3.3	100.0	27.3	69.4
지 역	서울	(186)	3.8	17.2	41.4	31.7	5.9	100.0	21.0	73.1
	경기/인천	(324)	3.4	13.9	40.7	37.0	4.9	100.0	17.3	77.8
	대전/충청	(106)	4.7	14.2	45.3	33.0	2.8	100.0	18.9	78.3
	대구/경북	(96)	5.2	18.8	40.6	29.2	6.3	100.0	24.0	69.8
	부산/울산/경남	(148)	4.7	14.2	48.6	27.0	5.4	100.0	18.9	75.7
	광주/전라	(98)	6.1	14.3	39.8	34.7	5.1	100.0	20.4	74.5
	강원/제주	(42)	2.4	7.1	54.8	19.0	16.7	100.0	9.5	73.8
직 업	자영업	(65)	7.7	12.3	36.9	27.7	15.4	100.0	20.0	64.6
	블루칼라	(144)	4.2	18.8	37.5	38.2	1.4	100.0	22.9	75.7
	화이트칼라	(384)	3.4	15.6	42.7	34.1	4.2	100.0	19.0	76.8
	가정주부	(168)	5.4	14.3	53.0	24.4	3.0	100.0	19.6	77.4
	학생	(51)	2.0	15.7	31.4	39.2	11.8	100.0	17.6	70.6
	무직/기타 /무응답	(188)	4.3	11.2	44.1	31.4	9.0	100.0	15.4	75.5
소 득 수 준	상	(146)	4.8	15.8	43.8	33.6	2.1	100.0	20.5	77.4
	중	(416)	3.8	14.7	43.0	33.7	4.8	100.0	18.5	76.7
	하	(403)	4.5	15.4	42.4	31.3	6.5	100.0	19.9	73.7
	무응답	(35)	2.9	5.7	45.7	25.7	20.0	100.0	8.6	71.4
이 념 성 향	보수	(221)	6.3	24.4	44.8	21.7	2.7	100.0	30.8	66.5
	중도	(424)	4.5	13.7	42.2	33.7	5.9	100.0	18.2	75.9
	진보	(249)	2.8	12.4	44.6	38.2	2.0	100.0	15.3	82.7
	잘 모르겠음	(106)	1.9	4.7	38.7	35.8	18.9	100.0	6.6	74.5
종 교	기독교(개신교)	(171)	21.1	46.8	22.8	8.8	0.6	100.0	67.8	31.6
	천주교(가톨릭)	(79)	1.3	15.2	53.2	27.8	2.5	100.0	16.5	81.0
	불교	(140)	0.7	11.4	48.6	32.9	6.4	100.0	12.1	81.4
	기타 종교	(11)	0.0	27.3	18.2	54.5	0.0	100.0	27.3	72.7
	무종교	(599)	0.7	6.2	46.6	39.2	7.3	100.0	6.8	85.8
삶 에 서 종 교 의 중 요 성	중요	(316)	12.0	31.6	35.4	18.0	2.8	100.0	43.7	53.5
	중요하지 않음	(85)	0.0	12.9	45.9	37.6	3.5	100.0	12.9	83.5
	무종교	(599)	0.7	6.2	46.6	39.2	7.3	100.0	6.8	85.8
한 국 교 회 신뢰도	신뢰	(190)	22.1	77.9	0.0	0.0	0.0	100.0	100.0	0.0
	신뢰하지 않음	(754)	0.0	0.0	57.0	43.0	0.0	100.0	0.0	100.0
	잘 모르겠음	(56)	0.0	0.0	0.0	0.0	100.0	100.0	0.0	0.0
한 국 교 회 이 념 적 성 향 평 가	극우	(471)	2.1	10.0	43.3	41.0	3.6	100.0	12.1	84.3
	보수	(114)	12.3	33.3	35.1	15.8	3.5	100.0	45.6	50.9
	중도	(301)	5.3	15.9	42.2	27.6	9.0	100.0	21.3	69.8
	진보	(31)	0.0	12.9	48.4	35.5	3.2	100.0	12.9	83.9
	극좌	(83)	2.4	13.3	53.0	22.9	8.4	100.0	15.7	75.9

2. 속성별 신뢰도

1)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질문

Q.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매우 신뢰하면 1번, 약간 신뢰하면 2번,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 3번,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4번 중에서 하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응답)

- 국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신뢰한다(약간+매우 그렇다)'는 21.1%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그렇지 않다)'는 73.7%로 나타나 부정 인식이 약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한국교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수준과 유사한 양상이다.
- 한편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84.7%가 기독교 목사를 신뢰한다고 응답해, 교회 신뢰도와 목회자 신뢰도 간에 높은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교회에 대한 신뢰는 목회자 개인에 대한 신뢰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기독교인 응답자 중에서도 33.3%가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인 3명 중 1명꼴로, 기독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0년 코로나19 이후부터 2026년까지의 조사 추이를 종합해 보면,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 역시 약 20% 수준에서 머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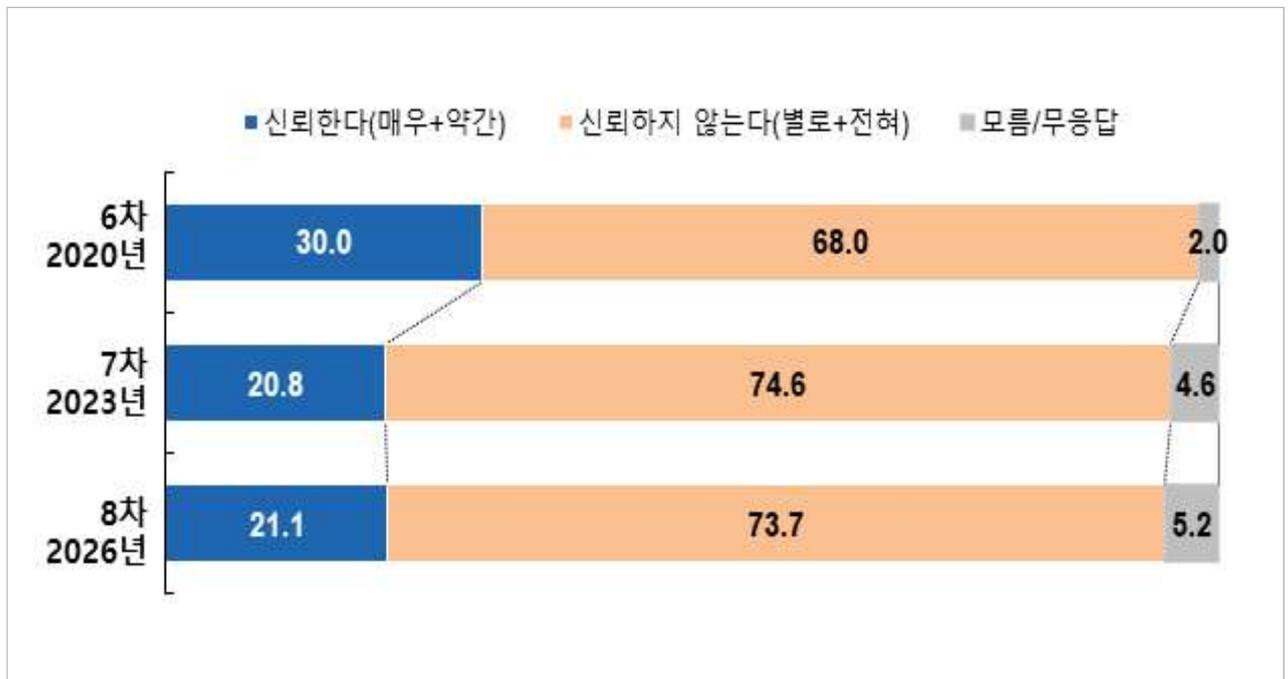
[그림] 속성별 신뢰도_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Base=전체, N=1000, %)



[그림] 과거 차수의 속성별 신뢰도_‘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Base=전체, N=1000, %)



[표] 속성별 신뢰도_‘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 분		사 례 수 (명)	매우 그 령 다	약 간 그 령 다	별 로 그 령 지 않 다	전 혀 그 령 지 않 다	잘 모 르 겠 다	계	그 령 다	그 령 지 않 다
전 체		(1000)	3.7	17.4	39.3	34.4	5.2	100.0	21.1	73.7
성 별	남 성	(493)	4.1	17.4	39.4	35.1	4.1	100.0	21.5	74.4
	여 성	(507)	3.4	17.4	39.3	33.7	6.3	100.0	20.7	73.0
연 령	19~29세 이하	(137)	2.2	15.3	28.5	42.3	11.7	100.0	17.5	70.8
	30대	(153)	2.0	11.1	34.6	46.4	5.9	100.0	13.1	81.0
	40대	(175)	4.0	15.4	38.3	37.1	5.1	100.0	19.4	75.4
	50대	(198)	2.0	14.1	44.4	34.3	5.1	100.0	16.2	78.8
	60대 이상	(337)	5.9	24.0	43.3	24.3	2.4	100.0	30.0	67.7
지 역	서울	(186)	3.8	17.7	34.9	38.7	4.8	100.0	21.5	73.7
	경기/인천	(324)	3.7	16.7	37.3	37.0	5.2	100.0	20.4	74.4
	대전/충청	(106)	2.8	17.0	38.7	37.7	3.8	100.0	19.8	76.4
	대구/경북	(96)	3.1	21.9	45.8	21.9	7.3	100.0	25.0	67.7
	부산/울산/경남	(148)	2.7	17.6	43.2	31.8	4.7	100.0	20.3	75.0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7.1 2.4	14.3 19.0	38.8 47.6	34.7 23.8	5.1 7.1	100.0 100.0	21.4 21.4	73.5 71.4
직 업	자영업	(65)	4.6	23.1	35.4	30.8	6.2	100.0	27.7	66.2
	블루칼라	(144)	4.9	20.8	36.1	37.5	0.7	100.0	25.7	73.6
	화이트칼라	(384)	2.6	16.7	38.0	36.5	6.3	100.0	19.3	74.5
	가정주부	(168)	5.4	18.5	44.6	28.0	3.6	100.0	23.8	72.6
	학생	(51)	2.0	19.6	31.4	41.2	5.9	100.0	21.6	72.5
	무직/기타 /무응답	(188)	3.7	12.8	43.1	33.0	7.4	100.0	16.5	76.1
소 득 수 준	상	(146)	2.7	21.9	33.6	39.0	2.7	100.0	24.7	72.6
	중	(416)	3.8	18.3	36.5	36.1	5.3	100.0	22.1	72.6
	하	(403)	4.2	15.9	42.7	32.0	5.2	100.0	20.1	74.7
	무응답	(35)	0.0	5.7	57.1	22.9	14.3	100.0	5.7	80.0
이 념 성 향	보수	(221)	3.2	30.3	39.4	24.0	3.2	100.0	33.5	63.3
	중도	(424)	4.5	13.7	41.3	34.7	5.9	100.0	18.2	75.9
	진보	(249)	2.8	15.7	40.2	38.2	3.2	100.0	18.5	78.3
	잘 모르겠음	(106)	3.8	9.4	29.2	46.2	11.3	100.0	13.2	75.5
종 교	기독교(개신교)	(171)	17.5	48.0	25.1	8.2	1.2	100.0	65.5	33.3
	천주교(가톨릭)	(79)	0.0	20.3	48.1	29.1	2.5	100.0	20.3	77.2
	불교	(140)	0.7	13.6	42.9	38.6	4.3	100.0	14.3	81.4
	기타 종교	(11)	9.1	27.3	18.2	45.5	0.0	100.0	36.4	63.6
	무종교	(599)	0.8	9.0	41.7	41.4	7.0	100.0	9.8	83.1
삶 에 서 종 교 의 중 요 성	중요	(316)	10.1	34.2	35.1	19.0	1.6	100.0	44.3	54.1
	중요하지 않음	(85)	0.0	14.1	37.6	42.4	5.9	100.0	14.1	80.0
	무종교	(599)	0.8	9.0	41.7	41.4	7.0	100.0	9.8	83.1
한 국 교 회 신 려 도	신뢰	(190)	17.4	67.4	11.6	2.1	1.6	100.0	84.7	13.7
	신뢰하지 않음	(754)	0.4	5.2	47.5	44.4	2.5	100.0	5.6	91.9
	잘 모르겠음	(56)	1.8	12.5	23.2	8.9	53.6	100.0	14.3	32.1
한 국 교 회 이 념 적 성 향 평 가	극우	(471)	1.9	13.4	39.7	41.6	3.4	100.0	15.3	81.3
	보수	(114)	8.8	36.8	37.7	14.0	2.6	100.0	45.6	51.8
	중도	(301)	5.3	17.6	37.5	30.9	8.6	100.0	22.9	68.4
	진보	(31)	0.0	19.4	45.2	32.3	3.2	100.0	19.4	77.4
	극좌	(83)	2.4	12.0	43.4	34.9	7.2	100.0	14.5	78.3

2)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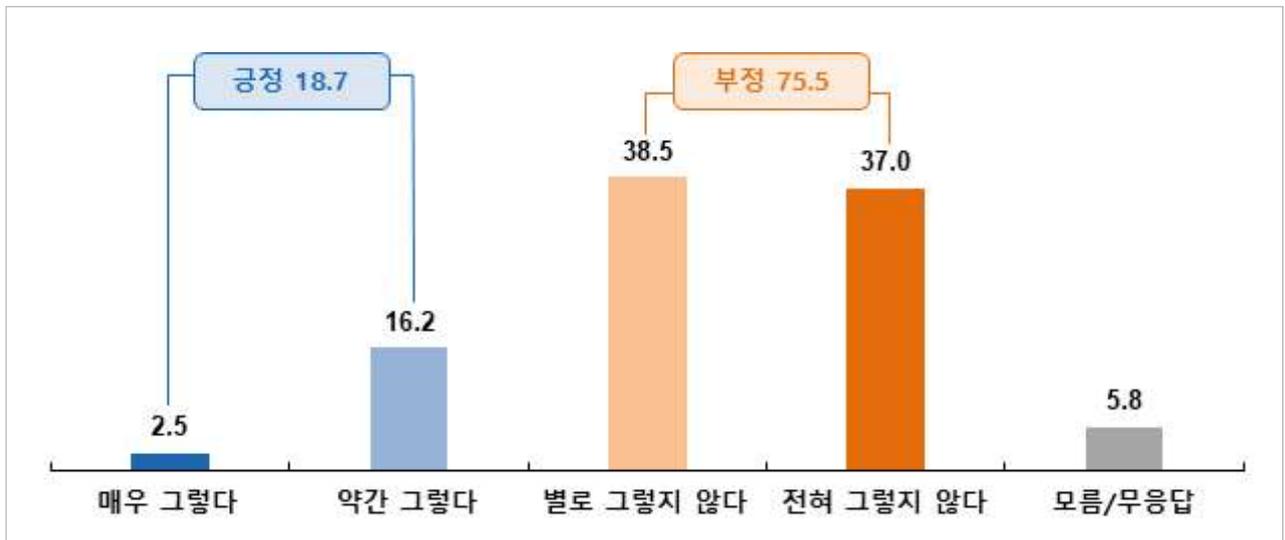
질문

Q.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매우 신뢰하면 1번, 약간 신뢰하면 2번,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 3번,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4번 중에서 하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응답)

-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신뢰한다'(약간+매우 그렇다)는 18.7%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그렇지 않다)는 75.5%로 조사되었다.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 추세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앞선 목회자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을 제외한 모든 종교 집단과 무종교인에게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 특히 무종교인의 경우,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9.5%에 불과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이 사회와 일반인들에게 신뢰할 만한 삶의 모습으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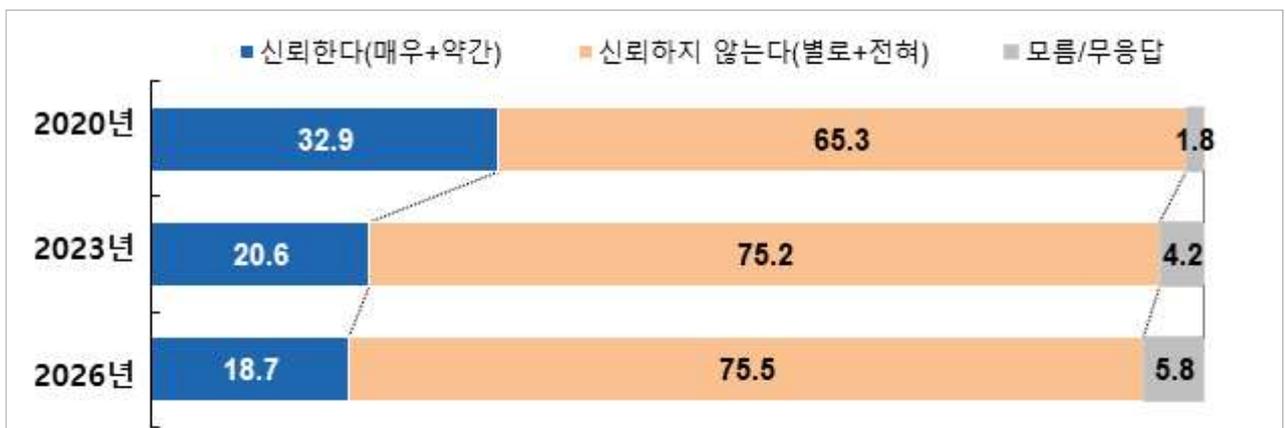
[그림] 속성별 신뢰도_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Base=전체, N=1000, %)



[그림] 과거 차수의 속성별 신뢰도_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Base=전체, N=1000, %)



[표] 속성별 신뢰도_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 분		사 례 수 (명)	매우 그 령 다	약 간 그 령 다	별 로 그 령 지 않 다	전 혀 그 령 지 않 다	잘 모 르 겠 다	계	그 령 다	그 령 지 않 다
전 체		(1000)	2.5	16.2	38.5	37.0	5.8	100.0	18.7	75.5
성 별	남 성	(493)	3.2	17.2	37.5	36.9	5.1	100.0	20.5	74.4
	여 성	(507)	1.8	15.2	39.4	37.1	6.5	100.0	17.0	76.5
연 령	19~29세 이하	(137)	1.5	13.9	32.8	40.1	11.7	100.0	15.3	73.0
	30대	(153)	3.3	8.5	30.1	50.3	7.8	100.0	11.8	80.4
	40대	(175)	2.3	14.9	33.1	41.7	8.0	100.0	17.1	74.9
	50대	(198)	1.5	13.1	42.4	38.9	4.0	100.0	14.6	81.3
	60대 이상	(337)	3.3	23.1	45.1	26.1	2.4	100.0	26.4	71.2
지 역	서울	(186)	2.7	17.2	31.7	42.5	5.9	100.0	19.9	74.2
	경기/인천	(324)	2.2	15.4	38.0	38.9	5.6	100.0	17.6	76.9
	대전/충청	(106)	1.9	17.9	34.0	40.6	5.7	100.0	19.8	74.5
	대구/경북	(96)	4.2	17.7	44.8	27.1	6.3	100.0	21.9	71.9
	부산/울산/경남	(148)	1.4	16.9	42.6	32.4	6.8	100.0	18.2	75.0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4.1 2.4	16.3 7.1	36.7 59.5	37.8 26.2	5.1 4.8	100.0 100.0	20.4 9.5	74.5 85.7
직 업	자영업	(65)	3.1	16.9	44.6	32.3	3.1	100.0	20.0	76.9
	블루칼라	(144)	2.8	18.1	36.1	40.3	2.8	100.0	20.8	76.4
	화이트칼라	(384)	2.6	14.3	35.7	41.1	6.3	100.0	16.9	76.8
	가정주부	(168)	2.4	18.5	47.6	25.6	6.0	100.0	20.8	73.2
	학생	(51)	2.0	17.6	33.3	41.2	5.9	100.0	19.6	74.5
	무직/기타 /무응답	(188)	2.1	16.0	37.2	36.7	8.0	100.0	18.1	73.9
소 득 수 준	상	(146)	2.7	17.8	35.6	39.7	4.1	100.0	20.5	75.3
	중	(416)	3.1	16.3	37.7	37.5	5.3	100.0	19.5	75.2
	하	(403)	2.0	16.4	39.5	36.0	6.2	100.0	18.4	75.4
	무응답	(35)	0.0	5.7	48.6	31.4	14.3	100.0	5.7	80.0
이 념 성 향	보수	(221)	2.7	25.3	41.6	25.8	4.5	100.0	28.1	67.4
	중도	(424)	2.8	14.2	39.4	38.0	5.7	100.0	17.0	77.4
	진보	(249)	2.0	15.3	38.6	41.0	3.2	100.0	17.3	79.5
	잘 모르겠음	(106)	1.9	7.5	28.3	47.2	15.1	100.0	9.4	75.5
종 교	기독교(개신교)	(171)	10.5	44.4	35.7	8.2	1.2	100.0	55.0	43.9
	천주교(가톨릭)	(79)	0.0	21.5	43.0	31.6	3.8	100.0	21.5	74.7
	불교	(140)	0.7	11.4	40.0	42.9	5.0	100.0	12.1	82.9
	기타 종교	(11)	18.2	0.0	27.3	45.5	9.1	100.0	18.2	72.7
	무종교	(599)	0.7	8.8	38.6	44.4	7.5	100.0	9.5	83.0
삶 에 서 종 교 의 중 요 성	중요	(316)	6.6	31.6	38.3	20.9	2.5	100.0	38.3	59.2
	중요하지 않음	(85)	0.0	10.6	38.8	44.7	5.9	100.0	10.6	83.5
	무종교	(599)	0.7	8.8	38.6	44.4	7.5	100.0	9.5	83.0
한 국 교 회 신 려 도	신뢰	(190)	11.6	61.1	22.6	3.7	1.1	100.0	72.6	26.3
	신뢰하지 않음	(754)	0.4	5.3	43.4	47.2	3.7	100.0	5.7	90.6
	잘 모르겠음	(56)	0.0	10.7	26.8	12.5	50.0	100.0	10.7	39.3
한 국 교 회 이 념 적 성 향 평 가	극우	(471)	0.8	13.2	38.0	43.1	4.9	100.0	14.0	81.1
	보수	(114)	7.0	30.7	40.4	18.4	3.5	100.0	37.7	58.8
	중도	(301)	4.3	15.6	38.5	34.2	7.3	100.0	19.9	72.8
	진보	(31)	0.0	22.6	45.2	25.8	6.5	100.0	22.6	71.0
	극좌	(83)	0.0	13.3	36.1	42.2	8.4	100.0	13.3	78.3

II.

종교 별 비교 인식

1.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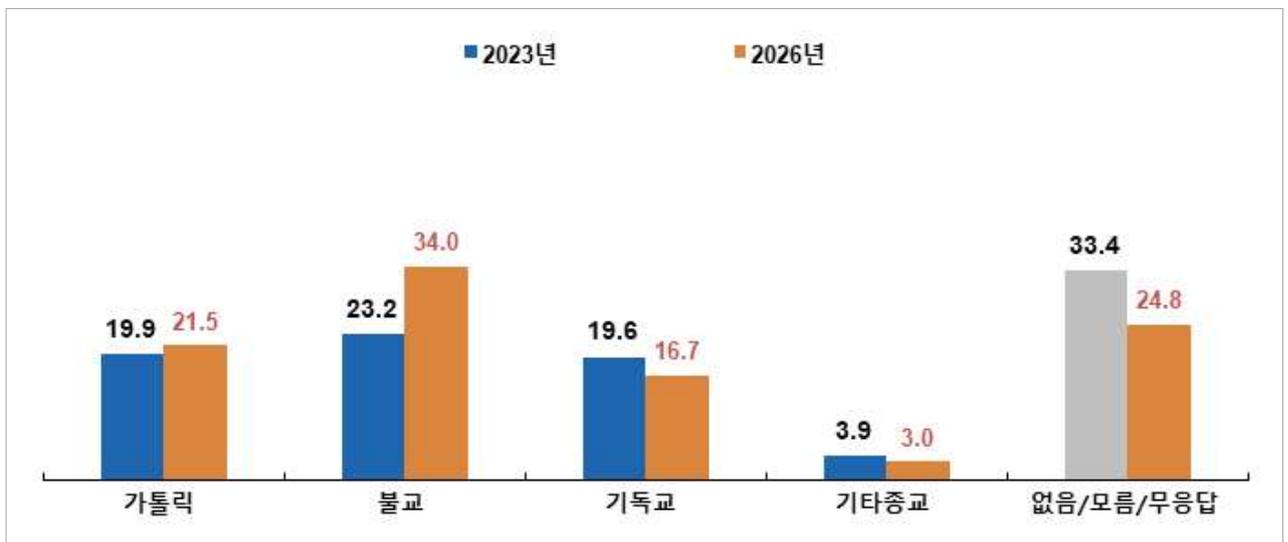
질문

Q.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친근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친근감 있게 인식되는 종교는 '불교'로, 전체 응답자의 34.0%가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가톨릭' 21.5%, '기독교' 16.7% 순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종교별 친근감의 기본적인 순위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전 조사에서 공동 2위였던 기독교와 천주교(가톨릭) 중 기독교가 3위로 내려오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불교의 친근감은 전년 대비 10%p 이상 상승해 종교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 한편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해, 종교 전반에 대한 친근감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친근감은 오히려 2.9%p 하락해, 종교 전체 흐름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 종교 유무별로 보면, 자신의 종교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무종교인의 경우 '불교' 34.4%, '가톨릭' 20.0%에 비해 '기독교'는 4.2%에 그쳐, 기독교에 대한 친근감이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였다.
-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신뢰'뿐 아니라 '정서적 친근감' 측면에서도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종교로서의 공공 이미지가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특히 무종교인 집단에서의 낮은 친근감은 향후 사회적 소통과 공적 신뢰 회복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Base=전체,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기타	없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1000)	16.7	21.5	34.0	0.7	0.9	1.1	0.3	19.4	5.4	100.0
성별	남성	(493)	16.8	20.1	32.0	1.0	1.4	1.0	0.4	21.1	6.1	100.0
	여성	(507)	16.6	22.9	35.9	0.4	0.4	1.2	0.2	17.8	4.7	100.0
연령	19~29세 이하	(137)	16.8	10.2	36.5	2.2	0.0	4.4	0.7	21.2	8.0	100.0
	30대	(153)	12.4	10.5	44.4	0.7	1.3	0.7	1.3	20.3	8.5	100.0
	40대	(175)	12.0	17.1	40.0	0.0	0.0	2.3	0.0	23.4	5.1	100.0
	50대	(198)	13.1	27.3	35.4	1.5	1.5	0.0	0.0	16.7	4.5	100.0
	60대 이상	(337)	23.1	30.0	24.3	0.0	1.2	0.0	0.0	17.8	3.6	100.0
지역	서울	(186)	17.7	24.2	31.7	0.0	0.5	1.1	0.5	19.9	4.3	100.0
	경기/인천	(324)	17.3	20.4	28.1	0.9	1.2	1.5	0.6	21.9	8.0	100.0
	대전/충청	(106)	12.3	19.8	38.7	0.9	1.9	1.9	0.0	19.8	4.7	100.0
	대구/경북	(96)	18.8	20.8	37.5	0.0	0.0	0.0	0.0	17.7	5.2	100.0
	부산/울산/경남	(148)	13.5	14.9	49.3	0.7	0.0	0.7	0.0	16.2	4.7	100.0
	광주/전라	(98)	23.5	26.5	27.6	1.0	1.0	1.0	0.0	17.3	2.0	100.0
강원/제주	(42)	9.5	35.7	31.0	2.4	2.4	0.0	0.0	16.7	2.4	100.0	
직업	자영업	(65)	23.1	27.7	24.6	0.0	1.5	0.0	0.0	18.5	4.6	100.0
	블루칼라	(144)	16.0	17.4	33.3	1.4	1.4	1.4	1.4	22.2	5.6	100.0
	화이트칼라	(384)	16.1	19.8	36.5	1.3	0.5	1.3	0.3	19.8	4.4	100.0
	가정주부	(168)	19.0	25.0	35.7	0.0	1.2	0.0	0.0	14.3	4.8	100.0
	학생	(51)	17.6	3.9	49.0	0.0	0.0	0.0	0.0	21.6	7.8	100.0
	무직/기타 /무응답	(188)	13.8	27.7	27.1	0.0	1.1	2.1	0.0	20.7	7.4	100.0
소득수준	상	(146)	17.1	28.1	33.6	0.7	2.7	0.0	0.7	13.0	4.1	100.0
	중	(416)	16.3	24.0	34.1	0.7	0.7	1.2	0.2	17.8	4.8	100.0
	하	(403)	17.9	17.6	34.5	0.7	0.5	1.2	0.2	23.1	4.2	100.0
	무응답	(35)	5.7	8.6	28.6	0.0	0.0	2.9	0.0	22.9	31.4	100.0
이념성향	보수	(221)	24.9	21.3	33.5	0.5	0.9	0.9	0.0	13.6	4.5	100.0
	중도	(424)	15.1	22.4	30.0	0.9	0.7	1.2	0.5	23.6	5.7	100.0
	진보	(249)	16.1	25.7	42.2	0.8	1.6	0.8	0.0	10.4	2.4	100.0
	잘 모르겠음	(106)	7.5	8.5	32.1	0.0	0.0	1.9	0.9	35.8	13.2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82.5	9.4	3.5	0.0	0.0	0.0	0.0	2.9	1.8	100.0
	천주교(가톨릭)	(79)	1.3	88.6	1.3	0.0	0.0	0.0	0.0	3.8	5.1	100.0
	불교	(140)	0.0	5.0	89.3	0.0	0.7	0.7	0.0	3.6	0.7	100.0
	기타 종교	(11)	0.0	18.2	18.2	27.3	0.0	9.1	18.2	9.1	0.0	100.0
	무종교	(599)	4.2	20.0	34.4	0.7	1.3	1.5	0.2	30.1	7.7	100.0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42.4	25.0	26.9	0.6	0.3	0.6	0.6	1.6	1.9	100.0
	중요하지 않음	(85)	9.4	18.8	57.6	1.2	0.0	0.0	0.0	10.6	2.4	100.0
	무종교	(599)	4.2	20.0	34.4	0.7	1.3	1.5	0.2	30.1	7.7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63.2	11.6	15.8	1.6	0.5	0.5	0.0	4.7	2.1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6.1	24.9	38.5	0.5	1.1	1.3	0.3	22.0	5.3	100.0
	잘 모르겠음	(56)	1.8	8.9	35.7	0.0	0.0	0.0	1.8	33.9	17.9	100.0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11.7	28.2	38.6	0.2	1.1	0.4	0.2	15.5	4.0	100.0
	보수	(114)	40.4	13.2	25.4	1.8	0.0	0.9	0.9	12.3	5.3	100.0
	중도	(301)	17.3	13.0	31.2	0.7	1.0	2.7	0.3	26.6	7.3	100.0
	진보	(31)	9.7	38.7	29.0	3.2	3.2	0.0	0.0	12.9	3.2	100.0
극좌	(83)	13.3	19.3	31.3	1.2	0.0	0.0	0.0	27.7	7.2	100.0	

2. 가장 신뢰하는 종교

질문

Q.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국민에게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은 결과, '천주교(가톨릭)'가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 24.4%, '기독교' 13.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없음/모름/무응답'은 34.0%로, 종교 전반에 대해 신뢰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이 3명 중 1명 수준에 달했다.
- 2020년 코로나19 이후 세 종교(기독교·불교·천주교) 모두 신뢰도가 하락하는 국면을 겪었으나, 2026년 조사에서는 천주교와 불교가 신뢰 종교로서 일정 부분 반등한 반면, 기독교는 조사 이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첫 조사와 비교할 때,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종교인의 경우 '신뢰하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아, 종교 일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약 23.0%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2.2%에 불과해, 기독교가 무종교인과 타종교인 집단으로부터 거의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 한편 한국교회의 이념적 성향을 '극우'로 인식하는 응답자 집단에서는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에 그쳐, 정치·이념적 이미지가 기독교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가장 신뢰하는 종교_시계열

(Base=전체, N=1000, %)



[표] 가장 신뢰하는 종교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기타	없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1000)	13.6	25.3	24.4	0.5	1.1	0.8	0.3	25.6	8.4	100.0
성별	남성	(493)	13.8	24.5	24.5	0.6	1.6	1.2	0.4	26.0	7.3	100.0
	여성	(507)	13.4	26.0	24.3	0.4	0.6	0.4	0.2	25.2	9.5	100.0
연령	19~29세 이하	(137)	13.9	9.5	26.3	1.5	0.7	2.9	0.0	31.4	13.9	100.0
	30대	(153)	9.2	17.0	32.0	0.7	2.0	0.0	1.3	26.8	11.1	100.0
	40대	(175)	9.1	20.6	22.9	0.0	0.0	2.3	0.0	33.7	11.4	100.0
	50대	(198)	12.1	27.3	26.8	1.0	0.5	0.0	0.5	24.2	7.6	100.0
	60대 이상	(337)	18.7	36.8	19.6	0.0	1.8	0.0	0.0	19.3	3.9	100.0
지역	서울	(186)	12.9	26.3	25.8	0.5	1.1	0.5	0.0	26.9	5.9	100.0
	경기/인천	(324)	14.8	26.5	20.1	0.6	1.2	0.9	0.6	26.2	9.0	100.0
	대전/충청	(106)	11.3	21.7	29.2	0.0	0.9	0.9	0.0	28.3	7.5	100.0
	대구/경북	(96)	10.4	21.9	25.0	0.0	1.0	0.0	1.0	30.2	10.4	100.0
	부산/울산/경남	(148)	13.5	20.3	34.5	0.0	0.0	0.7	0.0	23.0	8.1	100.0
	광주/전라	(98)	19.4	29.6	18.4	1.0	2.0	2.0	0.0	18.4	9.2	100.0
강원/제주	(42)	7.1	35.7	16.7	2.4	2.4	0.0	0.0	23.8	11.9	100.0	
직업	자영업	(65)	18.5	27.7	20.0	0.0	1.5	0.0	0.0	20.0	12.3	100.0
	블루칼라	(144)	13.2	22.9	24.3	1.4	0.7	1.4	1.4	25.7	9.0	100.0
	화이트칼라	(384)	12.5	25.3	26.0	0.8	0.3	1.0	0.0	27.1	7.0	100.0
	가정주부	(168)	16.1	30.4	24.4	0.0	1.2	0.0	0.6	19.6	7.7	100.0
	학생	(51)	15.7	2.0	33.3	0.0	2.0	3.9	0.0	29.4	13.7	100.0
	무직/기타 /무응답	(188)	11.7	28.2	20.2	0.0	2.7	0.0	0.0	28.7	8.5	100.0
소득수준	상	(146)	15.1	29.5	25.3	0.7	2.1	0.7	0.7	19.2	6.8	100.0
	중	(416)	13.0	28.1	25.0	0.5	0.2	1.0	0.5	22.8	8.9	100.0
	하	(403)	14.6	22.3	24.8	0.5	1.7	0.7	0.0	29.3	6.0	100.0
	무응답	(35)	2.9	8.6	8.6	0.0	0.0	0.0	0.0	42.9	37.1	100.0
이념성향	보수	(221)	20.8	25.8	26.2	0.5	1.4	0.5	0.0	18.6	6.3	100.0
	중도	(424)	12.5	25.2	21.7	0.7	1.2	1.2	0.2	29.7	7.5	100.0
	진보	(249)	11.2	30.1	31.3	0.4	1.2	0.8	0.4	17.7	6.8	100.0
	잘 모르겠음	(106)	8.5	13.2	15.1	0.0	0.0	0.0	0.9	42.5	19.8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71.3	14.6	2.3	0.0	0.0	0.0	0.0	8.2	3.5	100.0
	천주교(가톨릭)	(79)	1.3	87.3	1.3	0.0	0.0	0.0	0.0	7.6	2.5	100.0
	불교	(140)	0.0	10.0	72.1	0.7	1.4	1.4	0.0	8.6	5.7	100.0
	기타 종교	(11)	0.0	36.4	0.0	9.1	0.0	18.2	27.3	9.1	0.0	100.0
	무종교	(599)	2.2	23.5	23.0	0.5	1.5	0.7	0.0	37.2	11.4	100.0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37.7	28.2	23.1	0.3	0.6	1.3	0.9	5.1	2.8	100.0
	중요하지 않음	(85)	4.7	27.1	38.8	1.2	0.0	0.0	0.0	20.0	8.2	100.0
	무종교	(599)	2.2	23.5	23.0	0.5	1.5	0.7	0.0	37.2	11.4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56.8	15.3	15.3	1.1	0.5	1.1	0.0	7.4	2.6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3.4	28.9	26.9	0.4	1.3	0.8	0.4	29.4	8.4	100.0
	잘 모르겠음	(56)	3.6	10.7	21.4	0.0	0.0	0.0	0.0	35.7	28.6	100.0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7.6	33.3	25.5	0.2	1.1	0.6	0.4	23.6	7.6	100.0
	보수	(114)	36.8	14.0	23.7	0.9	1.8	1.8	0.9	15.8	4.4	100.0
	중도	(301)	15.3	16.6	23.3	0.7	1.0	0.7	0.0	31.9	10.6	100.0
	진보	(31)	12.9	38.7	22.6	0.0	0.0	0.0	0.0	19.4	6.5	100.0
극좌	(83)	9.6	21.7	24.1	1.2	1.2	1.2	0.0	30.1	10.8	100.0	

3. 종교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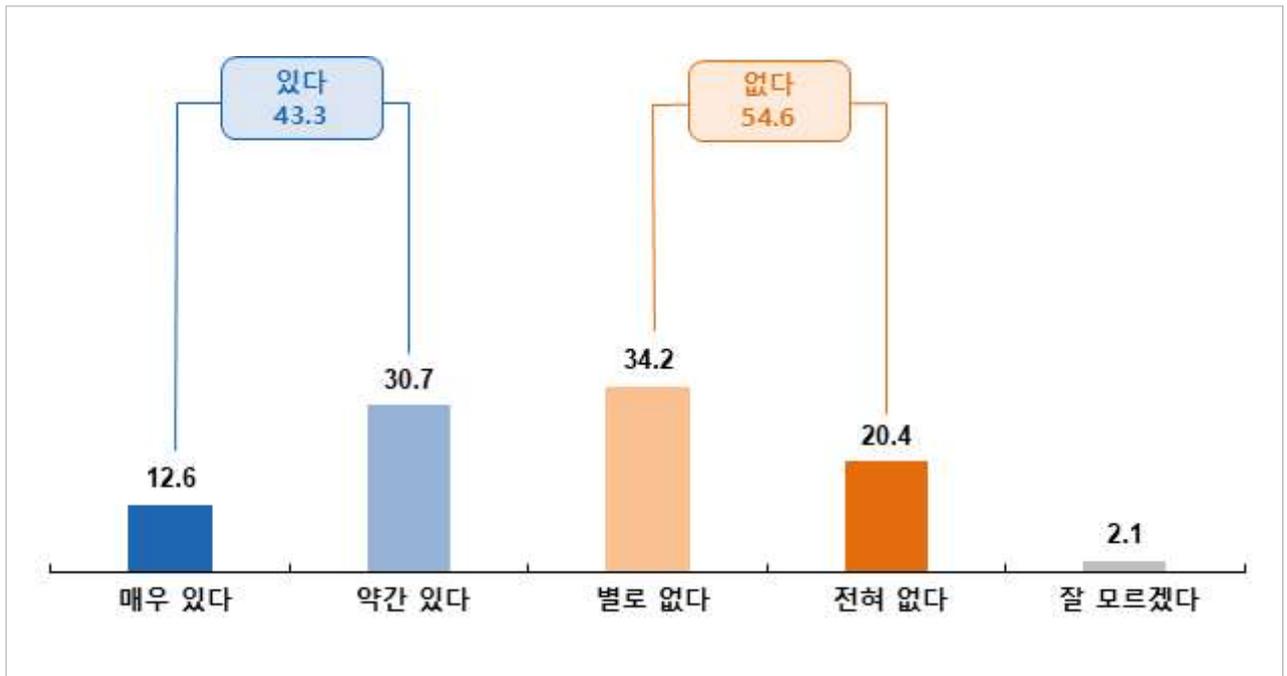
질문

Q. 귀하께서는 평소 종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 국민의 평소 종교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관심이 있다(약간+매우 있다)'는 43.3%였으며, '관심이 없다(별로+전혀 없다)'는 54.6%로 나타나 국민 절반 이상이 종교 전반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 비해 20~40대의 종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40대의 경우 약 3명 중 1명 수준에서만 종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종교인의 경우 종교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2%에 그쳐, 4명 중 1명만이 종교에 관심을 보였다.
- 한편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만을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 신자 집단에서 46.8%가 해당 응답을 선택해, 조사 대상 집단 가운데 종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 정리하면 국민 전체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낮은편이며, 특히 세대가 지나가면서 종교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종교 관심도

(Base=전체, N=1000, %)



[표] 종교 관심도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있다	없다
전체		(1000)	12.6	30.7	34.2	20.4	2.1	100.0	43.3	54.6
성별	남성	(493)	12.4	31.6	32.7	21.3	2.0	100.0	44.0	54.0
	여성	(507)	12.8	29.8	35.7	19.5	2.2	100.0	42.6	55.2
연령	19~29세 이하	(137)	7.3	25.5	35.0	29.2	2.9	100.0	32.8	64.2
	30대	(153)	7.2	25.5	32.0	32.0	3.3	100.0	32.7	64.1
	40대	(175)	5.1	25.7	38.9	27.4	2.9	100.0	30.9	66.3
	50대	(198)	11.6	31.8	37.9	17.2	1.5	100.0	43.4	55.1
	60대 이상	(337)	21.7	37.1	30.3	9.8	1.2	100.0	58.8	40.1
지역	서울	(186)	15.1	29.6	32.3	22.6	0.5	100.0	44.6	54.8
	경기/인천	(324)	13.3	28.1	34.3	22.2	2.2	100.0	41.4	56.5
	대전/충청	(106)	13.2	31.1	32.1	18.9	4.7	100.0	44.3	50.9
	대구/경북	(96)	12.5	34.4	33.3	15.6	4.2	100.0	46.9	49.0
	부산/울산/경남	(148)	11.5	35.1	36.5	15.5	1.4	100.0	46.6	52.0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11.2 2.4	30.6 31.0	34.7 40.5	22.4 23.8	1.0 2.4	100.0 100.0	41.8 33.3	57.1 64.3
직업	자영업	(65)	20.0	38.5	26.2	13.8	1.5	100.0	58.5	40.0
	블루칼라	(144)	9.0	28.5	34.0	26.4	2.1	100.0	37.5	60.4
	화이트칼라	(384)	11.7	31.0	34.9	21.9	0.5	100.0	42.7	56.8
	가정주부	(168)	17.3	28.0	41.1	11.9	1.8	100.0	45.2	53.0
	학생	(51)	5.9	25.5	35.3	29.4	3.9	100.0	31.4	64.7
	무직/기타 /무응답	(188)	12.2	33.0	29.3	20.2	5.3	100.0	45.2	49.5
소득수준	상	(146)	18.5	34.2	27.4	17.8	2.1	100.0	52.7	45.2
	중	(416)	12.0	31.7	33.4	21.6	1.2	100.0	43.8	55.0
	하	(403)	11.9	30.0	36.5	19.4	2.2	100.0	41.9	55.8
	무응답	(35)	2.9	11.4	45.7	28.6	11.4	100.0	14.3	74.3
이념성향	보수	(221)	15.4	43.0	29.4	10.9	1.4	100.0	58.4	40.3
	중도	(424)	12.3	27.6	37.7	21.0	1.4	100.0	39.9	58.7
	진보	(249)	14.1	31.3	32.1	20.9	1.6	100.0	45.4	53.0
	잘 모르겠음	(106)	4.7	16.0	34.9	36.8	7.5	100.0	20.8	71.7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46.8	42.1	9.4	1.2	0.6	100.0	88.9	10.5
	천주교(가톨릭)	(79)	26.6	48.1	20.3	3.8	1.3	100.0	74.7	24.1
	불교	(140)	5.0	45.0	37.1	9.3	3.6	100.0	50.0	46.4
	기타 종교	(11)	9.1	54.5	36.4	0.0	0.0	100.0	63.6	36.4
	무종교	(599)	2.8	21.4	42.4	31.1	2.3	100.0	24.2	73.5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33.5	45.9	15.5	3.2	1.9	100.0	79.4	18.7
	중요하지 않음	(85)	3.5	40.0	45.9	9.4	1.2	100.0	43.5	55.3
	무종교	(599)	2.8	21.4	42.4	31.1	2.3	100.0	24.2	73.5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35.8	43.2	17.4	2.6	1.1	100.0	78.9	20.0
	신뢰하지 않음	(754)	7.3	29.0	38.7	24.3	0.7	100.0	36.3	63.0
	잘 모르겠음	(56)	5.4	10.7	30.4	28.6	25.0	100.0	16.1	58.9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12.5	32.9	32.9	20.4	1.3	100.0	45.4	53.3
	보수	(114)	20.2	39.5	27.2	11.4	1.8	100.0	59.6	38.6
	중도	(301)	10.0	24.6	37.9	24.6	3.0	100.0	34.6	62.5
	진보	(31)	9.7	32.3	35.5	22.6	0.0	100.0	41.9	58.1
	극좌	(83)	13.3	27.7	37.3	16.9	4.8	100.0	41.0	54.2

4. 종교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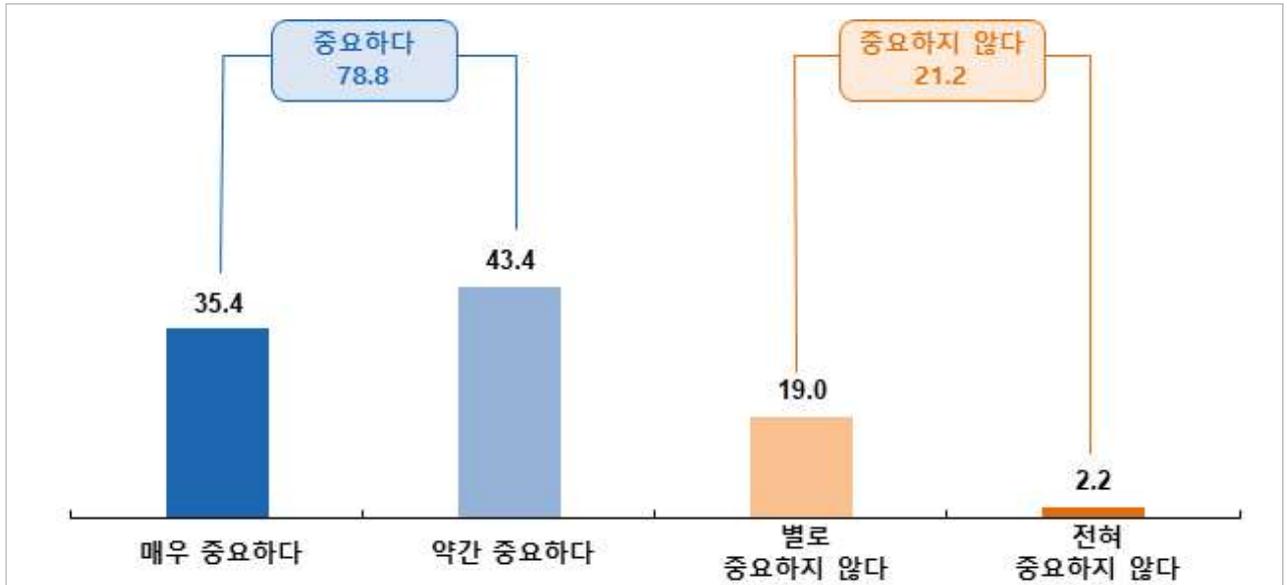
질문

Q. 종교가 개인적으로 귀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수응답)

- 종교인을 대상으로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묻은 결과, '중요하다(약간+매우 중요하다)'는 78.8%로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21.2%에 그쳤다. 종교를 가진 응답자의 대다수는 삶에서 종교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종교 중요도는 3.3%p 상승해, 종교인 집단 내에서 종교성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종교 관심도와는 달리, 신자 내부에서는 종교의 의미와 비중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종교별로 보면, 삶에서 종교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집단은 기독교인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89.5%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천주교(가톨릭) 82.3%, 기타 종교 72.8%, 불교 64.3% 순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분석에서는 20대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세대에 비해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림] 종교 중요도

(Base=종교인, N=401, %)



[그림] 과거 차수의 종교 중요도

(Base=종교인, N=401,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종교 중요도 (응답자 특성별)

(Base=종교인, N=401, %)

구 분		사 례 수 (명)	매 우 중 요 하 다	중 요 하 다	중 요 하 지	중 요 하 지	계	중 요 하 다	중 요 하 지
전 체		(401)	35.4	43.4	19.0	2.2	100.0	78.8	21.2
성 별	남 성	(202)	35.1	40.6	21.3	3.0	100.0	75.7	24.3
	여 성	(199)	35.7	46.2	16.6	1.5	100.0	81.9	18.1
연 령	19~29세 이하	(37)	21.6	40.5	27.0	10.8	100.0	62.1	37.8
	30대	(39)	35.9	46.2	15.4	2.6	100.0	82.1	18.0
	40대	(55)	23.6	45.5	29.1	1.8	100.0	69.1	30.9
	50대	(74)	31.1	51.4	16.2	1.4	100.0	82.5	17.6
	60대 이상	(196)	42.9	39.8	16.3	1.0	100.0	82.7	17.3
지 역	서울	(64)	45.3	37.5	15.6	1.6	100.0	82.8	17.2
	경기/인천	(120)	47.5	32.5	18.3	1.7	100.0	80.0	20.0
	대전/충청	(39)	41.0	30.8	28.2	0.0	100.0	71.8	28.2
	대구/경북	(46)	21.7	52.2	21.7	4.3	100.0	73.9	26.0
	부산/울산/경남	(77)	18.2	58.4	19.5	3.9	100.0	76.6	23.4
	광주/전라	(41)	31.7	51.2	14.6	2.4	100.0	82.9	17.0
	강원/제주	(14)	21.4	64.3	14.3	0.0	100.0	85.7	14.3
직 업	자영업	(29)	48.3	37.9	13.8	0.0	100.0	86.2	13.8
	블루칼라	(57)	29.8	45.6	21.1	3.5	100.0	75.4	24.6
	화이트칼라	(141)	32.6	44.0	22.0	1.4	100.0	76.6	23.4
	가정주부	(85)	47.1	38.8	12.9	1.2	100.0	85.9	14.1
	학생	(13)	23.1	30.8	38.5	7.7	100.0	53.9	46.2
	무직/기타 /무응답	(76)	28.9	50.0	17.1	3.9	100.0	78.9	21.0
소 득 수 준	상	(66)	40.9	43.9	12.1	3.0	100.0	84.8	15.1
	중	(164)	34.8	41.5	22.0	1.8	100.0	76.3	23.8
	하	(161)	35.4	44.7	18.6	1.2	100.0	80.1	19.8
	무응답	(10)	10.0	50.0	20.0	20.0	100.0	60.0	40.0
이 념 성 향	보수	(120)	35.8	44.2	18.3	1.7	100.0	80.0	20.0
	중도	(146)	37.0	41.1	18.5	3.4	100.0	78.1	21.9
	진보	(114)	33.3	47.4	19.3	0.0	100.0	80.7	19.3
	잘 모르겠음	(21)	33.3	33.3	23.8	9.5	100.0	66.6	33.3
종 교	기독교(개신교)	(171)	58.5	31.0	9.4	1.2	100.0	89.5	10.6
	천주교(가톨릭)	(79)	32.9	49.4	13.9	3.8	100.0	82.3	17.7
	불교	(140)	9.3	55.0	32.9	2.9	100.0	64.3	35.8
	기타 종교	(11)	27.3	45.5	27.3	0.0	100.0	72.8	27.3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44.9	55.1	0.0	0.0	100.0	100.0	0.0
	중요하지 않음	(85)	0.0	0.0	89.4	10.6	100.0	0.0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49)	55.0	37.6	7.4	0.0	100.0	92.6	7.4
	신뢰하지 않음	(240)	24.6	45.8	26.3	3.3	100.0	70.4	29.6
	잘 모르겠음	(12)	8.3	66.7	16.7	8.3	100.0	75.0	25.0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187)	33.2	46.0	19.3	1.6	100.0	79.2	20.9
	보수	(62)	48.4	40.3	11.3	0.0	100.0	88.7	11.3
	중도	(100)	35.0	44.0	16.0	5.0	100.0	79.0	21.0
	진보	(15)	26.7	40.0	33.3	0.0	100.0	66.7	33.3
	극좌	(37)	29.7	35.1	32.4	2.7	100.0	64.8	35.1

Ⅲ.

종교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종교별 비교 인식

1.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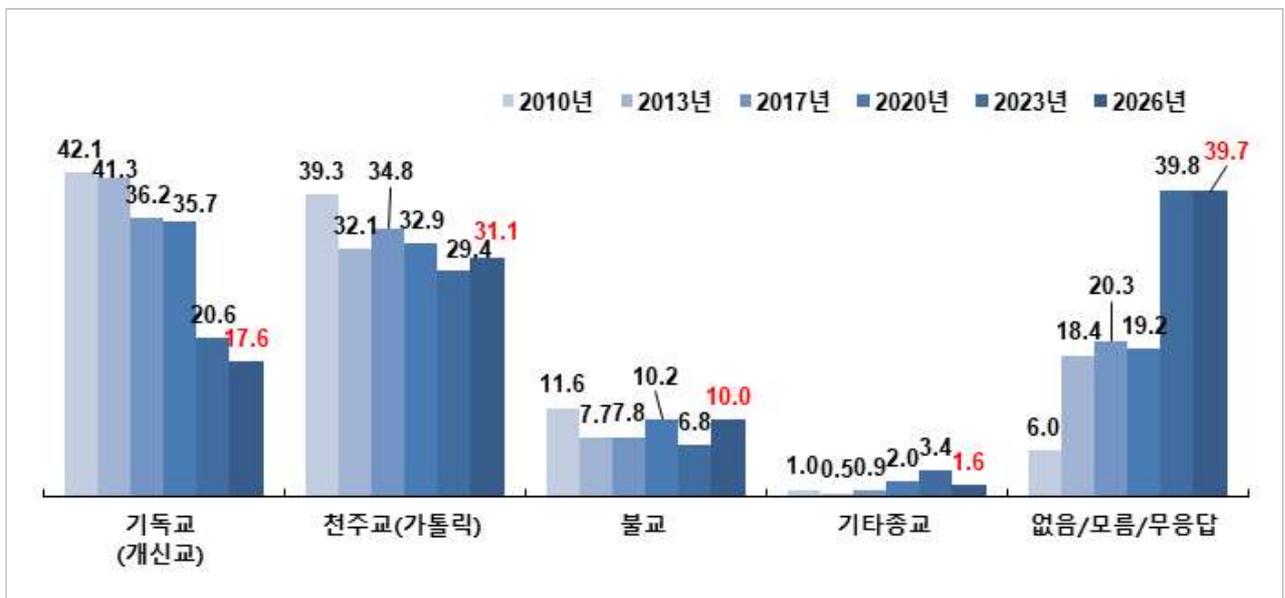
질문

Q.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는 '천주교(가톨릭)'로 31.1%를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 17.6%, '불교' 10.0% 순이었고, '기타 종교'는 1.6%에 그쳤다. 한편 '없음/모름/무응답'은 39.7%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종교가 떠오르지 않는 응답자도 상당수 존재했다.
- 연령별로 보면, 전반적인 흐름과 달리 20대에서는 '기독교'를 가장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세대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 그러나 무종교인의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한 비율은 8.3%에 불과해,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기독교가 사회봉사 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무종교인에게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는 기독교의 실질적인 봉사 규모와 관계없이, 대중(특히 무종교인)에게 그 진정성과 성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교계의 신뢰도 회복 없이는 봉사 활동의 성과조차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Base=전체, N=1000, %)



[표]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 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기타	없다	잘 모르 겠다	계
전 체		(1000)	17.6	31.1	10.0	0.5	0.1	0.5	0.5	13.4	26.3	100.0
성별	남성	(493)	18.7	33.1	8.9	0.6	0.2	0.8	0.6	15.8	21.3	100.0
	여성	(507)	16.6	29.2	11.0	0.4	0.0	0.2	0.4	11.0	31.2	100.0
연령	19~29세 이하	(137)	19.7	14.6	18.2	0.7	0.0	2.2	0.0	16.8	27.7	100.0
	30대	(153)	13.1	25.5	9.2	0.0	0.0	0.7	1.3	13.1	37.3	100.0
	40대	(175)	9.1	28.0	13.1	0.0	0.0	0.0	0.6	17.1	32.0	100.0
	50대	(198)	16.2	33.8	9.1	1.0	0.5	0.0	0.5	15.7	23.2	100.0
	60대 이상	(337)	24.0	40.4	5.9	0.6	0.0	0.3	0.3	8.9	19.6	100.0
지역	서울	(186)	15.1	32.3	11.3	0.5	0.5	0.0	0.5	13.4	26.3	100.0
	경기/인천	(324)	17.0	29.0	10.8	0.3	0.0	0.6	1.2	13.3	27.8	100.0
	대전/충청	(106)	16.0	35.8	5.7	0.9	0.0	0.9	0.0	14.2	26.4	100.0
	대구/경북	(96)	19.8	25.0	12.5	0.0	0.0	1.0	0.0	16.7	25.0	100.0
	부산/울산/경남	(148)	17.6	31.8	12.8	0.0	0.0	0.0	0.0	12.2	25.7	100.0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23.5 19.0	34.7 33.3	6.1 2.4	1.0 2.4	0.0 0.0	0.0 2.4	0.0 0.0	13.3 9.5	21.4 31.0	100.0 100.0
직업	자영업	(65)	30.8	30.8	6.2	0.0	1.5	0.0	0.0	15.4	15.4	100.0
	블루칼라	(144)	16.0	32.6	9.7	0.7	0.0	1.4	2.1	13.9	23.6	100.0
	화이트칼라	(384)	15.1	28.9	10.9	0.8	0.0	0.0	0.5	13.8	29.9	100.0
	가정주부	(168)	18.5	39.9	9.5	0.6	0.0	0.6	0.0	8.3	22.6	100.0
	학생	(51)	19.6	9.8	21.6	0.0	0.0	0.0	0.0	13.7	35.3	100.0
	무직/기타 /무응답	(188)	18.1	32.4	6.9	0.0	0.0	1.1	0.0	16.0	25.5	100.0
소득수준	상	(146)	20.5	30.8	14.4	0.0	0.7	2.7	1.4	7.5	21.9	100.0
	중	(416)	19.0	31.0	8.7	0.7	0.0	0.0	0.5	11.1	29.1	100.0
	하	(403)	16.1	32.5	10.4	0.5	0.0	0.2	0.2	18.1	21.8	100.0
	무응답	(35)	5.7	17.1	2.9	0.0	0.0	0.0	0.0	11.4	62.9	100.0
이념성향	보수	(221)	24.9	31.7	10.0	0.0	0.0	0.9	0.0	9.0	23.5	100.0
	중도	(424)	17.7	29.2	9.7	0.7	0.2	0.0	0.5	14.2	27.8	100.0
	진보	(249)	15.7	40.2	12.9	0.8	0.0	1.2	0.0	10.0	19.3	100.0
	잘 모르겠음	(106)	6.6	16.0	4.7	0.0	0.0	0.0	2.8	27.4	42.5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59.6	22.2	1.2	0.6	0.0	0.0	0.0	2.9	13.5	100.0
	천주교(가톨릭)	(79)	10.1	72.2	0.0	0.0	0.0	0.0	1.3	2.5	13.9	100.0
	불교	(140)	10.7	27.9	21.4	0.7	0.0	1.4	0.0	7.1	30.7	100.0
	기타 종교	(11)	9.1	27.3	18.2	0.0	0.0	9.1	27.3	9.1	0.0	100.0
	무종교	(599)	8.3	29.0	11.0	0.5	0.2	0.3	0.2	19.4	31.1	100.0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36.1	33.9	7.0	0.6	0.0	0.9	1.3	3.8	16.5	100.0
	중요하지 않음	(85)	14.1	35.3	14.1	0.0	0.0	0.0	0.0	7.1	29.4	100.0
	무종교	(599)	8.3	29.0	11.0	0.5	0.2	0.3	0.2	19.4	31.1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53.7	22.1	6.3	0.5	0.0	0.5	0.0	2.6	14.2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9.0	34.9	10.7	0.5	0.1	0.5	0.5	16.3	27.3	100.0
	잘 모르겠음	(56)	10.7	10.7	12.5	0.0	0.0	0.0	1.8	10.7	53.6	100.0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11.9	44.2	9.8	0.0	0.0	0.6	0.6	11.9	21.0	100.0
	보수	(114)	41.2	21.1	5.3	0.9	0.0	1.8	1.8	8.8	19.3	100.0
	중도	(301)	17.3	17.3	9.6	1.3	0.3	0.0	0.0	15.6	38.5	100.0
	진보	(31)	22.6	35.5	16.1	0.0	0.0	0.0	0.0	12.9	12.9	100.0
	극좌	(83)	16.9	19.3	16.9	0.0	0.0	0.0	0.0	20.5	26.5	100.0

2.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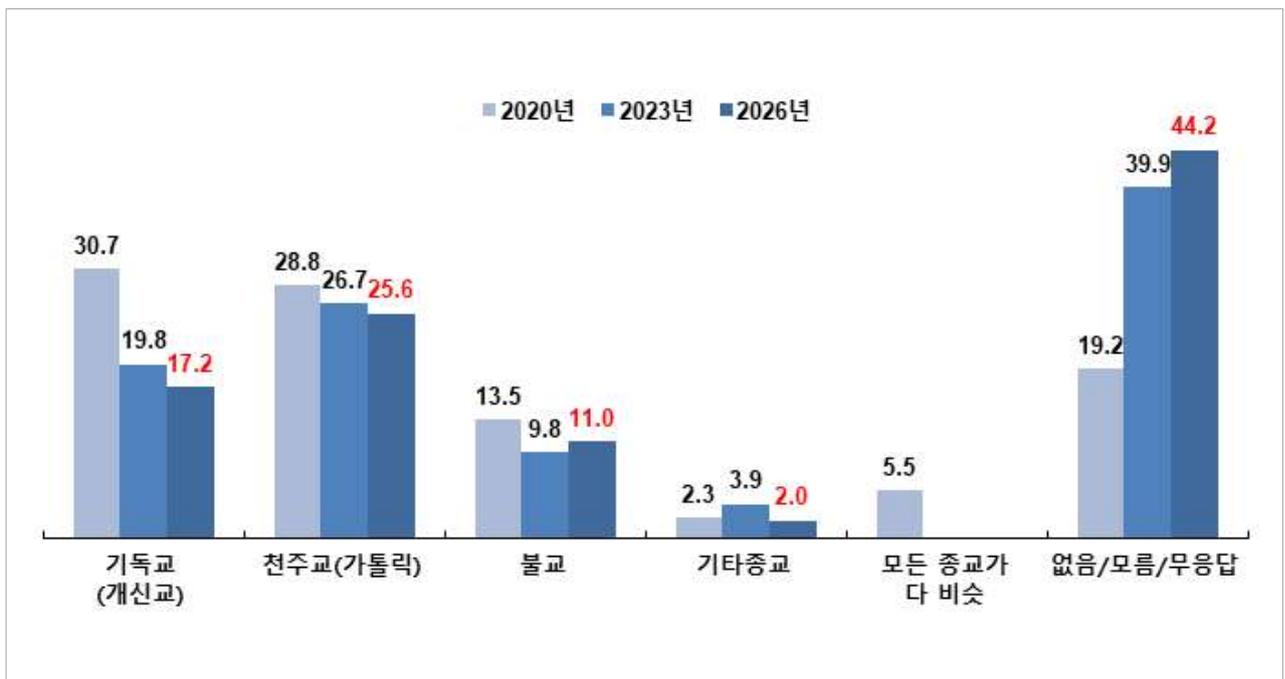
질문

Q. 다음 중 어느 종교의 사회봉사활동이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음/모름'이 4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해당 응답 비율은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 대비 약 25.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가톨릭)'가 25.6%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 17.2%, '불교' 11.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교를 제외한 기독교와 천주교는 소폭이지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는 특정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긍정하기보다,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하거나 종교의 공공성에 무관심해지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Base=전체, N=1000, %)



[표]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기타	없다	잘 르겠다	계
전체		(1000)	17.2	25.6	11.0	0.6	0.5	0.2	0.7	15.1	29.1	100.0
성별	남성	(493)	19.1	27.0	12.2	0.6	0.4	0.0	0.8	18.1	21.9	100.0
	여성	(507)	15.4	24.3	9.9	0.6	0.6	0.4	0.6	12.2	36.1	100.0
연령	19~29세 이하	(137)	19.0	11.7	17.5	0.7	0.0	0.7	0.0	19.0	31.4	100.0
	30대	(153)	12.4	19.6	11.1	0.7	1.3	0.0	2.0	13.7	39.2	100.0
	40대	(175)	12.6	17.7	11.4	0.0	0.0	0.6	1.1	18.9	37.7	100.0
	50대	(198)	15.2	30.3	10.6	1.0	0.5	0.0	0.5	16.7	25.3	100.0
	60대 이상	(337)	22.3	35.3	8.3	0.6	0.6	0.0	0.3	11.3	21.4	100.0
지역	서울	(186)	15.6	25.8	12.9	1.1	2.2	0.5	0.5	12.9	28.5	100.0
	경기/인천	(324)	16.4	25.6	10.8	0.0	0.3	0.0	0.9	16.7	29.3	100.0
	대전/충청	(106)	17.9	23.6	8.5	0.9	0.0	0.0	1.9	17.0	30.2	100.0
	대구/경북	(96)	16.7	21.9	8.3	0.0	0.0	0.0	0.0	22.9	30.2	100.0
	부산/울산/경남	(148)	16.9	23.0	17.6	0.0	0.0	0.0	0.0	12.8	29.7	100.0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24.5 14.3	32.7 31.0	6.1 4.8	1.0 4.8	0.0 0.0	1.0 0.0	1.0 0.0	10.2 9.5	23.5 35.7	100.0 100.0
직업	자영업	(65)	29.2	27.7	10.8	0.0	1.5	0.0	0.0	10.8	20.0	100.0
	블루칼라	(144)	16.7	26.4	10.4	1.4	0.7	0.0	2.8	18.8	22.9	100.0
	화이트칼라	(384)	14.6	23.7	12.2	1.0	0.5	0.3	0.3	14.6	32.8	100.0
	가정주부	(168)	19.6	29.8	7.7	0.0	0.6	0.0	0.6	12.5	29.2	100.0
	학생	(51)	19.6	7.8	21.6	0.0	0.0	2.0	0.0	19.6	29.4	100.0
	무직/기타 /무응답	(188)	16.0	29.3	9.0	0.0	0.0	0.0	0.5	16.0	29.3	100.0
소득수준	상	(146)	20.5	27.4	17.8	0.7	2.7	0.0	1.4	8.9	20.5	100.0
	중	(416)	16.8	28.6	8.9	0.5	0.2	0.2	0.7	11.5	32.5	100.0
	하	(403)	17.4	23.1	11.2	0.7	0.0	0.2	0.5	20.6	26.3	100.0
	무응답	(35)	5.7	11.4	5.7	0.0	0.0	0.0	0.0	20.0	57.1	100.0
이념성향	보수	(221)	26.2	23.5	12.2	0.9	0.9	0.0	0.0	10.4	25.8	100.0
	중도	(424)	15.8	25.0	10.4	0.5	0.5	0.0	1.2	16.7	30.0	100.0
	진보	(249)	15.7	35.3	13.7	0.8	0.4	0.4	0.0	11.6	22.1	100.0
	잘 모르겠음	(106)	7.5	9.4	4.7	0.0	0.0	0.9	1.9	26.4	49.1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61.4	15.8	1.2	0.6	0.0	0.6	0.0	7.0	13.5	100.0
	천주교(가톨릭)	(79)	6.3	68.4	5.1	0.0	0.0	0.0	0.0	5.1	15.2	100.0
	불교	(140)	8.6	21.4	22.9	2.1	0.7	0.0	0.0	5.0	39.3	100.0
	기타 종교	(11)	18.2	36.4	9.1	0.0	0.0	0.0	18.2	9.1	9.1	100.0
	무종교	(599)	8.0	23.5	11.9	0.3	0.7	0.2	0.8	21.2	33.4	100.0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35.8	30.4	8.2	1.3	0.3	0.3	0.6	4.1	19.0	100.0
	중요하지 않음	(85)	12.9	22.4	15.3	0.0	0.0	0.0	0.0	12.9	36.5	100.0
	무종교	(599)	8.0	23.5	11.9	0.3	0.7	0.2	0.8	21.2	33.4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56.3	16.3	6.8	1.6	0.0	0.0	0.0	4.2	14.7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7.7	29.3	12.2	0.4	0.7	0.3	0.8	18.0	30.6	100.0
	잘 모르겠음	(56)	12.5	7.1	8.9	0.0	0.0	0.0	1.8	12.5	57.1	100.0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9.8	37.4	11.9	0.4	0.4	0.2	0.8	13.8	25.3	100.0
	보수	(114)	47.4	13.2	7.9	1.8	0.0	0.0	0.9	9.6	19.3	100.0
	중도	(301)	17.3	15.3	9.0	0.7	0.7	0.3	0.7	17.6	38.5	100.0
	진보	(31)	25.8	25.8	22.6	0.0	0.0	0.0	0.0	9.7	16.1	100.0
	극좌	(83)	14.5	13.3	13.3	0.0	1.2	0.0	0.0	22.9	34.9	100.0

IV.

한국교회 평가

1.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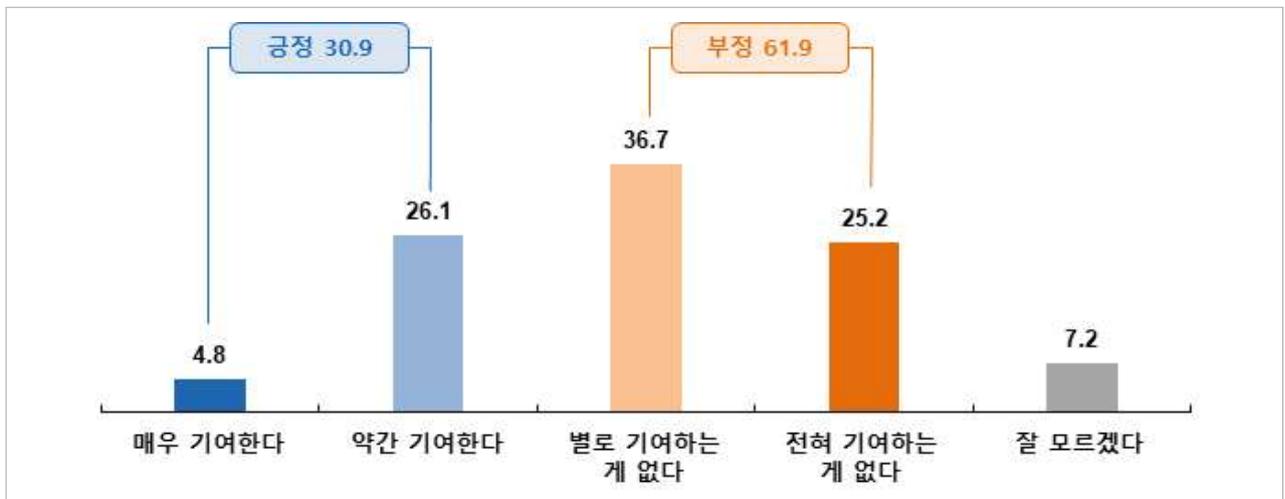
질문

Q.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기여한다(약간+매우 기여한다)'는 30.9%로 나타났으며, '기여하지 않는다(별로+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61.9%로 조사되었다. 부정적 평가는 긍정적 평가의 약 두 배 수준에 달했다.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기여한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종교별 인식을 살펴보면, 기독교인은 71.3%가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천주교인은 38.0%, 불교인은 22.1%, 무종교인은 20.4%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종교 집단 간 인식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 한편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기여한다'는 응답이 6.8%p 상승해,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Base=전체, N=1000, %)



[그림] 과거 차수의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Base=전체,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한다	약간 기여한다	별로 기여하는 기여 없다	전혀 기여하는 기여 없다	잘 모르겠다	계	기여한다	기여하지 않는다
전체		(1000)	4.8	26.1	36.7	25.2	7.2	100.0	30.9	61.9
성별	남성	(493)	4.7	27.6	35.9	27.4	4.5	100.0	32.3	63.3
	여성	(507)	4.9	24.7	37.5	23.1	9.9	100.0	29.6	60.6
연령	19~29세 이하	(137)	3.6	26.3	26.3	33.6	10.2	100.0	29.9	59.9
	30대	(153)	4.6	19.6	32.7	32.0	11.1	100.0	24.2	64.7
	40대	(175)	4.0	22.3	39.4	25.7	8.6	100.0	26.3	65.1
	50대	(198)	4.0	20.7	40.9	27.3	7.1	100.0	24.7	68.2
	60대 이상	(337)	6.2	34.1	38.9	17.2	3.6	100.0	40.4	56.1
지역	서울	(186)	5.4	30.6	36.6	22.6	4.8	100.0	36.0	59.1
	경기/인천	(324)	4.9	25.3	35.2	27.8	6.8	100.0	30.2	63.0
	대전/충청	(106)	1.9	21.7	41.5	27.4	7.5	100.0	23.6	68.9
	대구/경북	(96)	5.2	28.1	34.4	21.9	10.4	100.0	33.3	56.3
	부산/울산/경남	(148)	5.4	23.0	39.2	23.6	8.8	100.0	28.4	62.8
	광주/전라	(98)	5.1	27.6	37.8	26.5	3.1	100.0	32.7	64.3
	강원/제주	(42)	4.8	26.2	31.0	21.4	16.7	100.0	31.0	52.4
직업	자영업	(65)	4.6	26.2	40.0	24.6	4.6	100.0	30.8	64.6
	블루칼라	(144)	2.8	27.8	36.1	29.2	4.2	100.0	30.6	65.3
	화이트칼라	(384)	5.5	22.4	39.6	25.8	6.8	100.0	27.9	65.4
	가정주부	(168)	5.4	29.2	37.5	20.2	7.7	100.0	34.5	57.7
	학생	(51)	3.9	31.4	19.6	33.3	11.8	100.0	35.3	52.9
	무직/기타 /무응답	(188)	4.8	28.2	34.0	23.4	9.6	100.0	33.0	57.4
소득수준	상	(146)	5.5	28.1	32.9	26.0	7.5	100.0	33.6	58.9
	중	(416)	5.3	26.0	35.8	28.4	4.6	100.0	31.3	64.2
	하	(403)	4.5	27.0	38.0	22.6	7.9	100.0	31.5	60.5
	무응답	(35)	0.0	8.6	48.6	14.3	28.6	100.0	8.6	62.9
이념성향	보수	(221)	5.4	36.2	34.8	18.6	5.0	100.0	41.6	53.4
	중도	(424)	5.4	23.6	37.5	26.7	6.8	100.0	29.0	64.2
	진보	(249)	4.8	26.9	36.5	27.7	4.0	100.0	31.7	64.3
	잘 모르겠음	(106)	0.9	13.2	37.7	27.4	20.8	100.0	14.2	65.1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21.1	50.3	18.1	7.6	2.9	100.0	71.3	25.7
	천주교(가톨릭)	(79)	0.0	38.0	36.7	22.8	2.5	100.0	38.0	59.5
	불교	(140)	0.7	21.4	43.6	24.3	10.0	100.0	22.1	67.9
	기타 종교	(11)	9.1	27.3	27.3	27.3	9.1	100.0	36.4	54.5
	무종교	(599)	1.7	18.7	40.6	30.7	8.3	100.0	20.4	71.3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11.4	42.1	27.2	13.6	5.7	100.0	53.5	40.8
	중요하지 않음	(85)	2.4	18.8	44.7	29.4	4.7	100.0	21.2	74.1
	무종교	(599)	1.7	18.7	40.6	30.7	8.3	100.0	20.4	71.3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20.0	57.4	16.3	3.7	2.6	100.0	77.4	20.0
	신뢰하지 않음	(754)	1.2	18.6	43.8	31.2	5.3	100.0	19.8	74.9
	잘 모르겠음	(56)	1.8	21.4	10.7	17.9	48.2	100.0	23.2	28.6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2.8	25.1	35.9	31.2	5.1	100.0	27.8	67.1
	보수	(114)	11.4	41.2	31.6	12.3	3.5	100.0	52.6	43.9
	중도	(301)	5.0	23.9	38.2	21.9	11.0	100.0	28.9	60.1
	진보	(31)	3.2	29.0	45.2	22.6	0.0	100.0	32.3	67.7
	극좌	(83)	7.2	18.1	39.8	21.7	13.3	100.0	25.3	61.4

2.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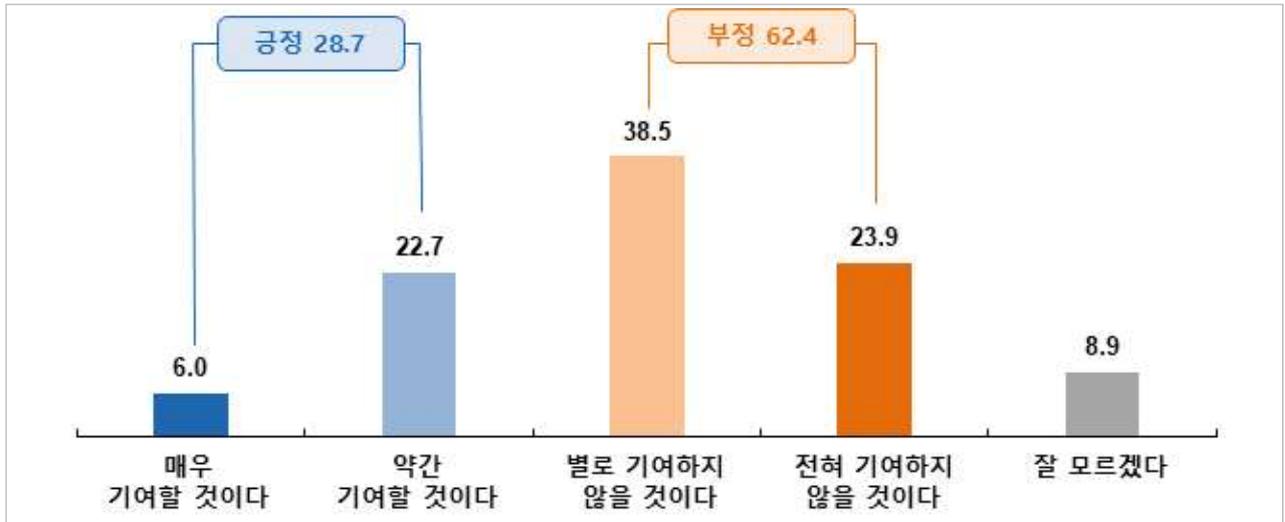
질문

Q.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본 결과, '기여할 것이다'(약간+매우 기여할 것이다)는 28.7%로 나타났으며,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별로+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는 62.4%로,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긍정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아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인식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20대에서도 2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30~50대보다 오히려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 특히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77.4%가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2023년도에 비해 3.5%p 긍정의 비율이 높아져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 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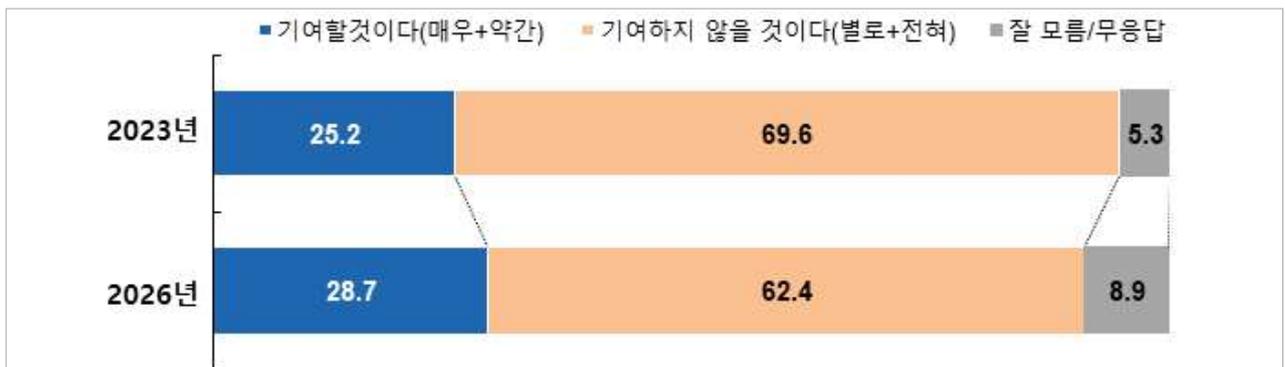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Base=전체, N=1000, %)



[그림] 과거 차수의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Base=전체,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할 것이다	약간 기여할 것이다	별로 기여하 지 않 것이다	기여 할 것 이 아 니 다	전혀 기여 하 지 않 다	잘 모 르 겠 다	계	기 여 하 지 않 다	기 여 하 지 않 다
전체		(1000)	6.0	22.7	38.5	23.9	8.9	100.0	28.7	62.4	
성별	남성	(493)	6.5	23.5	38.7	26.2	5.1	100.0	30.0	64.9	
	여성	(507)	5.5	21.9	38.3	21.7	12.6	100.0	27.4	60.0	
연령	19~29세 이하	(137)	7.3	21.9	23.4	33.6	13.9	100.0	29.2	56.9	
	30대	(153)	5.2	18.3	32.0	29.4	15.0	100.0	23.5	61.4	
	40대	(175)	4.6	18.9	44.6	22.9	9.1	100.0	23.4	67.4	
	50대	(198)	4.5	19.7	43.9	24.7	7.1	100.0	24.2	68.7	
	60대 이상	(337)	7.4	28.8	41.2	17.5	5.0	100.0	36.2	58.8	
지역	서울	(186)	7.5	21.5	37.1	26.9	7.0	100.0	29.0	64.0	
	경기/인천	(324)	6.2	23.1	38.0	24.1	8.6	100.0	29.3	62.0	
	대전/충청	(106)	3.8	21.7	41.5	22.6	10.4	100.0	25.5	64.2	
	대구/경북	(96)	6.3	24.0	38.5	19.8	11.5	100.0	30.2	58.3	
	부산/울산/경남	(148)	5.4	21.6	43.2	20.3	9.5	100.0	27.0	63.5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6.1 4.8	24.5 23.8	34.7 33.3	27.6 26.2	7.1 11.9	100.0 100.0	30.6 28.6	62.2 59.5	
직업	자영업	(65)	7.7	18.5	41.5	24.6	7.7	100.0	26.2	66.2	
	블루칼라	(144)	3.5	27.8	36.8	26.4	5.6	100.0	31.3	63.2	
	화이트칼라	(384)	6.3	21.1	40.6	24.7	7.3	100.0	27.3	65.4	
	가정주부	(168)	6.0	25.0	39.3	18.5	11.3	100.0	31.0	57.7	
	학생	(51)	9.8	23.5	15.7	35.3	15.7	100.0	33.3	51.0	
	무직/기타 /무응답	(188)	5.9	21.3	39.9	21.8	11.2	100.0	27.1	61.7	
소득수준	상	(146)	6.2	23.3	33.6	27.4	9.6	100.0	29.5	61.0	
	중	(416)	6.3	23.1	39.2	25.7	5.8	100.0	29.3	64.9	
	하	(403)	6.2	23.3	40.0	20.6	9.9	100.0	29.5	60.5	
	무응답	(35)	0.0	8.6	34.3	25.7	31.4	100.0	8.6	60.0	
이념성향	보수	(221)	7.7	31.2	34.4	20.8	5.9	100.0	38.9	55.2	
	중도	(424)	5.9	20.0	42.5	22.9	8.7	100.0	25.9	65.3	
	진보	(249)	6.8	24.5	34.5	27.7	6.4	100.0	31.3	62.2	
	잘 모르겠음	(106)	0.9	11.3	40.6	25.5	21.7	100.0	12.3	66.0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26.3	43.3	19.3	7.0	4.1	100.0	69.6	26.3	
	천주교(가톨릭)	(79)	0.0	34.2	38.0	22.8	5.1	100.0	34.2	60.8	
	불교	(140)	1.4	20.0	42.9	22.1	13.6	100.0	21.4	65.0	
	기타 종교	(11)	0.0	18.2	54.5	18.2	9.1	100.0	18.2	72.7	
	무종교	(599)	2.2	16.0	42.7	29.4	9.7	100.0	18.2	72.1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14.2	35.4	28.8	13.3	8.2	100.0	49.7	42.1	
	중요하지 않음	(85)	2.4	22.4	44.7	24.7	5.9	100.0	24.7	69.4	
	무종교	(599)	2.2	16.0	42.7	29.4	9.7	100.0	18.2	72.1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26.3	51.1	14.2	4.2	4.2	100.0	77.4	18.4	
	신뢰하지 않음	(754)	1.3	16.2	46.3	29.0	7.2	100.0	17.5	75.3	
	잘 모르겠음	(56)	0.0	14.3	16.1	21.4	48.2	100.0	14.3	37.5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3.2	19.5	40.1	28.9	8.3	100.0	22.7	69.0	
	보수	(114)	15.8	39.5	30.7	10.5	3.5	100.0	55.3	41.2	
	중도	(301)	6.6	22.6	39.2	19.9	11.6	100.0	29.2	59.1	
	진보	(31)	6.5	19.4	51.6	22.6	0.0	100.0	25.8	74.2	
	극좌	(83)	6.0	19.3	32.5	28.9	13.3	100.0	25.3	61.4	

3. 한국교회 이미지(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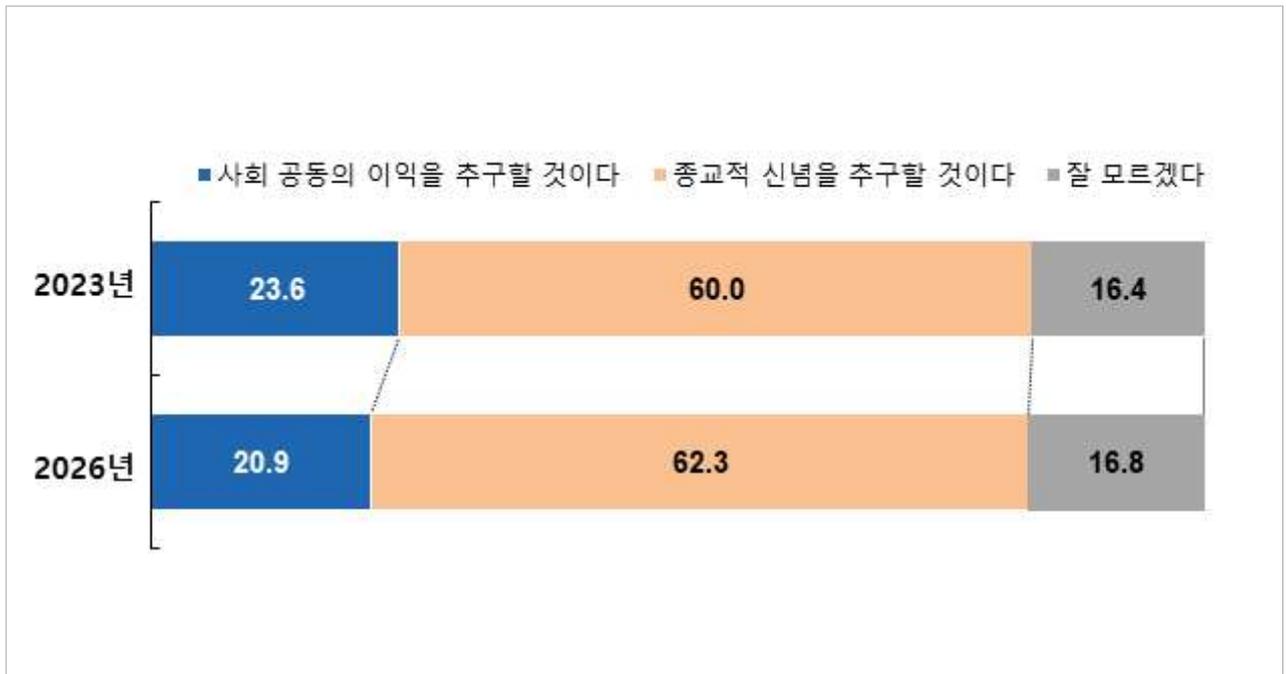
질문

Q. 귀하께서는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할 것 같습니까? (단수응답)

- 국민에게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사회 공동의 이익 추구'와 '종교적 신념 추구' 중 하나로 선택하도록 물은 결과, 62.3%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종교적 신념을 추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9%에 그쳤다.
-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교회가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종교적 신념을 우선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이미지'가 고연령층일수록 더 짙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19~29세를 제외한 젊은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교회를 사회 기여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 기독교인 응답자 역시 한국교회가 '종교적 신념을 추구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보다 더 많이 선택해, 내부 인식에서도 교회의 이미지가 종교적 신념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보다 '종교적 신념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2.7%p 상승해, 한국교회에 대한 배타적 이미지가 소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교회 이미지(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Base=전체,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교회 이미지(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 분		사 례 수 (명)	사 회 공 동 의 이 익 을 추 구 할 것 이 다	종 교 적 신 념 을 추 구 할 것 이 다	잘 모 르 겠 다	계
전 체		(1000)	20.9	62.3	16.8	100.0
성 별	남 성	(493)	21.3	62.1	16.6	100.0
	여 성	(507)	20.5	62.5	17.0	100.0
연 령	19~29세 이 하	(137)	24.8	50.4	24.8	100.0
	30대	(153)	27.5	54.9	17.6	100.0
	40대	(175)	24.0	54.3	21.7	100.0
	50대	(198)	16.7	67.2	16.2	100.0
	60대 이 상	(337)	17.2	71.8	11.0	100.0
지 역	서울	(186)	22.6	58.6	18.8	100.0
	경기/인천	(324)	23.8	58.0	18.2	100.0
	대전/충청	(106)	17.0	64.2	18.9	100.0
	대구/경북	(96)	19.8	65.6	14.6	100.0
	부산/울산/경남	(148)	19.6	62.8	17.6	100.0
	광주/전라	(98)	17.3	72.4	10.2	100.0
	강원/제주	(42)	16.7	73.8	9.5	100.0
직 업	자영업	(65)	20.0	70.8	9.2	100.0
	블루칼라	(144)	18.8	68.1	13.2	100.0
	화이트칼라	(384)	27.1	55.5	17.4	100.0
	가정주부	(168)	16.7	68.5	14.9	100.0
	학생	(51)	27.5	52.9	19.6	100.0
	무직/기타 /무응답	(188)	12.2	66.0	21.8	100.0
소 득 수 준	상	(146)	28.1	62.3	9.6	100.0
	중	(416)	20.4	62.5	17.1	100.0
	하	(403)	20.1	64.3	15.6	100.0
	무응답	(35)	5.7	37.1	57.1	100.0
이 념 성 향	보수	(221)	23.5	64.3	12.2	100.0
	중도	(424)	17.7	66.0	16.3	100.0
	진보	(249)	24.1	65.1	10.8	100.0
	잘 모 르 겠 음	(106)	20.8	36.8	42.5	100.0
종 교	기독교(개신교)	(171)	20.5	71.3	8.2	100.0
	천주교(가톨릭)	(79)	22.8	59.5	17.7	100.0
	불교	(140)	24.3	57.9	17.9	100.0
	기타 종교	(11)	9.1	90.9	0.0	100.0
	무종교	(599)	20.2	60.6	19.2	100.0
삶 에 서 종 교 의 중 요 성	중요	(316)	19.6	68.4	12.0	100.0
	중요 하지 않 음	(85)	30.6	51.8	17.6	100.0
	무종교	(599)	20.2	60.6	19.2	100.0
한 국 교 회 신 려 도	신뢰	(190)	25.3	67.9	6.8	100.0
	신뢰 하지 않 음	(754)	19.6	63.0	17.4	100.0
	잘 모 르 겠 음	(56)	23.2	33.9	42.9	100.0
한 국 교 회 이 념 적 성 향 평 가	극우	(471)	16.1	69.9	14.0	100.0
	보수	(114)	28.1	62.3	9.6	100.0
	중도	(301)	22.6	52.8	24.6	100.0
	진보	(31)	32.3	58.1	9.7	100.0
	극좌	(83)	27.7	55.4	16.9	100.0

4. 한국교회 및 기독교인 이미지(언론 보도 vs. 개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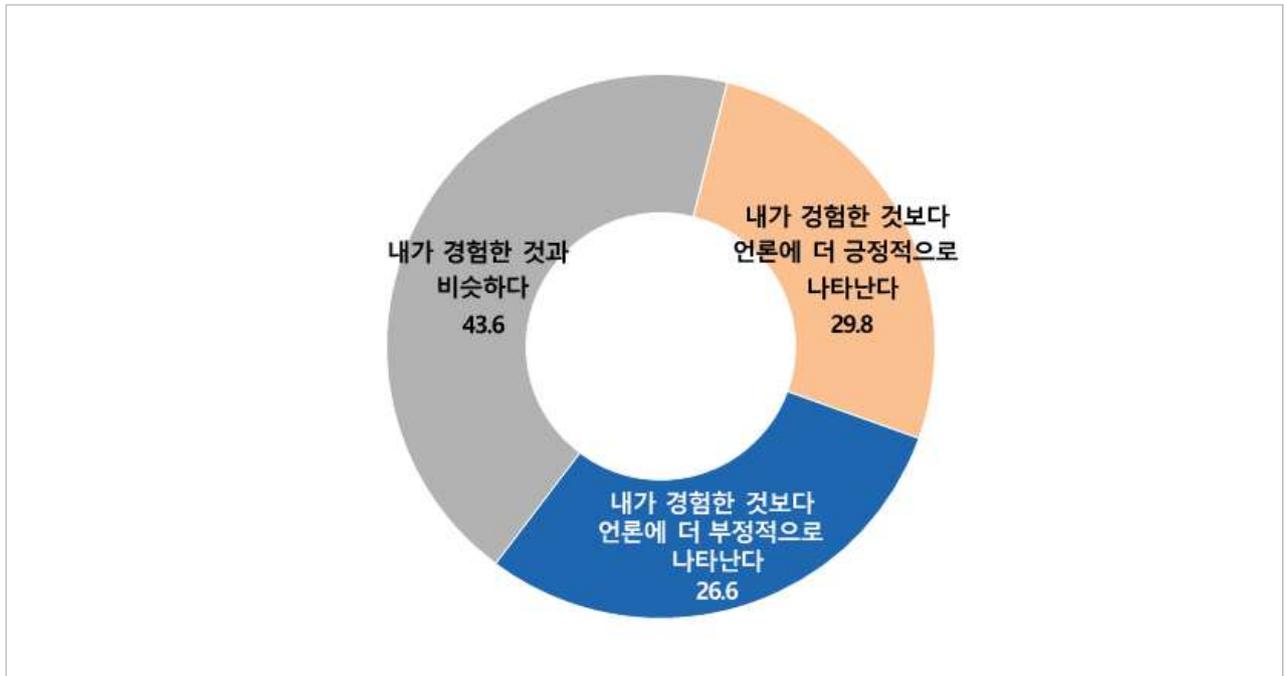
질문

Q. 언론에 비춰진 한국교회/기독교인의 모습과 실제 생활하시면서 접하신 한국교회/기독교인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언론 보도와 개인 경험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지를 물은 결과,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내가 경험한 것보다 언론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응답이 29.8%, '내가 경험한 것보다 언론에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응답은 26.6%였다.
- 기독교인 응답자의 경우, '언론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평가가 56.7%로 절반을 넘겨, 언론 보도가 실제보다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 반면 타종교인과 무종교인 집단에서는 '언론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부정적이다'는 응답보다 '언론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인 집단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언론 탓으로만 하는 기독교인의 인식과 실제로 사회 일반이 체감하는 경험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있음을 이번 결과가 보였다. 이는 기독교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언론 대응만큼 실제 삶과 현장에서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한국교회/기독교인 이미지(언론 보도 vs. 개인 경험)

(Base=전체, N=1000, %)



*2026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교회/기독교인 이미지(언론 보도 vs. 개인 경험)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내가 경험한 것보다 언론에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언론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계
전체		(1000)	26.6	43.6	29.8	100.0
성별	남성	(493)	26.2	42.8	31.0	100.0
	여성	(507)	27.0	44.4	28.6	100.0
연령	19~29세 이하	(137)	24.1	51.8	24.1	100.0
	30대	(153)	17.6	52.9	29.4	100.0
	40대	(175)	26.9	42.9	30.3	100.0
	50대	(198)	24.7	42.9	32.3	100.0
	60대 이상	(337)	32.6	36.8	30.6	100.0
지역	서울	(186)	24.7	42.5	32.8	100.0
	경기/인천	(324)	27.5	42.0	30.6	100.0
	대전/충청	(106)	23.6	38.7	37.7	100.0
	대구/경북	(96)	26.0	50.0	24.0	100.0
	부산/울산/경남	(148)	29.1	46.6	24.3	100.0
	광주/전라	(98)	27.6	42.9	29.6	100.0
	강원/제주	(42)	26.2	50.0	23.8	100.0
직업	자영업	(65)	30.8	40.0	29.2	100.0
	블루칼라	(144)	24.3	41.7	34.0	100.0
	화이트칼라	(384)	27.1	43.8	29.2	100.0
	가정주부	(168)	33.3	40.5	26.2	100.0
	학생	(51)	23.5	54.9	21.6	100.0
	무직/기타 /무응답	(188)	20.7	45.7	33.5	100.0
소득수준	상	(146)	28.1	41.1	30.8	100.0
	중	(416)	25.0	45.7	29.3	100.0
	하	(403)	28.3	41.7	30.0	100.0
	무응답	(35)	20.0	51.4	28.6	100.0
이념성향	보수	(221)	32.1	41.2	26.7	100.0
	중도	(424)	25.9	44.1	30.0	100.0
	진보	(249)	26.5	44.2	29.3	100.0
	잘 모르겠음	(106)	17.9	45.3	36.8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56.7	32.7	10.5	100.0
	천주교(가톨릭)	(79)	26.6	45.6	27.8	100.0
	불교	(140)	23.6	44.3	32.1	100.0
	기타 종교	(11)	27.3	45.5	27.3	100.0
	무종교	(599)	18.7	46.2	35.1	100.0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40.8	41.5	17.7	100.0
	중요하지 않음	(85)	29.4	32.9	37.6	100.0
	무종교	(599)	18.7	46.2	35.1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50.0	38.4	11.6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21.6	44.2	34.2	100.0
	잘 모르겠음	(56)	14.3	53.6	32.1	100.0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24.4	42.5	33.1	100.0
	보수	(114)	36.8	41.2	21.9	100.0
	중도	(301)	26.6	49.2	24.3	100.0
	진보	(31)	19.4	48.4	32.3	100.0
	극좌	(83)	27.7	31.3	41.0	100.0

5.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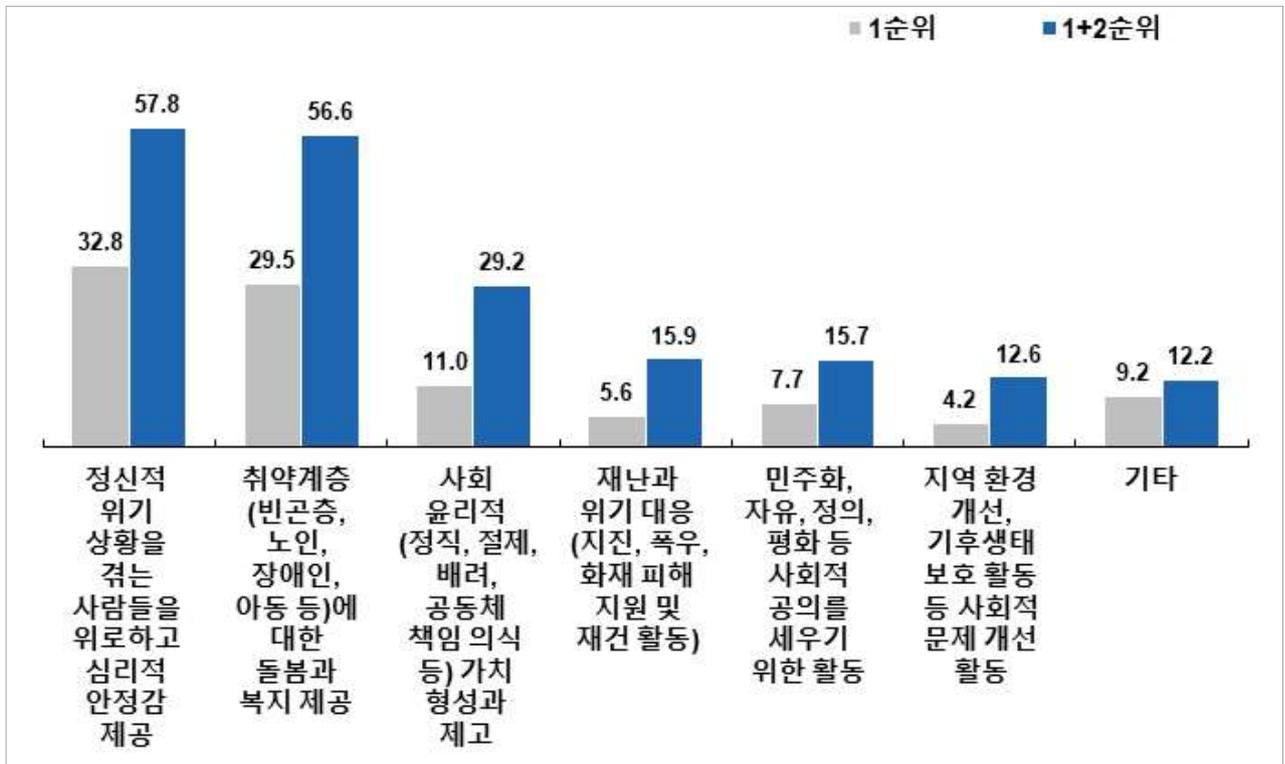
질문

Q.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이바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한 영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신적 위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과 복지 제공'이 56.6%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돌봄과 위로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사회 기여로 인식되고 있다.
- 그 다음으로는 '사회윤리적 가치(정직, 절제, 배려, 공동체 책임 의식 등) 형성과 제고'가 29.2%로 나타났고, '재난과 위기 대응' 15.9%, '민주화·자유·정의·평화 등 사회적 공의를 세우기 위한 활동'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1+2순위 기준).
- 한편 기독교인의 경우 '사회윤리적 가치 형성과 제고'를 기여 영역으로 선택한 비율이 42.7%로 나타나, 타 종교 응답자의 약 20%대 응답률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회윤리적 가치에 대한 기독교의 기여 인식이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복지 등 직접적 봉사 영역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되는 반면, 재난 대응이나 정치·사회 구조적 영역에서는 기여 인식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한 영역

(Base=전체, N=1000, %)



*2026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한 영역_1+2순위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정신 상황 안정	신앙 심리 감	적응 능력 감	우려 감 감	기 타	취 업 안 정	약 자 에 대 한 공 공 의 의 의	총 노 력 에 대 한 지 지 의 의	회 정 배 치 의 의 의	사 회 적 체 제 의 의 의	이 동 성 의 의	재 난 대 응 의 의	위 기 재 원 의 의	자 립 성 의 의	민 중 의 의 의	화 합 의 의	지 역 개 발 의 의	환 영 의 의	기 타
전체		(1000)	57.8	56.6	29.2	15.9	15.7	12.6	12.2												
성별	남성	(493)	56.2	56.0	30.8	13.6	18.5	12.6	12.4												
	여성	(507)	59.4	57.2	27.6	18.1	13.0	12.6	12.0												
연령	19~29세 이하	(137)	59.1	54.0	27.7	19.0	18.2	12.4	9.5												
	30대	(153)	63.4	58.2	23.5	15.0	15.0	9.8	15.0												
	40대	(175)	62.3	54.9	21.7	16.0	12.0	13.7	19.4												
	50대	(198)	54.5	55.1	31.8	15.2	14.1	17.2	12.1												
	60대 이상	(337)	54.3	58.8	34.7	15.4	17.8	10.7	8.3												
지역	서울	(186)	61.8	58.1	22.6	21.5	12.4	9.1	14.5												
	경기/인천	(324)	55.2	54.9	30.9	16.4	14.2	14.2	14.2												
	대전/충청	(106)	52.8	60.4	27.4	14.2	22.6	10.4	12.3												
	대구/경북	(96)	54.2	60.4	33.3	16.7	11.5	12.5	11.5												
	부산/울산/경남	(148)	63.5	54.7	31.1	11.5	19.6	11.5	8.1												
	광주/전라	(98)	59.2	52.0	29.6	11.2	16.3	19.4	12.2												
	강원/제주	(42)	57.1	61.9	33.3	16.7	19.0	9.5	2.4												
직업	자영업	(65)	58.5	63.1	24.6	10.8	21.5	12.3	9.2												
	블루칼라	(144)	53.5	54.9	36.1	14.6	14.6	16.0	10.4												
	화이트칼라	(384)	59.4	57.3	22.9	16.9	15.4	13.0	15.1												
	가정주부	(168)	57.7	57.7	32.7	17.3	13.1	13.1	8.3												
	학생	(51)	52.9	56.9	35.3	21.6	21.6	9.8	2.0												
	무직/기타 /무응답	(188)	59.0	53.2	33.5	13.8	16.0	9.6	14.9												
소득수준	상	(146)	54.8	60.3	28.1	19.2	15.1	11.6	11.0												
	중	(416)	53.6	56.3	29.3	15.6	16.8	16.6	11.8												
	하	(403)	62.3	56.6	30.3	15.6	14.4	8.9	11.9												
	무응답	(35)	68.6	45.7	20.0	8.6	20.0	11.4	25.7												
이념성향	보수	(221)	54.8	57.9	35.3	14.5	20.4	12.7	4.5												
	중도	(424)	58.3	56.8	28.5	17.2	13.2	12.5	13.4												
	진보	(249)	57.8	55.8	26.5	15.3	18.1	13.7	12.9												
	잘 모르겠음	(106)	62.3	54.7	25.5	15.1	10.4	10.4	21.7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47.4	63.7	42.7	12.9	21.1	9.9	2.3												
	천주교(가톨릭)	(79)	44.3	70.9	24.1	19.0	12.7	15.2	13.9												
	불교	(140)	58.6	52.9	28.6	10.7	17.9	22.1	9.3												
	기타 종교	(11)	63.6	54.5	27.3	27.3	9.1	9.1	9.1												
	무종교	(599)	62.3	53.6	26.2	17.4	14.2	10.9	15.5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50.6	62.0	34.8	14.2	18.7	14.2	5.4												
	중요하지 않음	(85)	52.9	57.6	29.4	11.8	15.3	18.8	14.1												
	무종교	(599)	62.3	53.6	26.2	17.4	14.2	10.9	15.5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47.9	56.3	42.1	13.7	22.1	15.3	2.6												
	신뢰하지 않음	(754)	59.7	57.2	25.6	16.6	14.3	12.5	14.2												
	잘 모르겠음	(56)	66.1	50.0	33.9	14.3	12.5	5.4	17.9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58.0	60.7	26.5	15.1	13.2	11.0	15.5												
	보수	(114)	52.6	55.3	36.0	14.9	21.9	11.4	7.9												
	중도	(301)	59.8	52.2	30.2	15.6	16.9	14.3	11.0												
	진보	(31)	64.5	51.6	29.0	22.6	19.4	6.5	6.5												
	극좌	(83)	54.2	53.0	31.3	20.5	15.7	19.3	6.0												

6.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해야 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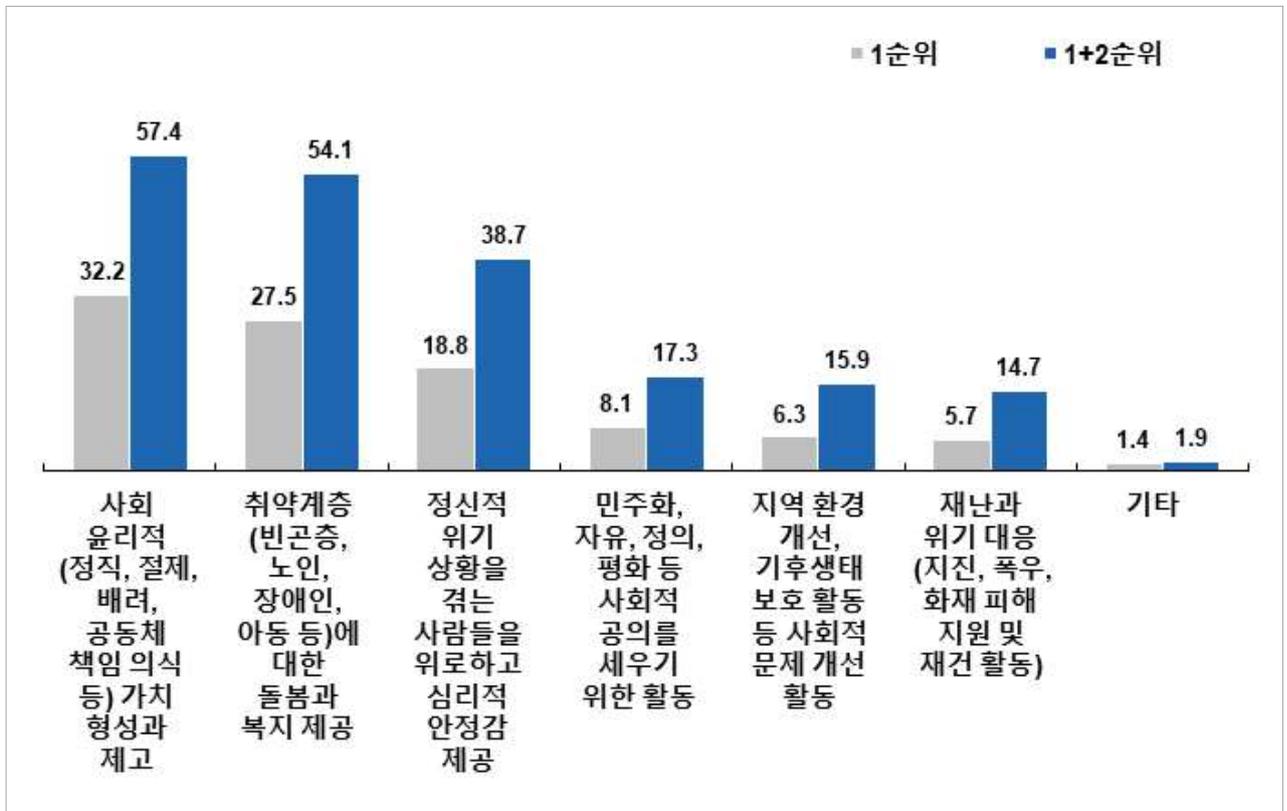
질문

Q.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이바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한국교회가 향후 한국사회에 기여해야 할 영역을 묻은 결과, '사회윤리적 가치(정직, 절제, 배려, 공동체 책임 의식 등) 형성과 제고'가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과 복지 제공' 54.1%, '정신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심리적 안정감 제공' 38.7%, '민주화, 자유, 정의, 평화 등 사회적 공의를 세우기 위한 활동' 17.3% 등의 순이었다.
- 현재 한국교회가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영역인 취약계층 돌봄과 심리적 위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여 인식이 낮았던 '사회윤리적 가치 형성과 제고'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 이는 국민들이 이미 일정 수준 충족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영역보다, 현재 한국교회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영역에 대해 더 강한 개선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리하면 한국 사회는 한국교회가 기존에 수행해 온 돌봄과 위로의 역할을 지속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사회 윤리적 가치형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역할 수행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해야 할 영역

(Base=전체, N=1000, %)



* 2026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해야 할 영역_1+2순위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사회적 책임 이행	회계 투명성 제고	직권 남용 방지	취업 기회 확대	약자 보호	계몽 운동	빈민 구제	정신 위안	신앙 생활	적극 참여	기타	민중 참여	주요 정책	지역 개발	환경 개선	재난 구호	과거 지원	위험 지대	기타
전체	(1000)	57.4	54.1	38.7	17.3	15.9	14.7	1.9												
성별	남성	(493)	58.6	53.5	37.5	19.3	15.2	13.0	2.8											
	여성	(507)	56.2	54.6	39.8	15.4	16.6	16.4	1.0											
연령	19~29세 이하	(137)	43.8	48.9	28.5	16.8	35.0	23.4	3.6											
	30대	(153)	57.5	54.9	36.6	20.3	15.0	13.1	2.6											
	40대	(175)	56.0	59.4	34.9	12.6	15.4	19.4	2.3											
	50대	(198)	58.6	55.6	40.4	18.2	12.6	12.6	2.0											
	60대 이상	(337)	62.9	52.2	44.8	18.1	10.7	10.7	0.6											
지역	서울	(186)	56.5	52.7	34.4	15.1	17.2	21.0	3.2											
	경기/인천	(324)	56.8	55.6	38.6	15.1	17.3	14.8	1.9											
	대전/충청	(106)	49.1	57.5	40.6	17.9	17.0	17.0	0.9											
	대구/경북	(96)	55.2	57.3	40.6	19.8	14.6	11.5	1.0											
	부산/울산/경남	(148)	62.2	52.7	39.2	20.3	12.2	12.2	1.4											
	광주/전라	(98)	63.3	46.9	44.9	19.4	15.3	7.1	3.1											
직업	강원/제주	(42)	61.9	54.8	33.3	21.4	14.3	14.3	0.0											
	자영업	(65)	55.4	61.5	38.5	16.9	7.7	16.9	3.1											
	블루칼라	(144)	56.9	50.7	39.6	18.8	17.4	15.3	1.4											
	화이트칼라	(384)	56.3	55.5	35.9	18.2	15.9	15.9	2.3											
	가정주부	(168)	61.3	54.2	48.8	12.5	10.7	12.5	0.0											
	학생	(51)	47.1	49.0	33.3	13.7	33.3	21.6	2.0											
소득수준	무직/기타/무응답	(188)	60.1	52.7	36.2	19.7	17.6	11.2	2.7											
	상	(146)	58.2	55.5	38.4	19.2	17.1	9.6	2.1											
	중	(416)	60.1	50.7	37.5	17.8	16.6	15.6	1.7											
	하	(403)	55.8	57.3	39.7	16.6	14.6	14.6	1.2											
이념성향	무응답	(35)	40.0	51.4	42.9	11.4	17.1	25.7	11.4											
	보수	(221)	62.0	49.8	41.6	16.3	14.9	14.5	0.9											
	중도	(424)	56.6	56.1	37.7	15.8	17.9	13.7	2.1											
	진보	(249)	57.4	54.2	41.0	22.9	12.4	12.0	0.0											
종교	잘 모르겠음	(106)	50.9	54.7	31.1	12.3	17.9	25.5	7.5											
	기독교(개신교)	(171)	49.7	57.9	46.2	15.2	15.2	15.2	0.6											
	천주교(가톨릭)	(79)	60.8	60.8	39.2	17.7	12.7	7.6	1.3											
	불교	(140)	60.7	50.7	37.1	20.0	15.7	15.0	0.7											
	기타 종교	(11)	36.4	63.6	27.3	18.2	18.2	36.4	0.0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무종교	(599)	58.8	52.8	37.1	17.2	16.5	15.0	2.7											
	중요	(316)	54.4	56.3	43.0	17.4	14.6	13.6	0.6											
	중요하지 않음	(85)	58.8	55.3	34.1	17.6	16.5	16.5	1.2											
한국교회 신뢰도	중요	(599)	58.8	52.8	37.1	17.2	16.5	15.0	2.7											
	신뢰	(190)	51.6	54.2	48.4	13.7	16.8	14.7	0.5											
	신뢰하지 않음	(754)	58.8	54.5	36.9	18.0	15.4	14.3	2.1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잘 모르겠음	(56)	58.9	48.2	30.4	19.6	19.6	19.6	3.6											
	극우	(471)	61.4	53.7	37.4	21.0	13.4	11.9	1.3											
	보수	(114)	56.1	54.4	41.2	16.7	15.8	14.0	1.8											
	중도	(301)	51.2	53.2	42.2	11.6	19.9	18.6	3.3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진보	(31)	61.3	48.4	38.7	16.1	16.1	19.4	0.0											
	극좌	(83)	57.8	61.4	30.1	18.1	15.7	15.7	1.2											

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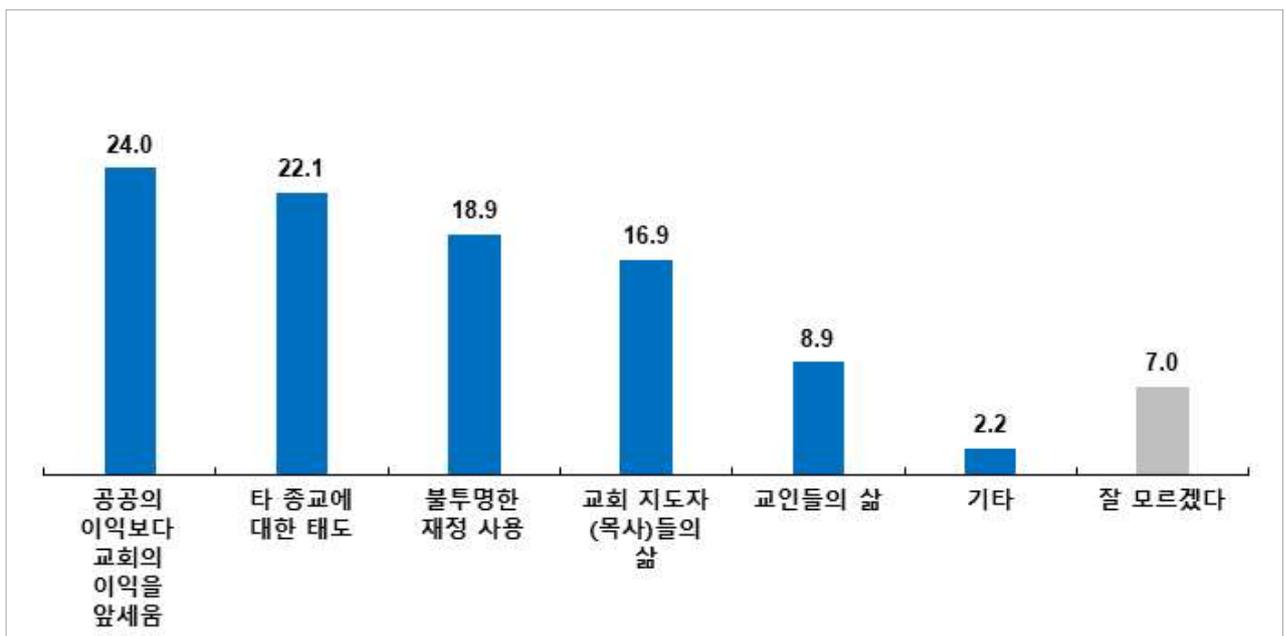
질문

Q.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응답)

-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더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응답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타 종교에 대한 태도' 22.1%, '불투명한 재정 사용' 18.9%, '교회 지도자(목사)들의 삶' 16.9%, '교인들의 삶' 8.9% 순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집단별로 보면, 기독교인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교인들의 삶'을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인식한 반면, 기독교 외 타종교인은 '타 종교에 대한 태도'를 가장 많이 지적해 한국교회의 배타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종교인은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점을 가장 큰 개선 과제로 꼽아, 교회의 이기적 이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 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에 한국교회 신뢰 저하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타 종교에 대한 태도',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인들의 삶'을 개선 과제로 지적하는 비율은 상승한 반면,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움'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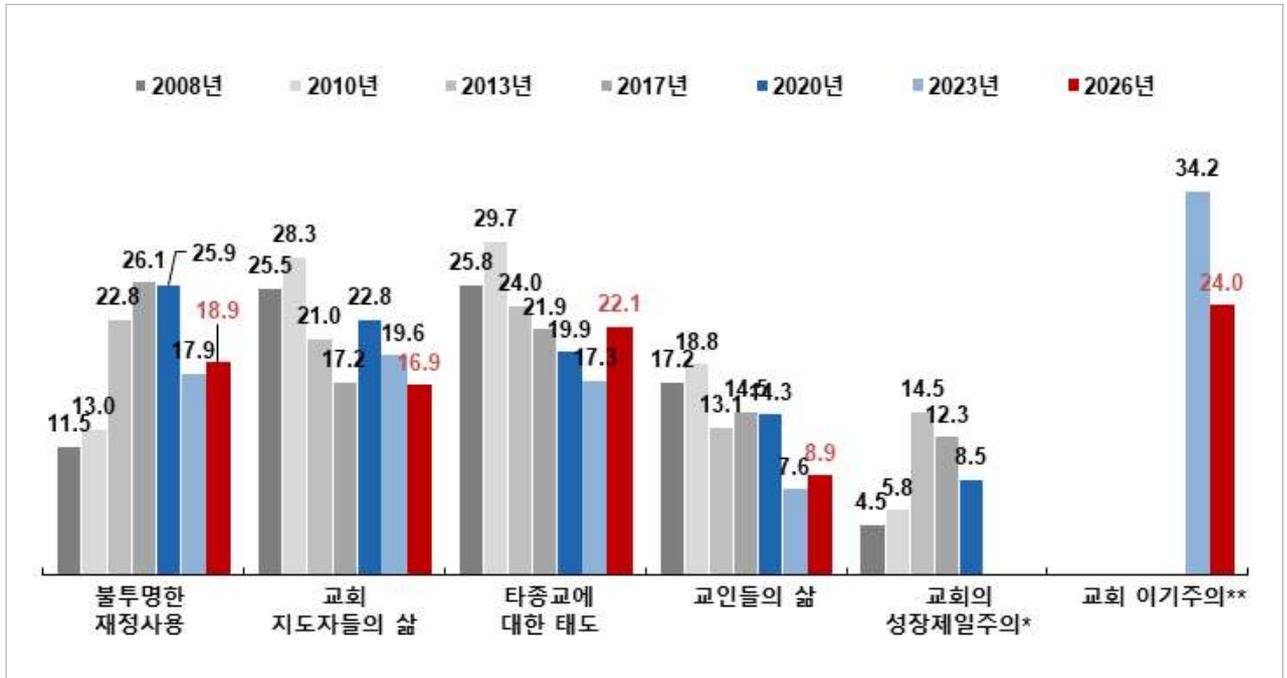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Base=전체, N=1000, %)



[그림] 과거 차수의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Base=전체, N=1000, %)



*2023년 조사부터는 '교회의 성장제일주의' 문항을 제외하고 '교회 이기주의'를 추가해서 조사함.

**2026년 조사의 보기는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움' 였음

[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공익보도의 이행의무에 관한 인식	타종교에 대한 태도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회 지도자들 (목사)의 삶	교인들의 삶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4.0	22.1	18.9	16.9	8.9	2.2	7.0	100.0
성별	남성	(493)	27.2	20.1	17.4	18.3	8.9	2.0	6.1	100.0
	여성	(507)	20.9	24.1	20.3	15.6	8.9	2.4	7.9	100.0
연령	19~29세 이하	(137)	14.6	27.7	18.2	5.1	13.9	2.9	17.5	100.0
	30대	(153)	22.2	21.6	21.6	17.0	4.6	3.3	9.8	100.0
	40대	(175)	24.6	23.4	22.9	14.3	8.6	2.3	4.0	100.0
	50대	(198)	27.8	22.7	21.7	14.6	8.1	1.5	3.5	100.0
	60대 이상	(337)	26.1	19.0	14.2	24.3	9.5	1.8	5.0	100.0
지역	서울	(186)	23.1	23.1	18.8	22.0	7.0	2.2	3.8	100.0
	경기/인천	(324)	24.4	19.8	20.7	15.4	9.3	2.5	8.0	100.0
	대전/충청	(106)	21.7	26.4	15.1	19.8	8.5	1.9	6.6	100.0
	대구/경북	(96)	24.0	25.0	20.8	12.5	8.3	1.0	8.3	100.0
	부산/울산/경남	(148)	23.6	22.3	18.2	12.8	8.8	3.4	10.8	100.0
	광주/전라	(98)	26.5	19.4	16.3	19.4	14.3	1.0	3.1	100.0
	강원/제주	(42)	26.2	23.8	19.0	16.7	4.8	2.4	7.1	100.0
직업	자영업	(65)	24.6	27.7	10.8	16.9	13.8	3.1	3.1	100.0
	블루칼라	(144)	24.3	21.5	19.4	20.8	8.3	2.1	3.5	100.0
	화이트칼라	(384)	26.0	20.3	20.8	15.9	8.6	2.6	5.7	100.0
	가정주부	(168)	21.4	19.6	20.8	19.0	10.7	2.4	6.0	100.0
	학생	(51)	13.7	31.4	19.6	7.8	11.8	2.0	13.7	100.0
	무직/기타 /무응답	(188)	24.5	23.9	15.4	16.5	5.9	1.1	12.8	100.0
소득수준	상	(146)	23.3	21.9	23.3	19.9	9.6	0.7	1.4	100.0
	중	(416)	27.2	22.1	19.0	16.1	9.4	2.2	4.1	100.0
	하	(403)	21.3	21.6	18.1	18.1	8.9	2.5	9.4	100.0
	무응답	(35)	20.0	28.6	8.6	0.0	0.0	5.7	37.1	100.0
이념성향	보수	(221)	21.3	24.0	19.9	16.3	12.7	1.4	4.5	100.0
	중도	(424)	22.6	23.6	20.0	17.2	8.0	2.1	6.4	100.0
	진보	(249)	32.9	18.5	15.7	18.5	9.6	2.4	2.4	100.0
	잘 모르겠음	(106)	14.2	20.8	19.8	13.2	2.8	3.8	25.5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17.5	6.4	16.4	28.7	25.7	2.9	2.3	100.0
	천주교(가톨릭)	(79)	22.8	29.1	24.1	19.0	2.5	1.3	1.3	100.0
	불교	(140)	20.7	35.0	17.9	14.3	3.6	1.4	7.1	100.0
	기타 종교	(11)	18.2	27.3	9.1	36.4	9.1	0.0	0.0	100.0
	무종교	(599)	26.9	22.5	19.4	13.5	6.2	2.3	9.2	100.0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18.7	18.7	19.6	22.5	15.5	1.6	3.5	100.0
	중요하지 않음	(85)	23.5	31.8	12.9	20.0	3.5	3.5	4.7	100.0
	무종교	(599)	26.9	22.5	19.4	13.5	6.2	2.3	9.2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17.9	12.1	20.0	23.2	21.1	1.6	4.2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26.5	24.0	19.5	16.0	6.2	2.1	5.6	100.0
	잘 모르겠음	(56)	10.7	30.4	7.1	7.1	3.6	5.4	35.7	100.0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27.8	24.0	19.1	16.3	6.8	2.3	3.6	100.0
	보수	(114)	20.2	15.8	24.6	21.1	11.4	1.8	5.3	100.0
	중도	(301)	21.3	20.6	16.9	14.6	12.0	2.0	12.6	100.0
	진보	(31)	19.4	29.0	16.1	16.1	12.9	6.5	0.0	100.0
극좌	(83)	19.3	22.9	18.1	22.9	4.8	1.2	10.8	100.0	

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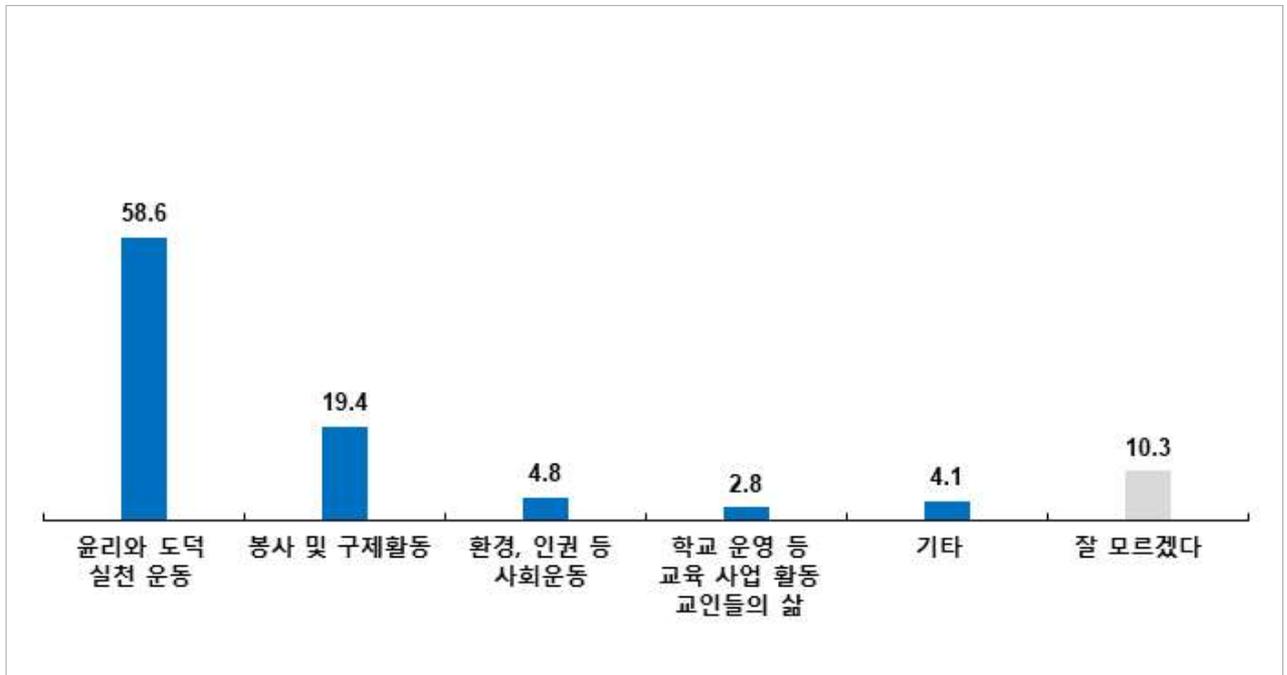
질문

Q. 그럼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활동으로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봉사 및 구제 활동’ 19.4%,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 4.8%,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4.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에 대한 요구는 과거 조사 차수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08년과 비교할 때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봉사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응답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대비로는 소폭 상승했다. 환경·인권 운동과 교육 사업 등 기타 활동에 대한 응답은 2023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대가 활동 확대보다는, 기독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윤리성과 도덕성 회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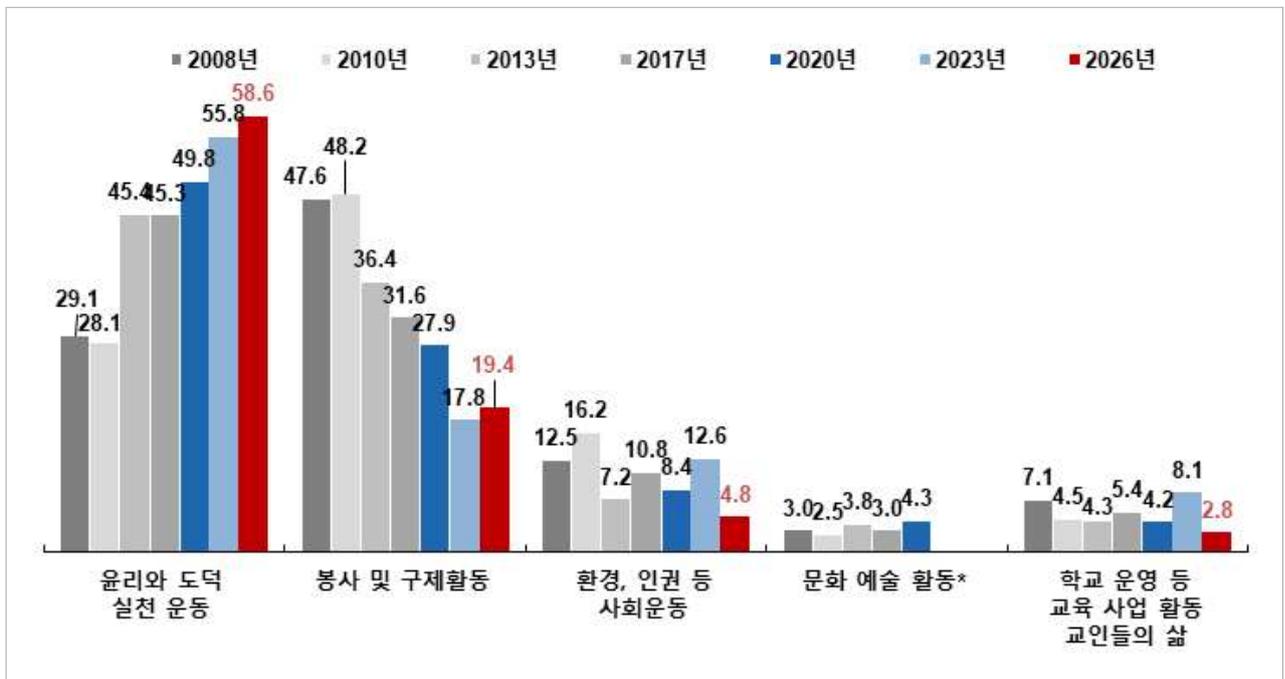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Base=전체, N=1000, %)



[그림] 과거 차수의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Base=전체, N=1000, %)



*2023년 조사부터는 '문화 예술 활동' 문항 제외하고 조사함

[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 분		사 례 수 (명)	윤 리와 도 덕 실 천 운 동	봉 사 및 구 제 활 동	환 경, 인 권 등 사 회 운 동	학 교 이 사 업 관 련 교 육 영 향	기 타	잘 모 르 겠 다	계
전 체		(1000)	58.6	19.4	4.8	2.8	4.1	10.3	100.0
성 별	남 성	(493)	60.4	18.7	3.9	3.2	5.5	8.3	100.0
	여 성	(507)	56.8	20.1	5.7	2.4	2.8	12.2	100.0
연 령	19~29세 이하	(137)	29.9	28.5	8.0	7.3	5.1	21.2	100.0
	30대	(153)	55.6	15.0	4.6	2.6	6.5	15.7	100.0
	40대	(175)	58.9	18.3	4.6	2.3	3.4	12.6	100.0
	50대	(198)	68.2	15.7	3.0	1.5	4.5	7.1	100.0
	60대 이상	(337)	65.9	20.5	4.7	2.1	2.7	4.2	100.0
지 역	서울	(186)	59.1	19.4	3.8	2.2	5.9	9.7	100.0
	경기/인천	(324)	59.9	18.2	4.0	1.9	4.6	11.4	100.0
	대전/충청	(106)	51.9	21.7	3.8	5.7	3.8	13.2	100.0
	대구/경북	(96)	61.5	15.6	6.3	4.2	2.1	10.4	100.0
	부산/울산/경남	(148)	56.8	20.3	7.4	2.0	3.4	10.1	100.0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66.3 45.2	19.4 28.6	4.1 7.1	4.1 2.4	4.1 0.0	2.0 16.7	100.0 100.0
직 업	자영업	(65)	56.9	20.0	4.6	4.6	3.1	10.8	100.0
	블루칼라	(144)	68.1	13.2	1.4	6.3	4.2	6.9	100.0
	화이트칼라	(384)	58.9	19.5	3.4	1.6	5.2	11.5	100.0
	가정주부	(168)	63.7	19.6	7.7	1.2	1.2	6.5	100.0
	학생	(51)	27.5	27.5	15.7	7.8	5.9	15.7	100.0
	무직/기타 /무응답	(188)	55.3	21.3	4.8	2.1	4.3	12.2	100.0
소 득 수 준	상	(146)	60.3	23.3	6.2	2.1	4.1	4.1	100.0
	중	(416)	60.6	19.2	4.1	3.1	3.8	9.1	100.0
	하	(403)	57.6	19.6	5.2	3.0	4.2	10.4	100.0
	무응답	(35)	40.0	2.9	2.9	0.0	5.7	48.6	100.0
이 념 성 향	보수	(221)	61.5	19.5	6.8	2.7	3.6	5.9	100.0
	중도	(424)	56.1	21.5	5.0	2.6	4.5	10.4	100.0
	진보	(249)	65.1	17.7	4.8	3.2	4.4	4.8	100.0
	잘 모르겠음	(106)	47.2	15.1	0.0	2.8	2.8	32.1	100.0
종 교	기독교(개신교)	(171)	56.7	28.7	4.7	1.8	5.8	2.3	100.0
	천주교(가톨릭)	(79)	60.8	24.1	1.3	5.1	6.3	2.5	100.0
	불교	(140)	64.3	10.7	9.3	3.6	2.1	10.0	100.0
	기타 종교	(11)	72.7	18.2	9.1	0.0	0.0	0.0	100.0
	무종교	(599)	57.3	18.2	4.2	2.7	3.8	13.9	100.0
삶 에 서 종 교 의 중 요 성	중요	(316)	61.4	22.8	6.0	3.2	3.2	3.5	100.0
	중요하지 않음	(85)	57.6	15.3	4.7	2.4	9.4	10.6	100.0
	무종교	(599)	57.3	18.2	4.2	2.7	3.8	13.9	100.0
한 국 교 회 신뢰도	신뢰	(190)	61.6	26.8	2.6	3.7	3.2	2.1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59.9	17.8	5.6	2.7	4.4	9.7	100.0
	잘 모르겠음	(56)	30.4	16.1	1.8	1.8	3.6	46.4	100.0
한 국 교 회 이 념 적 성 향 평 가	극우	(471)	63.3	17.4	5.3	2.1	5.1	6.8	100.0
	보수	(114)	56.1	28.1	3.5	2.6	4.4	5.3	100.0
	중도	(301)	52.5	19.3	4.3	3.3	3.3	17.3	100.0
	진보	(31)	67.7	16.1	9.7	3.2	3.2	0.0	100.0
	극좌	(83)	54.2	20.5	3.6	4.8	1.2	15.7	100.0

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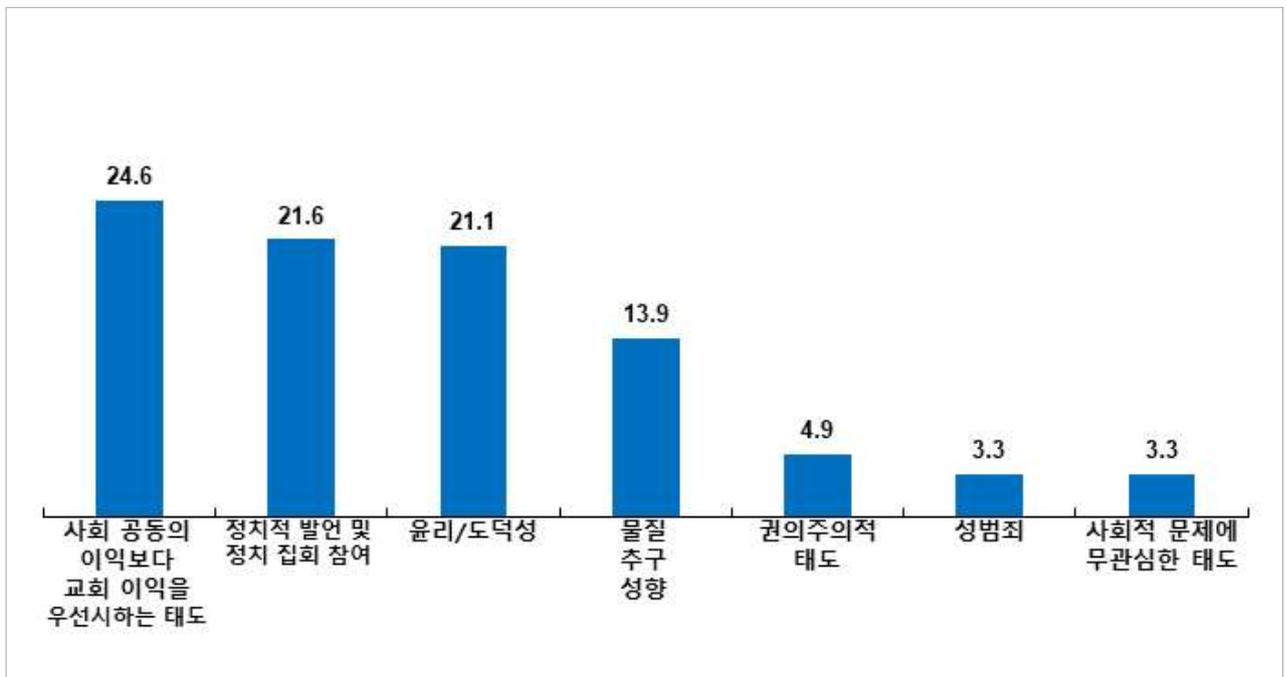
질문

Q.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교회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집회 참여’ 21.6%, ‘윤리·도덕성 문제’ 21.1%, ‘물질 추구 성향’ 13.9% 순으로 응답이 분포했다.
- 특히 2023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집회 참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8.8%p 상승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목회자의 정치적 언행과 집단적 정치 참여가 신뢰도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역시 2023년 대비 3.7%p 상승한 반면, 윤리·도덕성, 물질 추구 성향 등 나머지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내용을 정리하면 목회자 신뢰도 저하의 주요 원인은 교회 이익 중심 태도와 정치적 언행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치적 이슈 개입에 대한 비판 인식이 최근 크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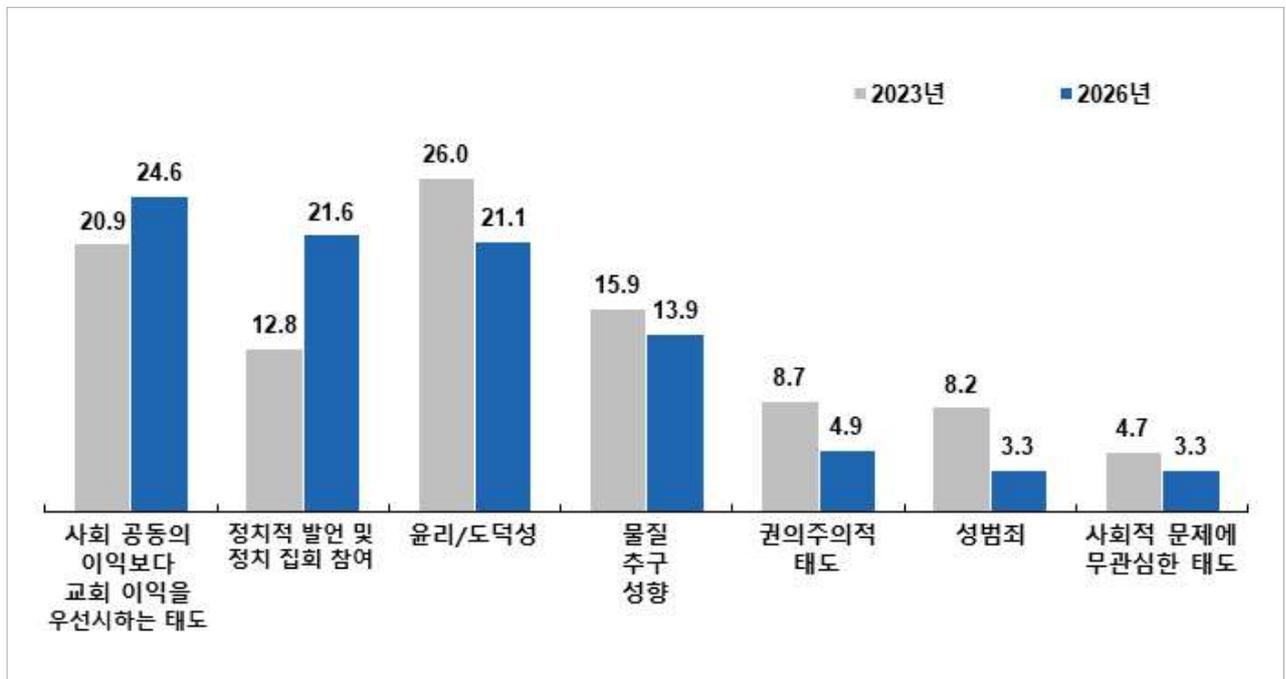
[그림]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Base=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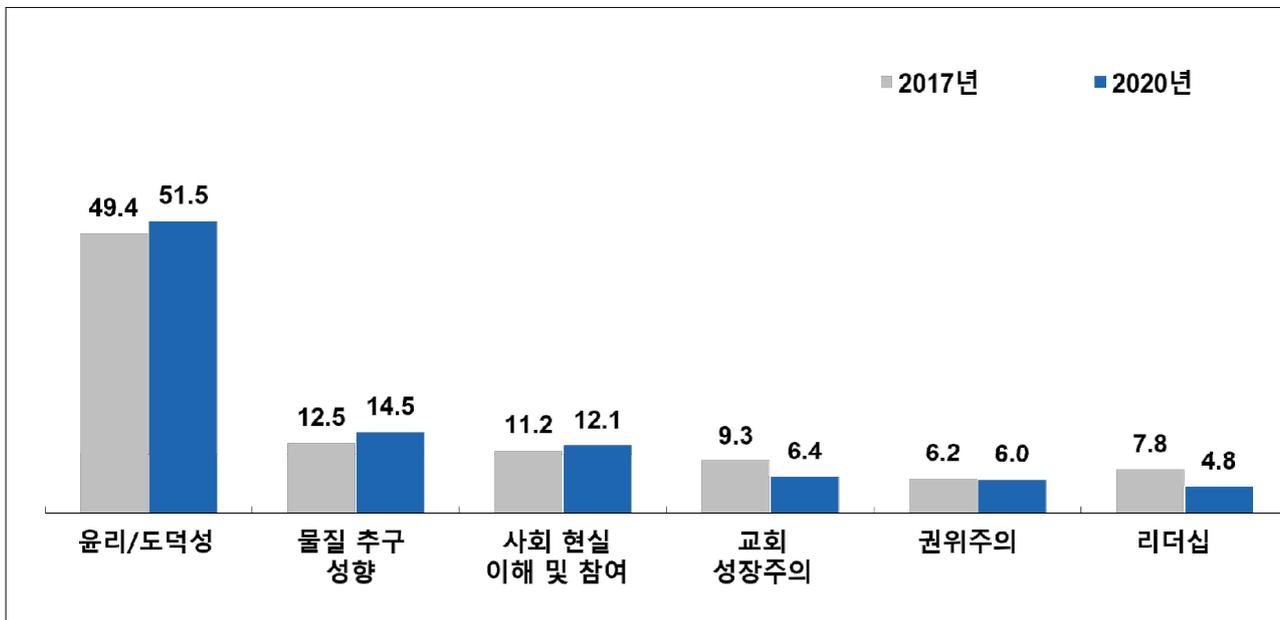
[그림] 과거 차수의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Base=전체, N=1000, %)



[그림] (참고) 2023년 이전 과거 차수의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 2017, 2020년 조사와 보기문항이 많이 변경되어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음

[표]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사회의 공동의 이교익을 우선하는 태도	정치적 정당 참여	평리/도 덕성	물질구 향	권위 주의 태도	성범죄	사회적 문제 무관심 태도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4.6	21.6	21.1	13.9	4.9	3.3	3.3	1.6	5.7	100.0
성별	남성	(493)	22.3	23.9	20.7	12.6	5.9	3.0	4.5	2.0	5.1	100.0
	여성	(507)	26.8	19.3	21.5	15.2	3.9	3.6	2.2	1.2	6.3	100.0
연령	19~29세 이하	(137)	20.4	16.8	9.5	16.1	6.6	8.0	5.1	0.7	16.8	100.0
	30대	(153)	24.2	16.3	20.9	19.0	3.3	4.6	2.6	2.0	7.2	100.0
	40대	(175)	22.9	20.0	17.7	16.0	5.1	4.0	5.7	3.4	5.1	100.0
	50대	(198)	30.3	22.2	21.7	13.1	5.1	1.5	2.5	1.5	2.0	100.0
	60대 이상	(337)	24.0	26.4	27.3	10.1	4.7	1.5	2.1	0.9	3.0	100.0
지역	서울	(186)	23.1	21.0	19.9	17.2	3.2	3.8	3.8	3.2	4.8	100.0
	경기/인천	(324)	23.5	21.9	23.1	14.8	3.1	3.7	2.2	1.9	5.9	100.0
	대전/충청	(106)	25.5	18.9	21.7	12.3	6.6	2.8	2.8	0.0	9.4	100.0
	대구/경북	(96)	25.0	25.0	16.7	13.5	4.2	4.2	6.3	0.0	5.2	100.0
	부산/울산/경남	(148)	27.7	21.6	19.6	10.8	7.4	2.0	3.4	1.4	6.1	100.0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24.5 26.2	23.5 16.7	22.4 21.4	12.2 11.9	7.1 9.5	3.1 2.4	4.1 2.4	2.0 0.0	1.0 9.5	100.0 100.0
직업	자영업	(65)	26.2	21.5	18.5	12.3	3.1	9.2	1.5	3.1	4.6	100.0
	블루칼라	(144)	22.9	23.6	24.3	13.9	6.3	2.1	2.8	0.7	3.5	100.0
	화이트칼라	(384)	26.8	18.5	20.3	16.4	3.9	3.1	3.4	2.9	4.7	100.0
	가정주부	(168)	21.4	25.0	28.0	13.7	3.0	1.8	3.0	0.6	3.6	100.0
	학생 무직/기타 /무응답	(51) (188)	19.6 25.0	23.5 22.9	5.9 19.1	11.8 10.1	7.8 7.4	9.8 2.1	7.8 3.2	0.0 0.5	13.7 9.6	100.0 100.0
소득수준	상	(146)	26.0	26.0	19.9	13.0	8.2	2.1	3.4	0.7	0.7	100.0
	중	(416)	26.4	20.0	20.7	15.6	4.1	4.8	2.4	1.4	4.6	100.0
	하	(403)	22.8	22.8	22.6	12.9	4.7	2.0	4.2	2.0	6.0	100.0
	무응답	(35)	17.1	8.6	14.3	8.6	2.9	5.7	2.9	2.9	37.1	100.0
이념성향	보수	(221)	26.7	15.4	24.9	13.1	7.2	2.7	4.5	0.9	4.5	100.0
	중도	(424)	24.3	21.9	20.3	15.3	4.5	3.5	3.1	2.4	4.7	100.0
	진보	(249)	24.1	28.1	22.1	12.4	3.6	4.4	2.8	0.8	1.6	100.0
	잘 모르겠음	(106)	22.6	17.9	14.2	13.2	4.7	0.9	2.8	1.9	21.7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17.5	22.8	22.8	14.0	7.0	3.5	7.0	3.5	1.8	100.0
	천주교(가톨릭)	(79)	31.6	13.9	21.5	19.0	7.6	2.5	1.3	1.3	1.3	100.0
	불교	(140)	22.9	20.0	27.9	11.4	4.3	4.3	2.9	1.4	5.0	100.0
	기타 종교 무종교	(11) (599)	0.0 26.5	36.4 22.4	9.1 19.2	9.1 13.9	18.2 3.8	0.0 3.2	18.2 2.3	9.1 1.0	0.0 7.7	100.0 100.0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21.8	21.2	23.4	13.9	7.3	2.8	4.4	2.8	2.2	100.0
	중요하지 않음	(85)	21.2	17.6	25.9	14.1	3.5	5.9	5.9	1.2	4.7	100.0
	무종교	(599)	26.5	22.4	19.2	13.9	3.8	3.2	2.3	1.0	7.7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15.8	24.2	24.7	11.6	8.4	4.2	6.3	2.6	2.1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27.2	21.8	20.4	15.1	4.2	2.9	2.5	1.2	4.6	100.0
	잘 모르겠음	(56)	19.6	10.7	17.9	5.4	1.8	5.4	3.6	3.6	32.1	100.0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24.8	30.1	18.5	14.6	3.4	2.8	2.3	1.3	2.1	100.0
	보수	(114)	26.3	14.9	24.6	12.3	9.6	1.8	5.3	2.6	2.6	100.0
	중도	(301)	24.6	13.6	22.6	14.0	4.7	4.0	3.3	2.3	11.0	100.0
	진보	(31)	16.1	16.1	22.6	19.4	12.9	3.2	6.5	0.0	3.2	100.0
	극좌	(83)	24.1	13.3	25.3	9.6	4.8	6.0	4.8	0.0	12.0	100.0

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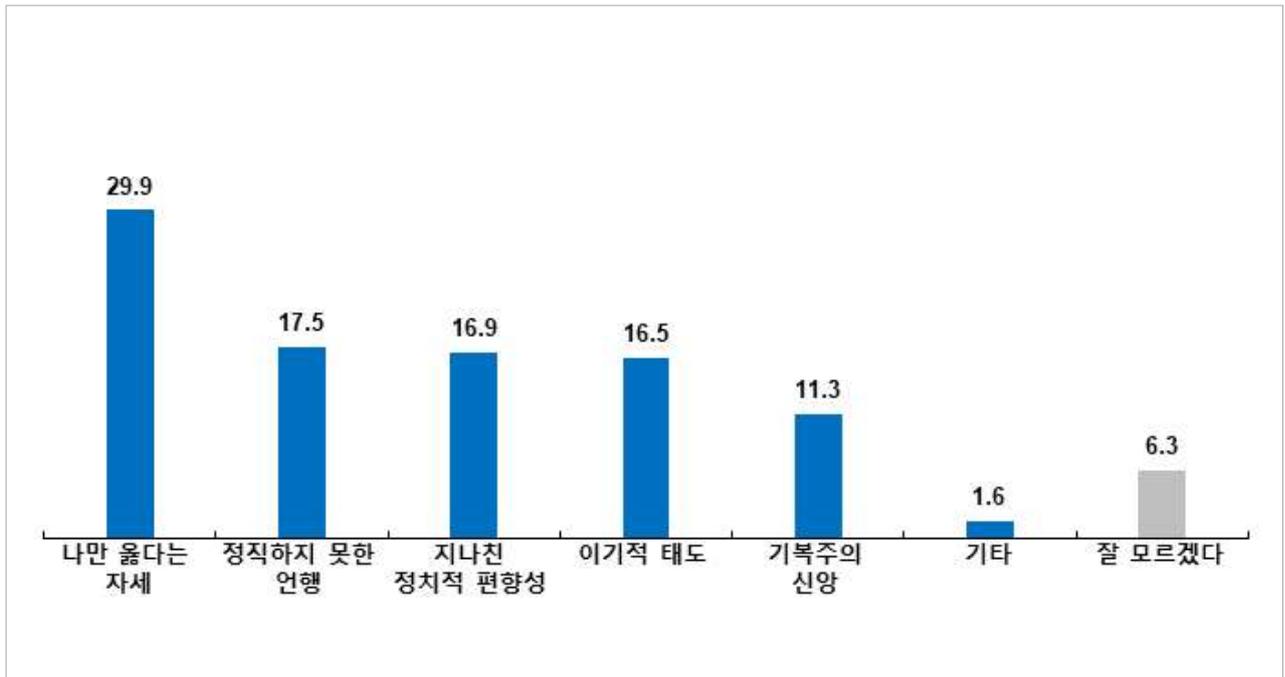
질문

Q. 그럼, “기독교인(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나만 옳다는 자세'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절제되지 못한 언행' 17.5%,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16.9%, '이기적 태도' 16.5%, '기복주의 신앙' 11.3% 순으로 응답이 분포했다.
-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나만 옳다는 자세'를 개선 과제로 지적한 비율은 상승한 반면, 나머지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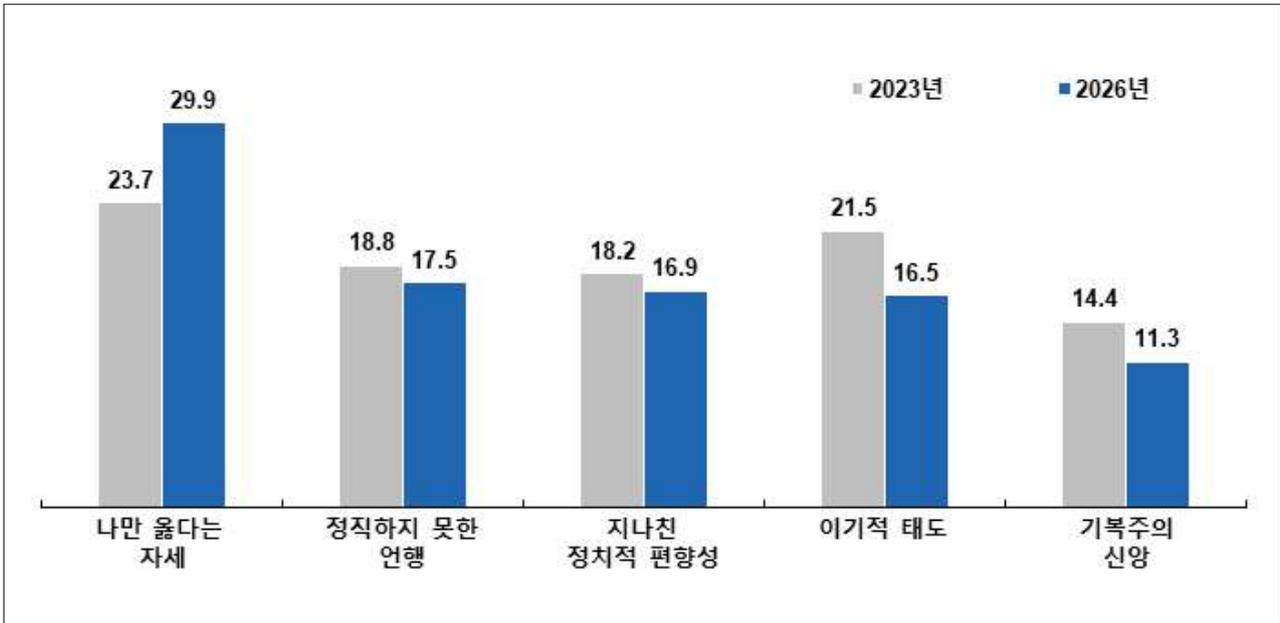
[그림]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Base=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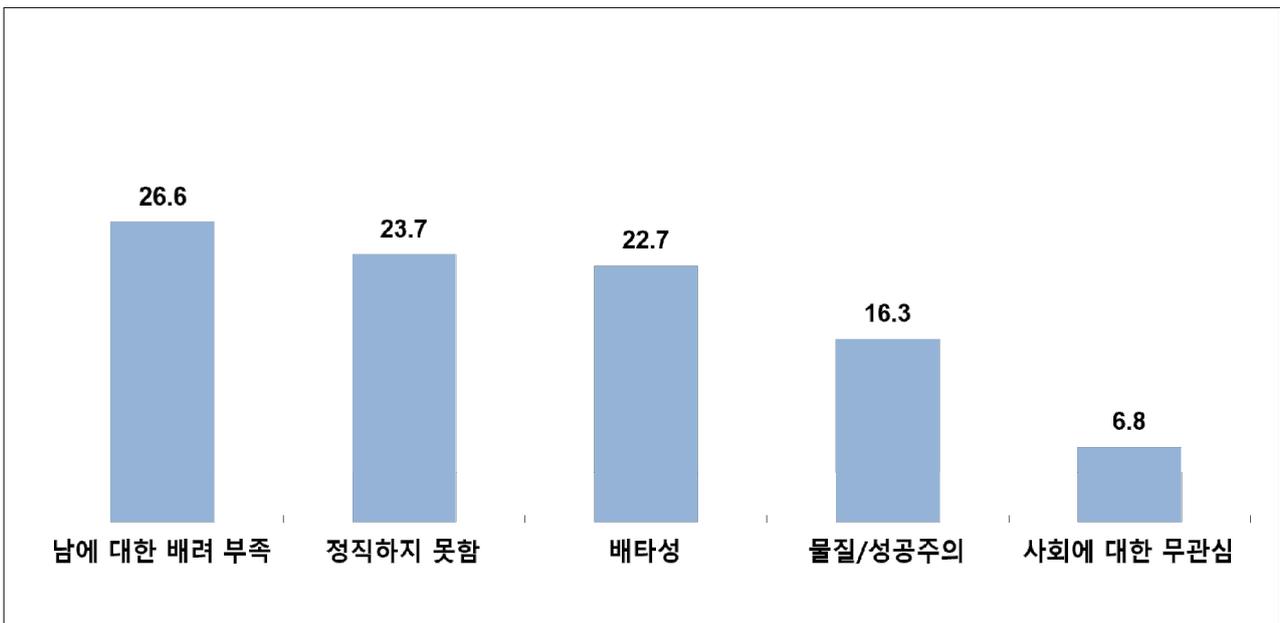
[그림] 과거 차수의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그림] (참고) 2020년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 2020년 조사와 보기 문항이 많이 변경되어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음.

[표]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 분		사 례 수 (명)	나 만 우 닷는 자 세	정 직 하 지 못 한 언 행	지 정 하 지 편 향 성	이 기 적 태 도	기 복 주 의 신 앙	기 타	잘 모 르 겠 다	계
전 체		(1000)	29.9	17.5	16.9	16.5	11.3	1.6	6.3	100.0
성 별	남 성	(493)	29.0	17.6	18.1	15.2	12.0	1.8	6.3	100.0
	여 성	(507)	30.8	17.4	15.8	17.8	10.7	1.4	6.3	100.0
연 령	19~29세 이하	(137)	32.8	10.2	10.9	17.5	13.9	1.5	13.1	100.0
	30대	(153)	37.3	14.4	11.1	18.3	11.1	1.3	6.5	100.0
	40대	(175)	32.0	15.4	19.4	15.4	8.6	2.3	6.9	100.0
	50대	(198)	26.8	23.2	14.6	18.7	9.6	2.5	4.5	100.0
	60대 이상	(337)	26.1	19.6	22.0	14.5	12.8	0.9	4.2	100.0
지 역	서울	(186)	31.7	16.7	17.7	19.4	9.1	2.7	2.7	100.0
	경기/인천	(324)	30.6	18.2	16.0	16.0	10.8	1.5	6.8	100.0
	대전/충청	(106)	32.1	17.9	18.9	13.2	9.4	1.9	6.6	100.0
	대구/경북	(96)	35.4	16.7	13.5	13.5	11.5	0.0	9.4	100.0
	부산/울산/경남	(148)	26.4	15.5	16.9	18.2	12.2	1.4	9.5	100.0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24.5 23.8	19.4 19.0	19.4 16.7	16.3 16.7	15.3 16.7	1.0 2.4	4.1 4.8	100.0 100.0
직 업	자영업	(65)	20.0	29.2	16.9	18.5	10.8	1.5	3.1	100.0
	블루칼라	(144)	25.7	21.5	19.4	16.0	10.4	2.8	4.2	100.0
	화이트칼라	(384)	33.9	15.9	15.1	16.9	10.4	1.8	6.0	100.0
	가정주부	(168)	26.2	23.2	20.2	16.1	9.5	0.0	4.8	100.0
	학생 무직/기타 /무응답	(51) (188)	31.4 31.4	5.9 11.7	9.8 17.6	21.6 14.4	21.6 12.8	0.0 2.1	9.8 10.1	100.0 100.0
소 득 수 준	상	(146)	30.8	19.2	13.7	18.5	13.0	2.1	2.7	100.0
	중	(416)	28.4	19.5	15.9	18.0	11.8	1.2	5.3	100.0
	하	(403)	31.0	15.6	20.3	14.6	10.4	1.2	6.7	100.0
	무응답	(35)	31.4	8.6	2.9	11.4	8.6	8.6	28.6	100.0
이 념 성 향	보수	(221)	32.6	18.1	13.1	17.2	12.7	0.5	5.9	100.0
	중도	(424)	32.5	17.2	15.8	17.2	10.6	2.1	4.5	100.0
	진보	(249)	24.1	17.3	24.9	17.3	12.9	0.8	2.8	100.0
	잘 모르겠음	(106)	27.4	17.9	10.4	10.4	7.5	3.8	22.6	100.0
종 교	기독교(개신교)	(171)	22.2	22.2	15.8	17.0	17.5	1.2	4.1	100.0
	천주교(가톨릭)	(79)	38.0	13.9	19.0	13.9	12.7	0.0	2.5	100.0
	불교	(140)	28.6	15.0	22.1	18.6	7.9	1.4	6.4	100.0
	기타 종교	(11)	18.2	27.3	36.4	0.0	9.1	9.1	0.0	100.0
	무종교	(599)	31.6	17.0	15.4	16.5	10.2	1.8	7.5	100.0
삶 에 서 종 교 의 성 중 요 성	중요	(316)	25.6	19.0	19.3	16.5	13.9	0.9	4.7	100.0
	중요하지 않음	(85)	34.1	15.3	18.8	16.5	9.4	2.4	3.5	100.0
	무종교	(599)	31.6	17.0	15.4	16.5	10.2	1.8	7.5	100.0
한 국 교 회 신뢰도	신뢰	(190)	22.6	21.6	16.8	16.3	15.8	1.1	5.8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31.7	17.0	17.4	17.1	10.5	1.9	4.5	100.0
	잘 모르겠음	(56)	30.4	10.7	10.7	8.9	7.1	0.0	32.1	100.0
한 국 교 회 이 념 적 성 향 평 가	극우	(471)	29.1	15.7	24.0	16.1	10.2	1.7	3.2	100.0
	보수	(114)	26.3	22.8	12.3	18.4	16.7	0.9	2.6	100.0
	중도	(301)	31.9	15.9	10.0	16.6	12.3	1.3	12.0	100.0
	진보	(31)	32.3	32.3	9.7	9.7	9.7	3.2	3.2	100.0
극좌	(83)	31.3	20.5	10.8	18.1	7.2	2.4	9.6	100.0	

1.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질문

Q. 귀하께서는 교회 혹은 목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이나 찬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한국교회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반대한다'(별로+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약간+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해, 목회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 기독교인 응답자 역시 14.6%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83.0%는 반대한다고 응답해, 기독교 신자 내부에서도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종교인과 무종교인 집단에서는 반대 비율이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특히 한국교회를 이념적으로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집단의 경우, 93.6%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개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 집단에서도 93.2%가 반대 입장을 보여,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목회자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그림] 과거 차수의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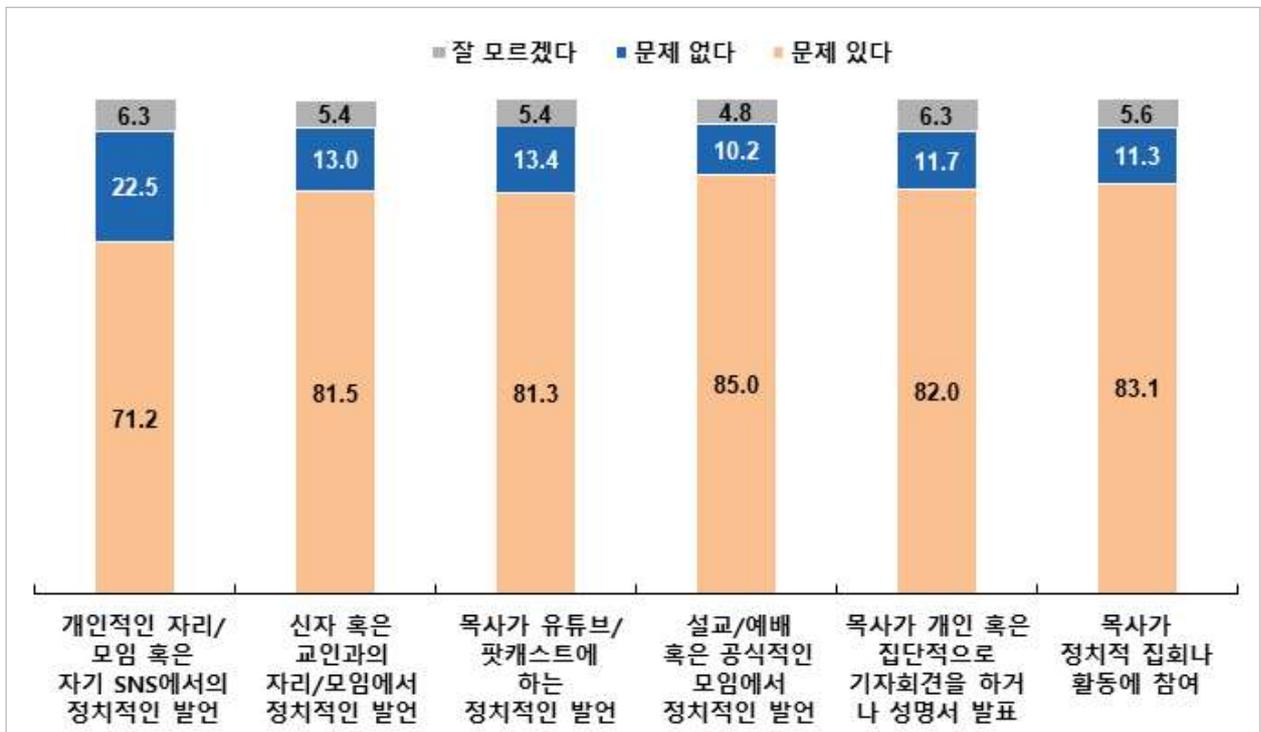
(Base=전체,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그림] (참고) 2023년도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약간 찬성한다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계	찬성	반대
전체		(1000)	1.1	5.6	31.3	57.2	4.8	100.0	6.7	88.5
성별	남성	(493)	2.0	5.9	29.8	58.6	3.7	100.0	7.9	88.4
	여성	(507)	0.2	5.3	32.7	55.8	5.9	100.0	5.5	88.6
연령	19~29세 이하	(137)	1.5	5.1	32.1	51.8	9.5	100.0	6.6	83.9
	30대	(153)	2.0	4.6	24.8	61.4	7.2	100.0	6.5	86.3
	40대	(175)	0.6	4.0	33.1	57.1	5.1	100.0	4.6	90.3
	50대	(198)	0.5	4.0	27.8	65.2	2.5	100.0	4.5	92.9
	60대 이상	(337)	1.2	8.0	35.0	52.8	3.0	100.0	9.2	87.8
지역	서울	(186)	1.1	5.4	26.9	62.9	3.8	100.0	6.5	89.8
	경기/인천	(324)	0.9	4.3	33.6	56.8	4.3	100.0	5.2	90.4
	대전/충청	(106)	0.0	6.6	25.5	60.4	7.5	100.0	6.6	85.8
	대구/경북	(96)	1.0	6.3	34.4	52.1	6.3	100.0	7.3	86.5
	부산/울산/경남	(148)	1.4	7.4	31.1	54.7	5.4	100.0	8.8	85.8
	광주/전라 강원/제주	(98) (42)	2.0 2.4	3.1 11.9	37.8 26.2	53.1 57.1	4.1 2.4	100.0 100.0	5.1 14.3	90.8 83.3
직업	자영업	(65)	1.5	9.2	33.8	52.3	3.1	100.0	10.8	86.2
	블루칼라	(144)	0.7	4.2	34.0	57.6	3.5	100.0	4.9	91.7
	화이트칼라	(384)	1.3	5.2	31.5	57.3	4.7	100.0	6.5	88.8
	가정주부	(168)	0.6	6.0	30.4	58.9	4.2	100.0	6.5	89.3
	학생	(51)	2.0	7.8	33.3	52.9	3.9	100.0	9.8	86.3
	무직/기타 /무응답	(188)	1.1	5.3	28.2	58.0	7.4	100.0	6.4	86.2
소득수준	상	(146)	1.4	4.8	32.9	61.0	0.0	100.0	6.2	93.8
	중	(416)	1.4	6.3	30.8	57.9	3.6	100.0	7.7	88.7
	하	(403)	0.7	5.5	31.0	56.1	6.7	100.0	6.2	87.1
	무응답	(35)	0.0	2.9	34.3	45.7	17.1	100.0	2.9	80.0
이념성향	보수	(221)	3.2	8.1	37.1	47.1	4.5	100.0	11.3	84.2
	중도	(424)	0.9	5.2	31.1	58.7	4.0	100.0	6.1	89.9
	진보	(249)	0.0	5.6	26.1	67.1	1.2	100.0	5.6	93.2
	잘 모르겠음	(106)	0.0	1.9	32.1	49.1	17.0	100.0	1.9	81.1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4.7	9.9	35.7	47.4	2.3	100.0	14.6	83.0
	천주교(가톨릭)	(79)	0.0	7.6	34.2	53.2	5.1	100.0	7.6	87.3
	불교	(140)	0.0	5.7	29.3	58.6	6.4	100.0	5.7	87.9
	기타 종교	(11)	0.0	9.1	45.5	45.5	0.0	100.0	9.1	90.9
	무종교	(599)	0.5	4.0	29.9	60.4	5.2	100.0	4.5	90.3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2.2	9.2	34.5	50.0	4.1	100.0	11.4	84.5
	중요하지 않음	(85)	1.2	3.5	29.4	61.2	4.7	100.0	4.7	90.6
	무종교	(599)	0.5	4.0	29.9	60.4	5.2	100.0	4.5	90.3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4.7	11.6	42.1	38.9	2.6	100.0	16.3	81.1
	신뢰하지 않음	(754)	0.3	4.4	29.8	63.1	2.4	100.0	4.6	93.0
	잘 모르겠음	(56)	0.0	1.8	14.3	39.3	44.6	100.0	1.8	53.6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0.2	3.6	24.8	68.8	2.5	100.0	3.8	93.6
	보수	(114)	5.3	11.4	39.5	39.5	4.4	100.0	16.7	78.9
	중도	(301)	1.0	6.3	37.2	47.8	7.6	100.0	7.3	85.0
	진보	(31)	0.0	6.5	38.7	48.4	6.5	100.0	6.5	87.1
	극좌	(83)	1.2	6.0	32.5	53.0	7.2	100.0	7.2	85.5

(다음페이지 계속)

2. 12.3 비상계엄과 탄핵국면

1) 12.3 비상 계엄과 그 이후 한국교회 태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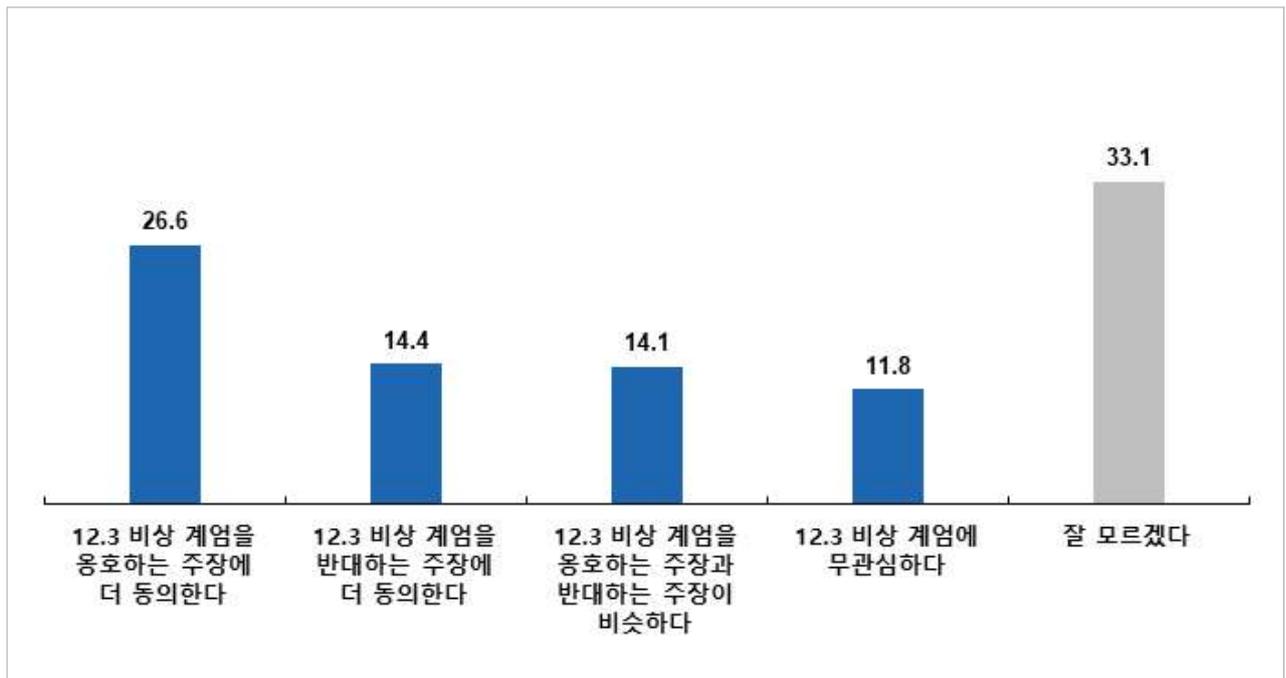
질문

Q. 12.3 비상 계엄과 그 이후 한국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에 더 동의한다'는 응답이 26.6%로, 국민 4명 중 1명은 한국교회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에 더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12.3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주장에 더 동의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으며, '옹호 주장과 반대 주장이 비슷하다'는 14.1%, '무관심하다'는 11.8%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비상계엄 옹호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인 응답자 중에서는 '반대 주장에 더 동의한다'는 응답이 25.1%로 '옹호 주장에 더 동의한다'(22.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무종교인과 타종교인 집단에서는 모두 '옹호 주장에 더 동의한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나 종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 연령대별로는 20~30대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에 달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50대에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3 비상 계엄과 그 이후 한국교회 태도 인식

(Base=전체, N=1000, %)



[표] 12.3 비상 계엄과 그 이후 한국교회 태도 인식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 분		사 례 수 (명)	12.3 비상 계엄을 후회하는 응답자의 비율	12.3 비상 계엄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	12.3 비상 계엄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 보다 더 높다	12.3 비상 계엄에 무관심 하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1000)	26.6	14.4	14.1	11.8	33.1	100.0
성 별	남 성	(493)	28.8	14.0	18.1	12.6	26.6	100.0
	여 성	(507)	24.5	14.8	10.3	11.0	39.4	100.0
연 령	19~29세 이하	(137)	20.4	16.1	7.3	8.8	47.4	100.0
	30대	(153)	20.3	8.5	11.1	12.4	47.7	100.0
	40대	(175)	24.6	15.4	13.7	13.7	32.6	100.0
	50대	(198)	33.8	16.2	12.6	10.1	27.3	100.0
	60대 이상	(337)	28.8	14.8	19.3	12.8	24.3	100.0
지 역	서울	(186)	31.7	14.0	11.3	10.8	32.3	100.0
	경기/인천	(324)	25.3	13.6	13.0	10.8	37.3	100.0
	대전/충청	(106)	26.4	17.9	14.2	8.5	33.0	100.0
	대구/경북	(96)	22.9	6.3	18.8	17.7	34.4	100.0
	부산/울산/경남	(148)	22.3	12.2	14.2	17.6	33.8	100.0
	광주/전라	(98)	32.7	27.6	16.3	9.2	14.3	100.0
	강원/제주	(42)	23.8	9.5	19.0	4.8	42.9	100.0
직 업	자영업	(65)	27.7	20.0	23.1	7.7	21.5	100.0
	블루칼라	(144)	25.7	12.5	17.4	16.7	27.8	100.0
	화이트칼라	(384)	26.6	14.3	13.0	11.5	34.6	100.0
	가정주부	(168)	25.0	16.1	14.9	10.7	33.3	100.0
	학생	(51)	25.5	15.7	7.8	9.8	41.2	100.0
	무직/기타 /무응답	(188)	28.7	12.2	11.7	11.7	35.6	100.0
소 득 수 준	상	(146)	34.2	17.1	17.8	8.9	21.9	100.0
	중	(416)	30.0	12.0	13.9	11.8	32.2	100.0
	하	(403)	21.6	16.1	13.9	13.4	35.0	100.0
	무응답	(35)	11.4	11.4	2.9	5.7	68.6	100.0
이 념 성 향	보수	(221)	24.9	11.8	15.4	15.8	32.1	100.0
	중도	(424)	25.0	16.3	14.6	10.4	33.7	100.0
	진보	(249)	38.6	16.9	16.5	11.2	16.9	100.0
	잘 모르겠음	(106)	8.5	6.6	3.8	10.4	70.8	100.0
종 교	기독교(개신교)	(171)	22.2	25.1	15.2	19.9	17.5	100.0
	천주교(가톨릭)	(79)	35.4	17.7	19.0	5.1	22.8	100.0
	불교	(140)	32.1	15.7	15.7	12.9	23.6	100.0
	기타 종교	(11)	27.3	27.3	27.3	9.1	9.1	100.0
	무종교	(599)	25.4	10.4	12.5	10.2	41.6	100.0
삶 에 서 종 교 의 중 요 성	중요	(316)	27.8	20.6	17.1	13.6	20.9	100.0
	중요하지 않음	(85)	30.6	20.0	14.1	16.5	18.8	100.0
	무종교	(599)	25.4	10.4	12.5	10.2	41.6	100.0
한 국 교 회 신 려 도	신뢰	(190)	18.4	28.4	18.4	13.2	21.6	100.0
	신뢰하지 않음	(754)	30.0	11.4	13.7	11.9	33.0	100.0
	잘 모르겠음	(56)	8.9	7.1	5.4	5.4	73.2	100.0
한 국 교 회 이 념 적 성 향 평 가	극우	(471)	46.5	11.5	11.7	7.9	22.5	100.0
	보수	(114)	21.1	19.3	26.3	10.5	22.8	100.0
	중도	(301)	4.7	13.0	13.3	16.3	52.8	100.0
	진보	(31)	0.0	32.3	19.4	16.1	32.3	100.0
극좌	(83)	10.8	22.9	12.0	18.1	36.1	100.0	

2) 한국교회 전반적 이념 성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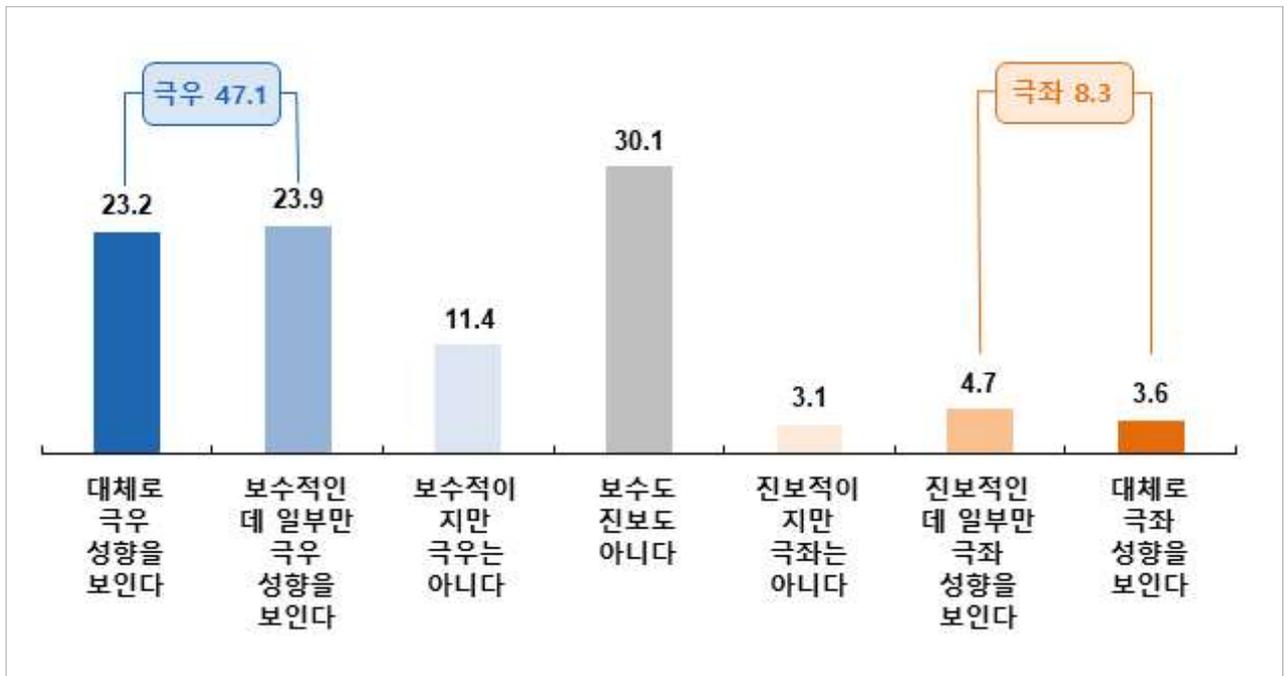
질문

Q. 한국교회의 전반적 이념적 성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수응답)

- 한국교회의 전반적 이념 성향에 대해 물은 결과, '극우'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47.1%로 나타나 국민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중도'라는 응답은 30.1%였으며, '극좌'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8.3%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한 비율이 30.7%로 가장 낮았고, '중도'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에서는 59.6%가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약 10%가 한국교회를 '극좌'로 인식해, 세대별 이념 인식의 방향과 분포가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 종교별로 살펴보면, 기독교인 응답자들은 한국교회를 주로 '보수(보수적이지만 극우는 아님)' 또는 '중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극우로 인식한 비율은 36.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타종교인과 무종교인 집단에서는 절반가량이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평가하여 차이를 보였다.

[그림] 한국교회 전반적 이념 성향 인식

(Base=전체, N=1000, %)



[표] 한국교회 전반적 이념 성향 인식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대체로 성향인 이다	보수적인 일부만 성향인 이다	보수적 이 극우 만 아 니다	보진 아 도 다	진보 적 만 아 니다	진보적인 일부 만 성향 인 이다	대체로 성향 인 이다	계	극우	극좌
전체		(1000)	23.2	23.9	11.4	30.1	3.1	4.7	3.6	100.0	47.1	8.3
성별	남성	(493)	21.3	27.8	14.2	24.9	3.9	4.5	3.4	100.0	49.1	7.9
	여성	(507)	25.0	20.1	8.7	35.1	2.4	4.9	3.7	100.0	45.2	8.7
연령	19~29세 이하	(137)	20.4	10.2	8.8	46.7	3.6	3.6	6.6	100.0	30.7	10.2
	30대	(153)	20.9	20.3	10.5	39.9	1.3	2.6	4.6	100.0	41.2	7.2
	40대	(175)	24.6	21.1	8.0	33.7	5.1	4.0	3.4	100.0	45.7	7.4
	50대	(198)	28.3	31.3	8.6	23.2	3.5	3.5	1.5	100.0	59.6	5.1
	60대 이상	(337)	21.7	28.2	16.3	21.1	2.4	7.1	3.3	100.0	49.9	10.4
지역	서울	(186)	24.2	25.3	11.3	29.0	2.7	4.8	2.7	100.0	49.5	7.5
	경기/인천	(324)	22.8	27.2	10.5	29.6	2.2	4.3	3.4	100.0	50.0	7.7
	대전/충청	(106)	19.8	22.6	11.3	34.0	1.9	2.8	7.5	100.0	42.5	10.4
	대구/경북	(96)	21.9	14.6	13.5	33.3	3.1	9.4	4.2	100.0	36.5	13.5
	부산/울산/경남	(148)	22.3	24.3	9.5	32.4	5.4	2.7	3.4	100.0	46.6	6.1
	광주/전라	(98)	29.6	24.5	10.2	22.4	4.1	7.1	2.0	100.0	54.1	9.2
	강원/제주	(42)	21.4	14.3	23.8	31.0	4.8	2.4	2.4	100.0	35.7	4.8
직업	자영업	(65)	23.1	26.2	12.3	27.7	3.1	6.2	1.5	100.0	49.2	7.7
	블루칼라	(144)	27.8	22.2	9.0	31.3	2.1	4.2	3.5	100.0	50.0	7.6
	화이트칼라	(384)	22.9	26.0	10.7	30.5	4.2	3.4	2.3	100.0	49.0	5.7
	가정주부	(168)	22.6	20.8	11.3	32.7	1.8	6.0	4.8	100.0	43.5	10.7
	학생	(51)	21.6	9.8	9.8	47.1	2.0	3.9	5.9	100.0	31.4	9.8
	무직/기타 /무응답	(188)	21.3	26.6	14.9	22.3	3.2	6.4	5.3	100.0	47.9	11.7
소득수준	상	(146)	23.3	26.0	14.4	24.7	5.5	5.5	0.7	100.0	49.3	6.2
	중	(416)	24.5	25.5	10.8	29.1	2.4	3.8	3.8	100.0	50.0	7.7
	하	(403)	22.1	22.6	11.7	31.3	3.0	5.5	4.0	100.0	44.7	9.4
	무응답	(35)	20.0	11.4	2.9	51.4	2.9	2.9	8.6	100.0	31.4	11.4
이념성향	보수	(221)	12.2	22.2	26.2	24.4	3.6	6.3	5.0	100.0	34.4	11.3
	중도	(424)	22.6	22.9	9.7	36.1	2.8	4.5	1.4	100.0	45.5	5.9
	진보	(249)	36.1	31.3	4.8	16.9	3.2	5.6	2.0	100.0	67.5	7.6
	잘 모르겠음	(106)	17.9	14.2	2.8	49.1	2.8	0.0	13.2	100.0	32.1	13.2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10.5	26.3	24.6	29.2	2.3	4.1	2.9	100.0	36.8	7.0
	천주교(가톨릭)	(79)	20.3	35.4	6.3	17.7	8.9	8.9	2.5	100.0	55.7	11.4
	불교	(140)	34.3	20.0	8.6	24.3	2.1	7.9	2.9	100.0	54.3	10.7
	기타 종교	(11)	18.2	18.2	27.3	18.2	9.1	0.0	9.1	100.0	36.4	9.1
	무종교	(599)	24.7	22.7	8.7	33.6	2.7	3.7	4.0	100.0	47.4	7.7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18.7	28.2	17.4	25.0	3.2	5.1	2.5	100.0	46.8	7.6
	중요하지 않음	(85)	29.4	16.5	8.2	24.7	5.9	10.6	4.7	100.0	45.9	15.3
	무종교	(599)	24.7	22.7	8.7	33.6	2.7	3.7	4.0	100.0	47.4	7.7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9.5	20.5	27.4	33.7	2.1	5.8	1.1	100.0	30.0	6.8
	신뢰하지 않음	(754)	27.2	25.5	7.7	27.9	3.4	4.6	3.7	100.0	52.7	8.4
	잘 모르겠음	(56)	16.1	14.3	7.1	48.2	1.8	1.8	10.7	100.0	30.4	12.5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49.3	50.7	0.0	0.0	0.0	0.0	0.0	100.0	100.0	0.0
	보수	(114)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중도	(30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0.0
	진보	(3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극좌	(83)	0.0	0.0	0.0	0.0	0.0	56.6	43.4	100.0	0.0	100.0

3) 한국교회 이념 성향 평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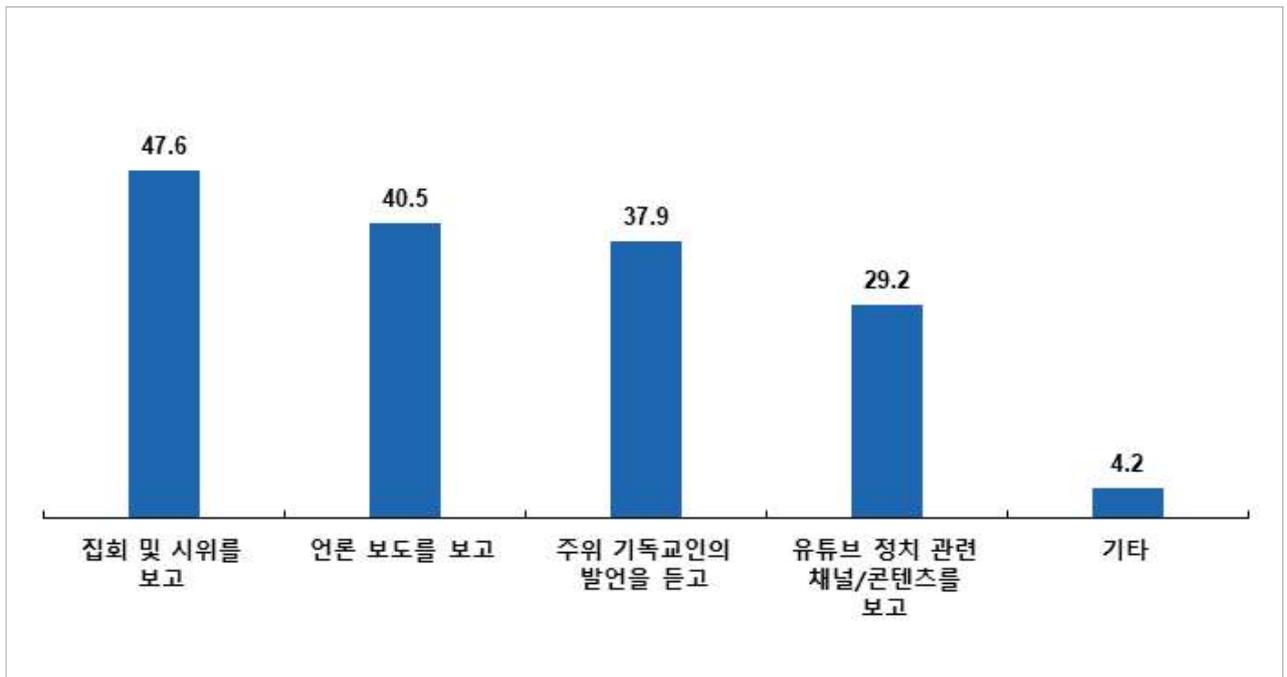
질문

Q. 한국교회의 이념 성향을 그렇게 평가하시게 된 출처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한국교회의 이념 성향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었는지를 묻은 결과, '집회 및 시위를 보고'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고' 40.5%, '주위 기독교인의 발언을 듣고' 37.9%, '유튜브 정치 관련 채널/콘텐츠를 보고' 29.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접적 장면 노출과 미디어를 통한 경험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 집단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보고'가 66.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언론 보도를 보고'가 45.6%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중적으로 노출된 집회가 극우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반면 한국교회를 '중도'로 평가한 응답자 집단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37.9%, '주위 기독교인의 발언을 듣고' 36.9%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회를 '극좌' 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 집단에서는 '주위 기독교인의 발언을 듣고'가 51.8%로 가장 높았고, '집회 및 시위를 보고'가 39.8%로 나타나, 개인적 관계를 통한 인식 형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하게 된 주요 배경은 집회와 시위 등 공개적 행동에 대한 노출이었으며, '중도'나 '극좌'로 인식한 경우에는 주변 기독교인의 발언과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교회 이념 성향 평가 배경

(Base=전체, N=1000, %)



[표] 한국교회 이념 성향 평가 배경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집회 및 시위를 보고	언론 보도를 보고	주요 발언을 받은 기독교인의 언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관련 보고	정치 관련 콘텐츠 관련	기타
전체		(1000)	47.6	40.5	37.9	29.2	4.2	
성별	남성	(493)	44.4	39.4	39.8	30.0	4.5	
	여성	(507)	50.7	41.6	36.1	28.4	3.9	
연령	19~29세 이하	(137)	33.6	44.5	38.7	26.3	5.1	
	30대	(153)	45.1	45.1	40.5	29.4	7.2	
	40대	(175)	45.1	38.9	36.6	30.9	6.3	
	50대	(198)	50.5	39.4	36.4	26.8	3.5	
	60대 이상	(337)	54.0	38.3	38.0	30.9	1.8	
지역	서울	(186)	47.3	43.5	41.9	31.2	5.4	
	경기/인천	(324)	52.5	42.3	38.0	25.9	4.3	
	대전/충청	(106)	29.2	49.1	36.8	24.5	3.8	
	대구/경북	(96)	41.7	30.2	39.6	31.3	3.1	
	부산/울산/경남	(148)	47.3	39.2	38.5	31.8	4.7	
	광주/전라	(98)	57.1	32.7	30.6	33.7	3.1	
	강원/제주	(42)	50.0	38.1	33.3	33.3	2.4	
직업	자영업	(65)	50.8	30.8	35.4	29.2	4.6	
	블루칼라	(144)	41.0	36.1	36.1	20.1	5.6	
	화이트칼라	(384)	48.7	44.5	39.1	29.9	4.2	
	가정주부	(168)	51.8	43.5	36.3	33.3	2.4	
	학생	(51)	45.1	37.3	43.1	25.5	5.9	
	무직/기타 /무응답	(188)	46.3	37.2	37.8	31.9	4.3	
소득수준	상	(146)	52.7	43.8	34.9	34.9	3.4	
	중	(416)	48.8	42.1	39.9	27.6	3.4	
	하	(403)	46.4	38.0	38.0	29.0	4.5	
	무응답	(35)	25.7	37.1	25.7	25.7	14.3	
이념성향	보수	(221)	41.2	39.8	37.1	27.1	2.3	
	중도	(424)	46.2	38.2	40.8	28.5	3.8	
	진보	(249)	59.0	47.0	39.8	34.9	3.2	
	잘 모르겠음	(106)	39.6	35.8	23.6	22.6	12.3	
종교	기독교(개신교)	(171)	46.2	31.0	46.2	38.6	5.8	
	천주교(가톨릭)	(79)	58.2	43.0	40.5	25.3	0.0	
	불교	(140)	43.6	38.6	38.6	31.4	2.1	
	기타 종교	(11)	45.5	36.4	18.2	27.3	9.1	
	무종교	(599)	47.6	43.4	35.4	26.5	4.7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중요	(316)	50.6	36.1	41.5	33.9	3.2	
	중요하지 않음	(85)	36.5	36.5	42.4	30.6	4.7	
	무종교	(599)	47.6	43.4	35.4	26.5	4.7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90)	41.6	32.1	40.5	32.1	3.7	
	신뢰하지 않음	(754)	49.9	42.3	37.7	29.3	4.1	
	잘 모르겠음	(56)	37.5	44.6	32.1	17.9	7.1	
한국교회 이념적 성향 평가	극우	(471)	66.5	45.6	34.8	34.8	2.8	
	보수	(114)	38.6	35.1	40.4	30.7	3.5	
	중도	(301)	25.6	37.9	36.9	20.3	8.0	
	진보	(31)	29.0	32.3	48.4	35.5	0.0	
	극좌	(83)	39.8	31.3	51.8	25.3	1.2	

4)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이라 평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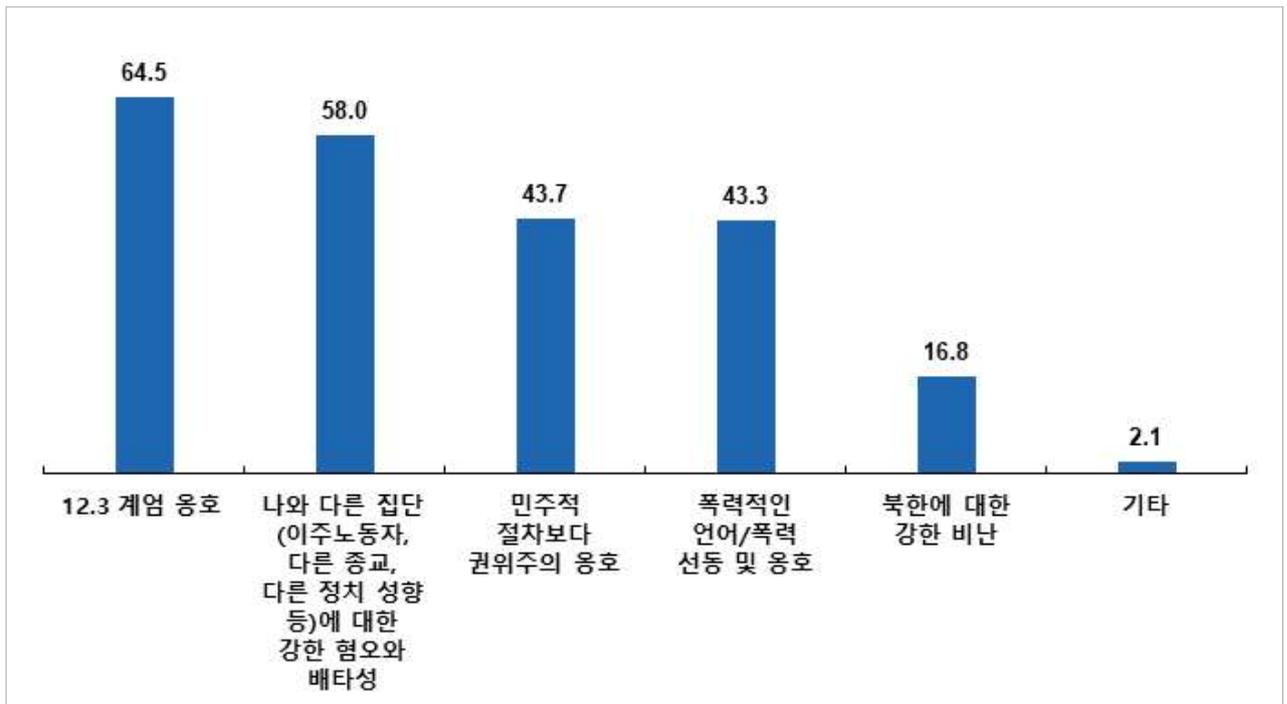
질문

Q. 한국 교회에 극우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응답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극우로 인식한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한국교회의 비상계엄 관련 태도를 핵심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 다음으로는 '나와 다른 집단(이주노동자, 다른 종교, 다른 정치 성향 등)에 대한 강한 혐오와 배타성'이 58.0%로 높게 나타나, 한국교회의 사회적 태도와 언어가 극단적 이념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이 외에도 '민주적 절차보다 권위주의를 옹호한다'는 응답이 43.7%, '폭력적인 언어 사용, 폭력 선동 및 옹호'가 43.3%로 나타나, 정치적 입장뿐 아니라 표현 방식과 가치 지향 역시 극우 이미지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이라 평가하는 이유

(Base=한국교회를 극우로 평가한 자, N=471, %)



5) 한국교회를 극좌 성향이라 평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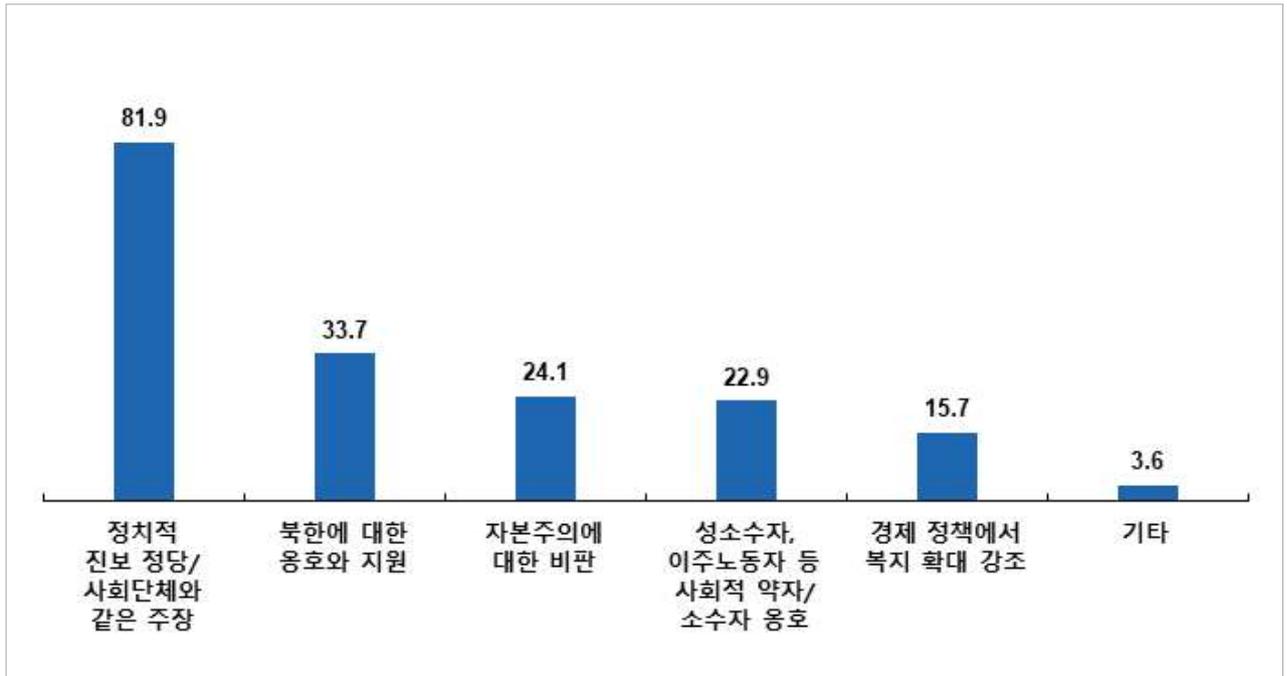
질문

Q. 한국 교회에 극좌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한국교회를 '극좌' 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치적 진보 정당이나 사회단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는 응답이 81.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극좌로 인식한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메시지를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 다음으로는 '북한에 대한 옹호와 지원' 33.7%,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2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옹호' 역시 극좌 인식의 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정치적 진보 정당·사회단체와 같은 주장'을 극좌 평가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한국교회를 극좌 성향이라 평가하는 이유

(Base=한국교회를 극좌로 평가한 자, N=83, %)



[표] 한국교회를 극좌 성향이라 평가하는 이유 (응답자 특성별)

(Base=한국교회를 극좌로 평가한 자, N=83, %)

구 분		사 례 수 (명)	정 치 적 진 보 정 당 / 사 회 단 체 와 같 은 주 장	복 용 하 는 대 한 지 원	자 본 주의 에 대 한 비 판	성 소 수 자 , 이 주 노 동 자 , 자 주 적 사 회 적 약 자 / 소 수 자 옹 호	경 제 서 대 정 책 지 강 조	기 타
전 체		(83)	81.9	33.7	24.1	22.9	15.7	3.6
성 별	남 성	(39)	82.1	35.9	30.8	28.2	20.5	5.1
	여 성	(44)	81.8	31.8	18.2	18.2	11.4	2.3
연 령	19~29세 이하	(14)	85.7	35.7	35.7	35.7	21.4	7.1
	30대	(11)	63.6	36.4	45.5	27.3	27.3	9.1
	40대	(13)	76.9	23.1	15.4	38.5	30.8	0.0
	50대	(10)	70.0	30.0	10.0	10.0	20.0	0.0
	60대 이상	(35)	91.4	37.1	20.0	14.3	2.9	2.9
지 역	서울	(14)	85.7	28.6	28.6	14.3	21.4	7.1
	경 기 / 인 천	(25)	68.0	28.0	24.0	24.0	20.0	4.0
	대 전 / 충 청	(11)	90.9	27.3	18.2	18.2	9.1	9.1
	대 구 / 경 북	(13)	92.3	38.5	38.5	15.4	15.4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9)	88.9	66.7	11.1	33.3	11.1	0.0
	광 주 / 전 라	(9)	77.8	33.3	22.2	44.4	11.1	0.0
	강 원 / 제 주	(2)	100.0	0.0	0.0	0.0	0.0	0.0
직 업	자 영 업	(5)	100.0	80.0	60.0	20.0	0.0	20.0
	블 루 칼 라	(11)	90.9	18.2	18.2	27.3	18.2	0.0
	화 이 트 칼 라	(22)	68.2	31.8	27.3	22.7	22.7	0.0
	가 정 주 부	(18)	88.9	33.3	16.7	22.2	11.1	5.6
	학 생	(5)	80.0	40.0	60.0	40.0	40.0	0.0
	무 직 / 기 타 / 무 응 답	(22)	81.8	31.8	13.6	18.2	9.1	4.5
소 득 수 준	상	(9)	100.0	44.4	55.6	22.2	22.2	0.0
	중	(32)	81.3	34.4	21.9	28.1	18.8	6.3
	하	(38)	81.6	31.6	18.4	21.1	13.2	2.6
	무 응 답	(4)	50.0	25.0	25.0	0.0	0.0	0.0
이 념 성 향	보 수	(25)	92.0	52.0	32.0	28.0	20.0	4.0
	중 도	(25)	88.0	36.0	28.0	20.0	16.0	4.0
	진 보	(19)	78.9	10.5	5.3	26.3	15.8	5.3
	잘 모 르 겠 음	(14)	57.1	28.6	28.6	14.3	7.1	0.0
종 교	기 독 교 (개 신 교)	(12)	75.0	25.0	25.0	41.7	0.0	0.0
	천 주 교 (가 톨 릭)	(9)	100.0	33.3	22.2	22.2	33.3	11.1
	불 교	(15)	86.7	46.7	13.3	13.3	13.3	0.0
	기 타 종 교	(1)	100.0	100.0	0.0	0.0	100.0	0.0
	무 종 교	(46)	78.3	30.4	28.3	21.7	15.2	4.3
삶 에 서 종 교 의 중 요 성	중 요	(24)	87.5	29.2	12.5	33.3	12.5	0.0
	중 요 하 지 않 음	(13)	84.6	53.8	30.8	7.7	23.1	7.7
	무 종 교	(46)	78.3	30.4	28.3	21.7	15.2	4.3
한 국 교 회 신 뢰 도	신 뢰	(13)	84.6	15.4	15.4	38.5	23.1	0.0
	신 뢰 하 지 않 음	(63)	85.7	39.7	23.8	22.2	15.9	1.6
	잘 모 르 겠 음	(7)	42.9	14.3	42.9	0.0	0.0	28.6
한 국 교 회 이 념 적 성 향 평 가	극 좌	(83)	81.9	33.7	24.1	22.9	15.7	3.6

설문지

2026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_____세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교회에 대한 인식

문1. 귀하께서는 한국 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설문 조사에서 기독교 또는 한국교회는 가톨릭 또는 가톨릭 성당이 아니라 개신교 또는 개신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만)

- 1) 매우 신뢰한다
2) 약간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9) 잘 모르겠다

문2.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매우 신뢰하면 1번, 약간 신뢰하면 2번,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 3번,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4번 중에서 하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응답)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9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9

문3.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교회 지도자(목사)들의 삶
2) 타 종교에 대한 태도
3) 교인들의 삶
4) 불투명한 재정 사용
5)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움
6) 기타 _____
9) 잘 모르겠다

문4. 그럼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봉사 및 구제활동
- 2)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 3)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 4)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 5) 기타 _____
- 9) 잘 모르겠다

문5.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교회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윤리/도덕성
- 2) 성범죄
- 3) 물질 추구 성향
- 4)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 하는 태도
- 5) 권위주의적 태도
- 6)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
- 7)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집회 참여
- 8) 기타 _____
- 9) 잘 모르겠다

문6. 그럼, “기독교인(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정직하지 못한 언행
- 2) 나만 옳다는 자세
- 3) 기복주의 신앙
- 4) 이기적 태도
- 5)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 6) 기타 _____
- 9) 잘 모르겠다

문7.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매우 기여한다
- 2) 약간 기여한다
- 3) 별로 기여하는게 없다
- 4) 전혀 기여하는게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8.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매우 기여할 것이다
- 2) 약간 기여할 것이다
- 3) 별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 9) 잘 모르겠다

문9. 귀하께서는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할 것 같습니까? (단수응답)

- 1)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 2) 종교적 신념을 추구할 것이다
- 9) 잘 모르겠다

문10. 귀하께서는 평소 종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 1) 매우 있다
- 2) 약간 있다
- 3) 별로 없다
- 4) 전혀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1.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친근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_____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2.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_____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3.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_____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4. 다음 중 어느 종교의 사회봉사활동이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_____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5. 귀하께서는 교회 혹은 목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이나 찬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매우 찬성한다
- 2) 약간 찬성한다
-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 9) 잘 모르겠다

문16.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이바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부터 순서대로 두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1)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과 복지 제공
- 2) 정신적 위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심리적 안정감 제공
- 3) 지역 환경 개선, 기후생태 보호 활동 등 사회적 문제 개선 활동
- 4) 사회 윤리적(정직, 절제, 배려, 공동체 책임 의식 등) 가치 형성과 제고
- 5) 재난과 위기 대응(지진, 폭우, 화재 피해 지원 및 재건 활동)
- 6) 민주화, 자유, 정의, 평화 등 사회적 공의를 세우기 위한 활동
- 7) 기타 ()

문17.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이바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두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1)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과 복지 제공
- 2) 정신적 위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심리적 안정감 제공
- 3) 지역 환경 개선, 기후생태 보호 활동 등 사회적 문제 개선 활동
- 4) 사회 윤리적(정직, 절제, 배려, 공동체 책임 의식 등) 가치 형성과 제고
- 5) 재난과 위기 대응(지진, 폭우, 화재 피해 지원 및 재건 활동)
- 6) 민주화, 자유, 정의, 평화 등 사회적 공의를 세우기 위한 활동
- 7) 기타 ()

문18. 언론에 비춰진 한국교회/기독교인의 모습과 실제 생활하시면서 접하신 한국교회/기독교인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내가 경험한 것보다 언론에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 2)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 3) 내가 경험한 것보다 언론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12.3 계엄과 탄핵 국면

문19. 12.3 비상 계엄과 그 이후 한국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12.3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에 더 동의한다
- 1) 12.3 비상 계엄을 반대하는 주장에 더 동의한다
- 2) 12.3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비슷하다
- 3) 12.3 비상 계엄에 무관심하다
- 4) 잘 모르겠다

문20. 한국 교회의 전반적 이념적 성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수응답)

- 1) 대체로 극우 성향을 보인다
- 1) 보수적인데 일부만 극우 성향을 보인다
- 2) 보수적이지만 극우는 아니다
- 3)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 4) 진보적이지만 극좌는 아니다
- 5) 진보적인데 일부만 극좌 성향을 보인다
- 6) 대체로 극좌 성향을 보인다

문21. 한국 교회의 이념 성향을 그렇게 평가하시게 된 출처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1) 집회 및 시위를 보고
- 1) 주위 기독교인의 발언을 듣고
- 2) 언론 보도를 보고
- 3) 유튜브 정치 관련 채널/콘텐츠를 보고
- 4) 기타 ()

(문20에서 1번, 2번 응답자)

문22. 한국 교회에 극우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1) 12.3 계엄 옹호
- 1)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
- 2) 나와 다른 집단(이주노동자, 다른 종교, 다른 정치 성향 등)에 대한 강한 혐오와 배타성
- 3) 폭력적인 언어/폭력 선동 및 옹호
- 4) 민주적 절차보다 권위주의 옹호
- 5) 기타 ()

(문20에서 6번, 7번 응답자)

문23. 한국 교회에 극좌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1)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옹호
- 1) 경제 정책에서 복지 확대 강조
- 2) 정치적 진보 정당/사회단체와 같은 주장
- 3)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 4) 북한에 대한 옹호와 지원 정책
- 5) 기타 ()

응답자 배경 질문

* 통계 처리를 위해 몇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 1) 농업/임업/어업
- 2) 자영업
- 3) 판매/영업/서비스직
- 4) 생산/기능/노무직
- 5) 사무/관리 전문직
- 6) 가정주부
- 7) 학생
- 8) 무직/퇴직/기타
- 9) 모름/무응답

DQ2. 님의 가구소득 수준은 다음의 5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만)

-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 9) 모름/응답

DQ3. 귀하의 이념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하나만)

- 1) 매우 보수적이다
- 2) 다소 보수적이다
- 3)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 4) 다소 진보적이다
- 5) 매우 진보적이다
- 9) 잘 모르겠다

DQ4.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만)

- 1) 기독교(개신교)
- 1) 천주교(가톨릭)
- 2) 불교
- 3) 원불교
- 4) 유교
- 5) 기타 _____
- 6) 종교 없음

[DQ4=1~6번 응답자만]

DQ5. 종교가 개인적으로 귀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 약간 중요하다
- 4) 매우 중요하다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2026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개요

Ⅰ 여론조사 검토위원회

- ◇ 책임연구원 : 성석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
- ◇ 검토위원 : 김상덕(검토위원장,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구자창(국민일보 기자, 기윤실 청년운동본부장)
김혜령(이화여대 기독교학 교수)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기윤실 공동대표)
신하영(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윤진영(목사,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김현아(기윤실 사무처장)
윤동혁(기윤실 간사)
- ◇ 여론조사 수행기관 : 지앤컴리서치 - 지용근 대표, 김진양 부대표

Ⅰ 여론조사 진행 일정

- ◇ 검토위원회 : 1차 2025년 11월 27일(목)
2차 2025년 12월 10일(수)
3차 2026년 1월 5일(월)
- ◇ 여론조사 : 2026년 1월 5일(월) ~ 10일(토) - 6일간
- ◇ 결과발표 : 2026년 2월 27일(금) 오전10시, 성락성결교회 2층 성산홀

- Ⅰ 주 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Ⅰ 수행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Ⅰ 후 원 (주)아이니웨딩네트웍스, 향상교회

